

시로 읽는 성보순례
송광사 16국사전
국보 제56호 송광사국사전
조선시대 ▶2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 6월 14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 899 호 2012년 8월 1일 수요일

재앙이 없을 것이라 하여
작은 악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물방울이 쌓여 그릇을 채운다.
「법구경 상권」

만해학의 지평 아시아로 확장

만해학회 7월 27일 '아시아와 만해' 세미나

일제의 만행이 아시아로 뻗친 1930년대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불교혁신과 더불어 평화공존을 주창한 만해 한용운 스님. 스님의 불교개혁 사상과 당시 동아시아 각국 평화 개혁 사상의 연관성을 비교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만해학회(학회장 한계전)가 7월 27일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서울사무소에서 '아시아와 만해'를 주제로 연 만해축전 기념 세미나에서는 각국 평화개혁가들과 만해 스님의 사상에 대한 비교 · 고찰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이날 세미나는 국내 연구에만 머물렀던 만해스님의 연구가 동아시아 전반으로 지평을 넓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좌장을 맡은 전기철 만해학회 사무국장(숭의여대 교수)은 "만해 사상에 대한 조명은 그동안 국내 중심에 머물러왔다. 이제 국제로 발을 넓혀 외국 사상가들과 같은 위치에서 비교 검토를 통해 만해학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데 적극 나서겠다"며 의미를 강조했다. 만해학회는 2012년을 만해 사상 세계화 원년으로 삼고 하반기 국제세미나 개최 등을 준비 중에 있다.

만해 스님은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한 데 이어 중국까지 침략한 1930년대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불교혁신과 더불어 평화혁명을 주창했다. 동아시아 평화공존을 갈망한 만해사상에 대해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 인도 등지에서도 문화유산으로 그 사상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해 한용운이 서구문명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으며 일본 유학을 했고, 양계초 저술에서 영향을 받은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만해 한용운 입적 이후 60년간 진행돼 온 그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가지 방향에 머물러 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선불교유신론〉에 대한 이해와 국내 불교계와 사회에 미친 영향을 넘어 세계 평화사상, 개혁사상에 미친 만해의 영향에 대한 조명이 이뤄졌다.

만해의 평화 개혁사상 비교
만해학 세계화 발판 마련
하반기 국제세미나도 예정

세미나에서는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의 '한용운의 불교개혁 사상과 동아시아'를 주제로 한 총론을 시작으로 △한상길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원의 '이동인과 만해; 근대불교의 개화와 유신' △원영상 원광대 교수의 '한용운과 세노오 기로의 불교혁신사상 비교연구' 등 각국 개혁사상가와의 비교 연구가 발표됐다.

홍사성 만해사상실천선양회 홍보위원장은 "노신이 중국과 아시아, 세계의 노신인 것처럼 만해 스님도 세계적인 인물이라는 점을 조명하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관련기사 9면

재가불자 안거 열기…삼복더위 어디로 갔나



염천의 더위에도 재가자들의 수행열기는 뜨겁다. 봉은사 봉은선원에 방부를 들인 재가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참선 수행을 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올해도 재가 불자들의 안거 열기가 뜨겁다. 전국 사찰의 시민선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의 정진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민선원은 대략 80여 곳. 직접 3개월 방부를 들이고 스님과 똑같이 화두를 잡는 형식부터 오전과 오후, 시간을 정하고 집과 선원을 오가며 수행하는 방식까지 안거 참가 방법도 다양하다.

시민선원이 대중화되면서 일상생활이 바쁜 재가자들을 위한 맞춤형 안거도 생겨났다.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의장 만초, 이하 대중결사)는 회원 사찰들을 중심으로 지난해 하안거부터 '재가안거 수행결사'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하안거에는 부산전법도량 소속 7개 사찰이 참여해 현재 17개 사찰, 1300명의 재가자가 용맹정진 중이다. 대중결사의 '재가안거 수행결사'는 일상생활에서 수행정진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짜여 있다. 특히 참선이 아닌 자신이 선호하는 수행법을 선택해 정진하고 매일 적극적인 선행을 쌓도록 하는 게 대중결사 '재가안거 수행결사'의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대중결사 재가안거에는 매일 자신의 수행을 점검할 수 있는 〈수행록〉이 제공되며 안거를 성만했을 시 안거증도 수여된다.

80여 사찰 · 시민선원 운영
출퇴근 · 방부 등 방법 다양
대중결사 재가안거 '눈길'
17개 사찰, 1300명 수행
젊은층 참가 비율은 적어
힐링 등 단계프로그램 필요

'재가안거 수행결사'에 대해 이명호 대중결사 사무국장은 "본격적인 재가 수행문화를 활성화하고 정착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재가 안거가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참선만이 아닌 자신에게 맞는 수행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편화 돼가는 재가 안거와 시민선원이지만 넘어야할 산도 분명 존재한다. 구참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젊은 층의 참여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재가안거나 시민선원 문화가 정체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 재가안거에 단계별 수행 프로그램과 교학을 기반한 강의 프로그램이 함께 동반돼야 한다는 제안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는 "이제 재가 안거 세부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며 "특히 젊은층이 안거에 참여하기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이나 올바른 수행을 위한 교학 강의가 함께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수행의 열기가 포교적 역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 시스템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관련기사 5면



달마 스님도 올림픽 선전 기원 7월 24일 부산역 광장에 달마도의 대가 법용 스님이 그린 45m 크기의 대형 달마도가 걸렸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한국 올림픽 대표단의 선전을 기원하는 달마도는 24일 하루동안 전시돼 오가는 부산 시민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원로회의 소위 '부결 종헌 개정안' 논의

27일 1차 회의… 조계종 원로의원 자격 등도 다뤄

조계종 원로회의 소위원회(위원장 현해)는 7월 27일 1차 회의를 열고 제40차 원로회의에서 부결된 '종헌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면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 현해 스님은 원로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종헌 개정안'을 참가 위원 스님들에게 배포했다. 이날 회의는 개정안 내용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세부적인 사안은 오는 8월 6일 2차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해 스님이 배포한 개정안에는 종정 자격을 '연령 70세 이상'으로 하고, 원로의원 법계에 '대종사'를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소위원회는 부결한 '종헌' 개정안의 대안과 종정 · 원로의원 자격, 멸빈자 사면 등의 사안을 논의한 후 취합된 의견을 총무원과 중앙종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현해스님을 비롯해 종하, 월탄, 밀운, 명선, 암도, 인환, 원명, 월서 스님 등 9명이 참석했으며, 도문 스님은 불참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중앙종회(의장 보선)는 7월 25일 긴급간담회를 열고 원로회의의 부결로 위헌 요소가 생긴 종법 개정안들을 공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앙종회 의원 주경 스님은 "종회 논의를 거쳐 상정된 종헌 개정안 인준이 부결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원로의원 스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원로회의 소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종법 개정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9월 18일 종회를 열기로 하고 그 사이 원로스님들에게 종헌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는 한편, 원로회의 소위원회에서 도출될 개정안을 반영해 종헌 개정안을 재논의키로 했다. **신중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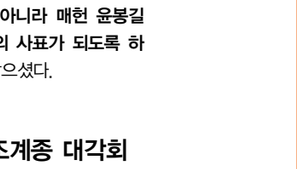
899호 INDEX

종단 2
화쟁위원회 2기 출범의 과제

종합 3
사찰 에너지 종책 토론회

신행 6
올림픽 선수들의 모정불심

나의 서원 나의 신행 16 · 17
부산 화엄사회주 각성 스님



一心大覺

大聖 석가모니불의 大覺 佛敎思想을
宣布하며 기미년 3.1독립운동의
민족대표 33인중 한분이신
용성진종조사의 대각사상·
구국사상·호국사상을 계승합니다.
계승 발전을 통해
불교 정신문화를 선도합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임원 일동



1962년 3월 1일 대한민국 건국 공로
1990년 10월 9일 대한민국 은관문화훈

한국불교
지성화
대중화
생활화의
대스승

백용성
조사



을유년(서기1945년) 8.15광복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백범 김구선생님이 서기 1945년 11월 23일 중국 중경에서 귀국하여, 그해 12월 12일에 용성 진종(白龍城)조사의 창건도량이고 기미년 3.1독립운동의 진원지인 서울 종로 대각사를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등과 함께 방문하여서 불전에 예배하고 용성 진종(白龍城)조사 영정에 예배하면서 귀국인사를 올리며 **"용성큰스님께서 계속 보내주신 독립운동자금으로 나라의 광복을 맞이하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헌 윤봉길 의사를 보내주시어 만대 귀국 충절 순국의 사표가 되도록 하여주셨나이다"** 하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7-2
Tel. (02) 765-2701, Fax. (02) 741-1385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56호 송광사국사전



송광사 16국사전

송수권

모후산에서 나무 솔개를 타고
국사전 뒷마당에 내려앉아
이곳 조계산 연꽃 속에
돈오점수 조계종의 선맥을 뿌린
보조 지눌이여
그대 이름 아름답구나
우리 선바람 창창하구나

오늘 이곳에 들러 민대가리 스님들
꿀밤 한 대씩 먹이며
이 도량석에 석탑을 세우지 않고
왜 석등을 켜지 않은지
그 까닭을 알겠구나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中에서

송수권 시인은… 1940년 전남 고흥 출생. 1975년 〈문학사상〉으로 등단. 시집〈산문에 기대어〉, 〈언 땅에 조선매화 한 그루를 심고〉 등.

2기 화쟁위 "사회 속으로 들어가자"

26일 2기 위원 위촉식… 위원장 도법 스님 재선출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2기 위원들을 위촉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화쟁위원회는 7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2기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2기 위원에는 호계원장 법등,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 도법,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불교중앙박물관장 흥선, 서울 불광사 회주 지홍, 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 원명,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 퇴휴,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일운 스님 등이 승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재가위원으로는 김동건 법무법인 바른 대표 변호사, 윤성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성태용 건국대 철학과 교수, 박경준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조은수 서울대 철학과 교수, 김종빈 前 검찰총장, 이남곡 논실마을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위촉식 이후 열린 첫 회의에서 2기 위원들은 위원장에 도법 스님을, 부위원장에 지홍 스님과 김동건 변호사를 선출했다.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총무위원에는 원명 스님이 임명됐다.

화쟁위원회는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출범한 첫 조계종 종단기구다. 2010년 6월 8일 출범한 화쟁위원회는 생명평화운동의 선구자 도법 스님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당시 최대 이슈였던 4대강과 불교계 갈등 현안인 봉은사 직영사찰 문제를 의제로 채택했다.

특히 4대강 문제 있어서는 첨예한 찬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 정부,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국민적 논의기구를 제안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그해 12월 정부와 여당이 4대강 예산을 날치기 통과함으로서 화쟁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1기 사회 갈등 중도 해법 노력
결사본부 산하 기구 인식 벗어야
갈등 해결 위한 화쟁적 대안 필요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을 놓고 빚어진 갈등에 있어서는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며 합리적 중재안을 제시해 성공적인 결론을 이끌어냈다.

2011년에는 남남갈등과 종교평화를 의제로 삼고 종교평화선언,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쌍용차 해고근로자, 한진중공업, 제주 강정마을 사태 등은 위원장 도법 스님이 직접 발로 뛰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21세기 아쇼카 선언'으로 명명된 종교평화선언은 초안을 작성해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불교계 내부 반발로 현재까지 발표되지 못하고 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7월 26일 화쟁위원회 2기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추진 사업들의 성패는 갈리지만, 불교종단이 직접 사회 갈등을 다루는 기구를 만들고 활동을 한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다.

1, 2기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법안 스님은 "그동안 불교계가 등안시 했던 사회문제를 종단 차원으로 다루고 해법을 모색하려 한 것은 성과"라며 "갈등 해소를 위해 위원회가 노력하려 해도 사회적 구조가 가지고 있는 벽이 너무 단단하다. 이를 넘을 수 있는 화쟁적 대안 창출이 2기의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와 더불어 인력 구조 변화와 종단 내 중립성 확립은 화쟁위원회가 넘어야 할 숙제다. 지난해 6월 결사추진본부로 편입되며 화쟁위원회의 활동이 위축됐다는 지적들이 교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위원회가 종단 내부로 들어감으로서 인력 구조와 기구의 중립성 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화쟁위원 성태용 교수는 "결사추진본부로 화쟁위원회가 편입되면서 중립성의 한계성을 가지게 됐고, 인력 운용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를 빨리 극복해야 한다"며 "이런 내부적 쇄신과 함께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아젠다를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불광심인당 진언행자 25명 새 출발

진각종 12년만에 LA서 수계관정불사

진각종은 7월 22일 미국 L.A 불광심인당(주교 관증 정사)에 개설된 삼매야계단에서 미국 신교도 대상 보살십선계 수계관정불사를 봉행했다.

12년 만에 봉행된 수계관정불사에서는 25명의 신교도가 보살십선계를 받고 진언행자로 태어났다.

증명 아사리 성초 총인을 비롯해 혜명정사, 효운 정사 등이 계사로 참여한 이번 불사에는 계체이운을 시작으로 헌화, 설계단문, 청계, 삼귀명, 수계자 대표 헌화, 성취계체, 설계상, 관정 및 가지, 입지게, 법어 순으로 진행됐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미국 LA 불광심인당서 봉행된 수계관정불사에서 25명이 아사리 정사들로부터 계첩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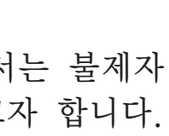
해인사 26대 주지 선해 스님 취임

25일 종무 인수인계… 정상화위, 유착관계 해명 촉구

해인사 26대 신임 주지에 선해 스님〈사진〉이 공식 취임했다.

조계종 제12교구본사 해인사 주지 선해 스님은 7월 25일 오전 총무원 총무부, 재무부의 참석 하에 종무 인수 인계를 받았다. 선해 스님은 인수 인계 이후 방장 법전 스님을 예방하고 취임 인사를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해인사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원학, 여연)는 선해 스님에게 △해인사 고불암의 위패, 납골, 천도재 방문판매사업 지속 여부 △180억 원대의 해인사 고불암의 부채 정리 방안 △선각 스님과 주위 측근들과의 친소 관계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신중일 기자**



쌍계사·고운사 8월 28일 보궐선거

조계종 제13교구 쌍계사와 제16교구 고운사가 8월 28일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28일 공고했다. 쌍계사는 원정스님의 사직으로, 고운사는 지현스님의 총무원 총무부장 임명으로 각각 궐석이 된 상태다.

입후보자 자격은 승랍 15년 이상, 연령 35세 이상의 종단 재적승이며 두 교구 모두 입후보자 등록은 8월 14~16일, 거주승 신고기간은 8월 3일까지다. 쌍계사는 8월 28일 오후 1시 설선당에서, 고운사도 선체험관에서 각각 투표를 실시한다.

봉 (사)여래불교조계종 창종을 제방에 고합니다 축



제1세 종정예하
무여당 현산

불법홍포와 수행정진에 매진하시는 제방의 청정승가와 돈독한 불심으로 삼보호지에 앞장서는 불제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부처님 전에 일심으로 기원하오며 여래불교 조계종 창종을 감히 고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혼탁한 환경을 정화하고자 정도수행, 정법포교, 평화불교를 외치고자 무여당 현산 큰스님을 초대 종정으로 받들고 어린 수행자들이 모였습니다. 여래불교조계종에 사부대중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다시한번 부탁드리며 교육종단, 청정종단, 열린종단을 지표로 한국불교 중흥에 앞장서는 종단을 만들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며 여래불교조계종의 종지종풍에 함께하실 종도님들을 모십니다.

종 회 의 장 혜견　　**총 무 원 장** 현산
사 무 총 장 자운　　**감 찰 원 장** 법성
중앙교육원장 중무　　**문 화 원 장** 향지
표 교 원 장 만경

여래불교조계종 종도일동

입 종 안 내

구비서류 : 종단 가입신청서, 사찰등록 신청서,
반명함 사진 3매, 주민등록증 사본(앞. 뒤)

※ 금년 입종 종도에 한하여 입종비 일체를 면제합니다.

(사)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778-14 여래사　　전화 02)2282-5830 (팩스 겸용)

중앙승가대학교 교양수행학부 신설

학교법인 승가학원(이사장 자승, 조계종총무원장)은 7월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95차 이사회를 열고 중앙승가대가 교양수행학부를 신설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결의 사항은 학제개편에 따른 대학헌장변경의 건을 통해 논의됐으며, 이에 따라 중앙승가대는 2014년 시행되는 학부제에 불교학부와 불교사회학부 외에도 교양수행학부를 신설하게 된다.

교양수행학부는 중앙승가대에 입학한 모든 스님이 거쳐야할 과정으로, 불교적 사상과 수행가치를 기르는 불교기본교리 교과와 생태, 생명윤리 등 종교지도자로서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교양을 쌓는다.

이와 함께 학부 내 학과를 전공으로 변경해 불교학부는 불교학전공, 불전번역학전공, 문화재학전공으로 세분화 되며 불교사회학부는 포교사회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불교상담심리학전공으로 면모를 일신한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요청에 따라 기존 감사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종단 추천 개방형 이사의 수를 3명으로 변경하는 정관도 개정했다. **신중일 기자**

'불교닷컴' 은 불지회 소속 언론

대불청, 25일 기자회견서

대한불교청년회 호법단(회장 정우식)은 7월 25일 11시 조계종 포교원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교닷컴이 불지회 소속 언론사라는 사실과 근거를 공개했다.

대불청은 "사법당국에 진술한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불교닷컴은 각종 해종행위를 통해 멸빈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단체에 소속된 언론"이라며 "그동안 '개혁언론'인 양 떠들어온 불교닷컴이 왜 해종자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산하 기관으로 들어갔는지에 대해 이유를 묻고 싶다. 인수 시점 역시 김정희가 멸빈된 2007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불교닷컴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진행한 일이라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대불청은 "앞으로 불교닷컴이 발로참회를 토애 거듭나지 않는다면 부도덕한 사이비 언론, 비리언론, 해종언론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불교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등과 논의해 강력한 퇴출운동을 벌이겠다"고 천명했다.

이은정 기자

재생에너지로 사찰 전기요금 절감

불교사회硏 '사찰 에너지' 주제 종책 토론회

유가 상승으로 사찰 에너비 비용의 가중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찰림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 매스를 도입할 경우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최승철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은 7월 24일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개최한 '사찰에너지제도 및 소비형태의 고찰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강원도에 위치한 한 사찰을 연구 사례를 공개했다.

ㅇ사의 구조와 전기 사용량을 심층 분석한 최 부소장은 "ㅇ사의 1년 심야전기료는 9836만원 수준이다. 주변의 나무연료를 사용하는 화목보일러로 난방시스템을 전환할 경우, 대략 5000만원가량 절감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전통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보강을 통해서도 28.5%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최 부소장은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을 제안했다. 최 부소장은 "이제 사찰은 단순히 에너지 비용 부담 때문만이 아니라 생명존중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지켜나가야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제 재생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며 "풍부한 사찰림을 가진 불교계에 임부산물을 활용하는 바이오매스는 중요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최 부소장은 이어 "보유 사찰림이 200만평 이상 되는 중대형 사찰을 중심으로 임부산물과 인근 농가에서 발생하는 농부산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지역난방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동수 불교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은 '전통사찰 전기요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모색' 제하의 발제에서 전통사찰이 공익적 가치를 다하고 있는 만큼 적용되고 있는 전기요금 체계를 산업, 교육용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개최한 '사찰에너지' 주제의 종책토론회에서는 사찰 내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사찰림 활용한 바이오 매스
산간지역 사찰서 효율 높아
에너지 자립까지 '일석이조'
전통 사찰 전용 요금 '부정적'

하지만 이 같은 불교계의 주장에 여타 다른 패널들은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정한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실장은 "사찰만을 위한 전기요금제도의 적용과 신설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사찰의 공공재적 가치를 반영한다면 모든 종교단체, 체육시설, 의료기관, 국방 등 많은 소비자 그룹들이 사회적 기능을 앞세워 요금인하를 요구할 것이고, 이는 나머지 소비자들에게 원가 이상의 요금이 부과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용도별 요금체계에서 벗어나 전압별 요금제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종별 구분을 신설하는 것은 수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정길 前 에코붓다 공동대표는 "한국의 전기요금은 외국보다 많이 싼 편"이라며 "종교계 환경단체들이 '탈핵'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교계의 전기요금을 내려달라는 주장은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신근정 녹색연합 녹색에너지디자인 사무국장도 "불교계가 전기 요금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이 같은 시스템을 잘 알아도 전기 요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실무자들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김두관 前 경남도지사는 7월 24일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김 前지사는 대선 후보군 중 유일한 불자이다.

"'포용 리더십' 실천"

김두관 前 도지사, 자승 스님 예방

대선 후보 중 유일한 불자로 잘 알려진 김두관 前 경남도지사가 7월 24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날 자리에서 자승 스님은 "대선 출마 소식을 들었다. 축하드린다. 원하는 게 이뤄지길 항상 기도하겠다"고 인사를 건넸다.

김 前도지사는 "불교는 포용의 종교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 반해 불교에 귀의했다"며 "불자가 된지 5년 밖에 안됐지만, 불교의 '포용의 리더십'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신중일 · 사진= 박재완 기자

"민영미디어랩 편입 막아달라"

불교방송 교계 여론 몰이 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불교방송의 광고 판매를 SBS의 민영미디어랩이 맡도록 하는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를 확정함에 따라 불교방송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7월 25일 행정예고를 한 뒤 규제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순쯤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불교방송은 7월 25일 불교계 기자 간담회를 갖고 반대의 뜻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불교방송 박관우 보도국장은 "불교방송은 국민의 정신과 가치를 함양하는 공익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방송이다. SBS 미디어랩과의 결합 판매보다는 기독교방송과 평화방송과 같이 공영미디어랩, 코바코에서 광고 판매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공적 가치의 종교방송 불교방송을 생각한다면 이를 막아야 한다"며 뜻을 밝혔다.

이에 불교방송은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능도 스님과 7월 24일 방송통신위와 청와대를 잇따라 방문해 의견을 전달했다. **정혜숙 기자**

"기독 편향 대법관 임명 안된다"

조계종중앙종회, 김신 대법관 임명 동의 반대 성명

과거 종교편향 행적으로 물의를 빚은 김신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은 7월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신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앙종회는 성명서에서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김신'은 자신이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로 대법원의 판례마저 무시한 채 기독교계에 유리한 선고를 내렸다"며 "지진으로 극한의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의 국민들을 향해 '하나님의 경고'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 이런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사법정신을 버리고 '기독교 편향의 법정'을 만들겠다는 심산"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중앙종회는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김신 대법관 후보에 대한 추천을 철회할 것 △국회는 김신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를 거부할 것 △김신 대법관 후보자는 종교 편향적인 언행에 대해 국민 앞에 공개 참회하고 일체 공직에서 자진 사퇴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김신 대법관 후보자는 과거 재판 중 법정에서 기도회를 열고, 특정종교에 유리한 판결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또, 불교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부산 · 울산 성시화 운동을 주도해 불교계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신중일 기자**

"서툴지만 대화하며 해법 찾았다"

야단법석, 7월 24일 회향… 진솔한 의견 나눠

불교계의 열린 광장을 모토로 시작된 조계종결사추진본부의 1차 야단법석이 7월 24일 회향했다.

조계사 100주년기념관 2층에서 '결사에 바란다'는 주제로 열린 야단법석에는 다양하고 진솔한 의견들이 오갔다.

마지막인만큼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은 처음 마이크를 잡았다. "야단법석은 불교를 그대로 세상에 드러내 변화의 해답을 찾아가자는 의미가 있다"며 "돌아보면 해답은 스스로에게 있었다. 서툴렀지만 야단법석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내놓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 해답을 찾아가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어 참가 대중의 발언이 이어졌다. 봉은사 신도인 평담 거사는 "불자와 스님의 문화가 변화해야 한다. 특히 토론 문화가 전무하다. 토론하며 승단의 개혁을 이야기 했던 부처님의 뜻을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야단법석 현장

불학연구소장 허정스님은 "토론 문화의 불모지 불교계에서 대화의 장을 연 것 자체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수원에서 온 이현수 씨는 "종교의 가르침은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데 있다. 그 본질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한국불교 지성화·대중화·생활화

목동큰절 법안정사는 한·불 수교 백주년을 기념하여 설치된 파리공원을 앞에 두고, 반만년의 역사와 배달 한겨레의 혈맥을 안고 영겁을 흐를 한강을 뒤로하여 시대의 민족 진운을 밝히기 위해 법문을 연 도량이다.


백옹성 조사진영

회주 김 효 경
주지 윤 선 효

– 대중일동 –

- 금강법회: 매월 음력 1일 ~ 3일기도 오전 10시(금강경 독송)
- 인등법회: 매월 음력 15일 오전 10시(원각경 독송)
- 지장재일: 매월 음력 18일 오전 10시(아미타경 독송)
- 관음재일: 매월 음력 24일 오전 10시(관음경 독송)
- 일 요 법 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부 부 법 회: 매월 첫째(토) 오후 7시
- 청 년 법 회: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오후 1시
-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다라니기도: 매월 넷째 월요일 오후 5시~10시

(재)대한불교조계종대각회

목동큰절 **법안정사**
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7-2호
Tel. (02) 2646-4975, (02) 2653-4888

횡성 **大覺正寺**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병지방리 211번지
Tel. (033) 433-3754, (033) 433-0992

일 주 문



중국 태산 등 성지순례

수원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은 8월 9~14일 중국 태산 등 성지순례를 떠난다. (031)239-9391



관음사 등 국내 성지순례

서울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은 10월 10~11일 제주 관음사 등 성지순례를 봉행한다. (02)732-2187



6·25전쟁 위령재

포천 흥룡사 주지 혜문 스님(문화재 제자리찾기 대표)은 7월 27일 '6·25 전쟁 피해자 위령재'를 지냈다.



사찰음식 특강 마련

서울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은 8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산사음식 여름학기 특강반'을 개최한다.



하계 교직원 연수

김희옥 불교교육연합회 회장(동국대 총장)은 8월 2일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제46차 하계 교직원 연수를 개최한다. (02)2260-3835



동산불교대 무상교육

이상우 동산불교대 이사장은 8월 11일 개강하는 동산불교대 41기에서 군불교 종사자들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동국대 경영대학 세계와 어깨 나란히

AACSB 국제 인증 획득, 전 세계 경영대학 중 5%

동국대(총장 김희옥)가 7월 25일, 세계적인 경영교육 인증기관인 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The 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 of Business International, AACSB)로부터 경영교육 국제인증을 획득했다.

동국대는 2008년부터 4년간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6월 실사평가팀(Peer Review Team) 현장방문 실사 후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인증으로 동국대는 학부(Undergraduate), 석사(MBA & MS), 박사(PhD) 과정 등 경영학 학위 전 과정에 대한 교육 수준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경영학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AACSB는 1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비영리 인증기관으로서 현재 전 세계 경영학 교육프로그램의 약 5% 만이 이 인증을 획득·유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KAIST,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10개 학교가 인증 받았다.

노덕현 기자

"불자 스스로 성찰 기회 가져야"

'불교바르게믿기운동' 추진하는 '아줌마는 나라의 기둥' 김용숙 대표



"부처님은 법(法)과 나 자신을 등불로 삼아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수행자가 지녀야 할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불자의 길일까. 최근 조계종단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불자들의 심기가 불편하다. 불자들은 이제 불교의 변화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김용숙 아줌마는 나라의 기둥 대표〈사진〉는 "모든 불자가 먼저 크게 참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지난 6월 6일 자성과쇄신결사 추진본부가 개최한 야단법석 자리에서도 이 같이 발언했다. 당시 김 대표는 참회문 낭독에서 "불자들은 부처님의 법과 자신에게만 의지해야 한다"며 "그동안 불자들이 지나치게 스님들에게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해 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무엇보다 매 순간 의식이 깨어있는 생활 불교인이 돼야 한다"며 "불교를 왜 믿는지,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현재 이에 대한 실천 방안으로 '불교바르게믿기 운동'을 추진 중에 있다.

김 대표는 "불자 중 90%는 여성들이다. 대부분 여성 불자들의 신행활동은 남편, 자녀를 위한 기복신앙에만 집중돼 있다. 현재 불교가 혼란스러운 것도 불자들이 복을 빌기 위해 스님과 절에 너무 많은 보시를 했기 때문"이라며 "불자 스스로가 성찰의 기회를 갖자는 의미에서 이런 운동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불자들이 스님과의 주종관계가 아닌 주체성을 갖고 종교생활을 지속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김 대표는 '불교바르게믿기 운동'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종교가 사회를 지탱하는 보루가 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종교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안타까움을 느꼈다"며 "부처님의 '나와 네가 다르지 않다'는 가르침처럼, 불자로서 나와 네가 다르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나만을 위한 복을 빌미로 스님들에게 지나친 보시를 삼가해야 한다. 그래야 종단과 스님들은 타락의 늪으로 빠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불교바르게믿기 운동'은 스님이나 종단을 비판하기 이전에 불자들이 무엇을 잘못 했는지 이를 먼저 참회하고 바른 불교인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이라며 "아직 첫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단계다.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올바른 신행활동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교바르게믿기 운동'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 많은 여성 불자들의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용숙 대표는 지난 14년 간 '아줌마는 나라의 기둥'을 이끌며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쳐왔다. 그는 지난 해부터 KBS 아침마당 고정패널로도 참여하고 있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국민훈장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이 7월 25일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도용 스님은 이날 천태종 총본산인 충북 단양 구인사에서 김석원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으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전달받았다.

천태종은 도용 스님이 불교 정신문화 선도, 애국애족·평화통일 의식 고취, 사회복지·문화예술 후원 등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도용 스님은 천태종립 금강대를 설립, 인재양성을 통해 국가발전과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했으며 천태종복지재단을 설립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에 진력했다. 또 평화통일을 위한 북한 개성 영통사 복원 및 성지순례 사업 등 남북교류 사업과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를 통해 평화적 남북통일 기반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도용 스님은 "국민화합과 사회발전에 공헌하고 소외계층 지원, 사회문화활동, 인권·생명운동 등에 관심을 쏟겠다"면서 "국가발전과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한 원력을 세워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통합선교종 창종선포 대법회



(사)대한불교통합선교종(총무원장 화엄)은 7월 24일 천안 총무원 강당에서 창종선포 대법회를 봉행했다.

총무원 현판식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는 1세 종정 정각 스님, 원로의원 도기 스님, 총무원장 화엄 스님, 일붕중앙문도회 회장 의륜 스님, 중앙종회의장 삼주 스님, 용성문도회 회장 가산 스님 등 종단 임원 및 각 종단 지도자 사부대중 600여 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화엄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1세 종정이신 정각 스님을 받들어 화쟁과 원융무애 정신으로 한국불교를 선도하는 중추종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세 종정 정각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붕정만리의 큰 꿈을 품고 세계평화와 불교중흥의 첫 마음을 새겨 변함없이 정진해 가자"고 종도들에게 당부했다.

총무부장 광은 스님은 열린종단, 교육종단, 개혁 혁신종단의 3대 지표와 일붕사상연구소 설립을 통한 종단 기본사상 확립, 일붕존자 탄신 100주년 기념 사업회 발족, 일붕 문학상 제정, 군소종단 상호간 업무협약서 체결, 통합 강원 운영과 수행이력 상호승인, 합동다비장 설치, 종단발전 전략기획실 설치, 여론수렴 제도화, 5부 대중으로 편재 개편의 10대 실천 사업을 발표했다. (041)566-2277

노덕현 기자

21회 행원문화상 수상자 발표

학술 – 안성두 서울대 교수
예술 – 최영철 찬불 작곡가



안성두 교수



최영철 작곡가

제 21회 행원문화상 학술 분야에 안성두 서울대 철학과 교수가, 예술 분야는 작곡가 최영철 씨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재단법인 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운)은 7월 25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상자를 확정했다.

학술상 수상자 안성두 교수는 〈보성론〉 번역의 치밀한 역주 등 학술적 기여가 크게 인정받았다. 안 교수는 독일에서 인도 유식학을 중심으로 인도불교를 전공한 후 2001년 귀국해 인도불교철학을 연구했다. 이후 서울대 철학과에서 인도불교 철학을 강의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2007년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행하는 '인문한국 HK' 지원사업에 금강대 책임연구자로 활동했다.

예술상 수상자 최영철 씨는 창작 찬불가 중 '사홍서원' '삼귀의' 등 40여 년을 찬불가와 함께 한 원로 불교음악인이다.

최 씨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00여 곡에 달하는 찬불가를 작곡해 불모지나 다름없는 불교 음악을 이끌어 오고 있다.

학술상, 예술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시상식은 9월 24일 역삼동 대려도에서 열린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죽음은 구름같이 사라지는 것"

웰다잉본부 7월 특강 수필가 맹난자 선생 강연



웰빙 못지않게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불교여성개발원 웰다잉본부는 7월 25일 템플스테이관 문수실에서 '웰다잉 7월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는 수필가 맹난자 씨〈사진〉가 강연자로 나서 '그들 앞에 서면 내 영혼에 불이 켜진다'를 주제로 세계작가들의 삶과 고통을 통해 죽음을 바로보고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맹난자 씨는 "세계 유명 작가들의 죽음은 불교적 사유와 관계가 깊다"며 "그들의 죽음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소개했다. 맹 씨는 "괴테의 〈파우스트〉에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생멸(生滅)과 적멸(寂滅)이 담겨있다. 또 톨스토이는 죽기 전 집을 나와 '내 마지막 날 고독과 평화 속에서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헤르만 헤세는 〈형제의 죽음〉에서 '오라, 사랑하는 죽음이여, 나는 여기에 있다. 와서 나를 잡아라. 나는 너의 것이다'라고 자신의 죽음관을 밝혔으며, 헤밍웨이 역시 〈노인과 바다〉를 통해 자연과 하나가 되는 합일의 경지를 표현했다.

맹 씨는 "공통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생사가 둘이 아님을 논하며,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죽음은 구름이 일어났다 다시 사라지는 것처럼, 죽음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죽을 내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이뭣고 無자 등 화두들며 '나' 비운다



서울 성북동 전등선원에서 수행중인 재가자들을 선원장 동명 스님이 지도하고 있다. 전등 선원에는 20명의 불자들이 가행정진 중이다.

전국 80여 재가선원…3000여 명 용맹정진

'선지식들아, 수행은 세속에서도 가능한 것이며(在家亦得) 사찰에 있기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不由在寺).'

육조 혜능(六祖 慧能) 스님이 출가자 아닌 사람도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7월 26일 서울 종로구 가회동에 위치한 안국선원 4층 대법당에서는 재가불자 500여 명이 빼곡이 앉아 참선 정진에 매진하고 있었다. 이들은 하나 같이 화두를 참구하고 있었다.

재가 불자와 일반인 사이에서 선방 스님들의 전유물처럼 인식되던 화두 수행자가 매년 늘고 있다. 현재 전국 80여 재가자 선원에는 3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재가불자들이 3개월 동안 용맹정진 하고 있다. 특히 여름과 겨울 진행되는 안거 기간을 맞아 산사들은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활짝 열었다.

참선은 지도를 받지 않고선 성과를 얻기 어려운 공부다. 그렇기 때문에 재가자 선원으로 이름이 많이 알려진 곳은 선승으로 이름 높은 지도법사들이 있는 곳이 꼽힌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있는 부산 해운정사, 송담 스님이 주석하는 인천 용화선원, 혜국 스님이 주석하는 충주 석종사 등이다. 석종사의 경우 하안거에 재가자 100여 명이 신청했다. 절반 가량은 주말을 기해 선방을 찾는다. 3개월간 사찰에 머물며 숙식하고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사찰에 따라 50만~70만원 선이다.

최근에는 직장인을 비롯한 일반인들을 위한 수행공간이 급증했다. 각 사찰과 선원은 재가불자들을 위한 수행공간을 마련하며 직장생활, 가정생활의 특수성을 배려한 맞춤형 수행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안거 기간은 3개월 이지만 방부를 들인 뒤 산문 출입이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다. 비용도 10~20만원 선으로 숙식을 하며 수행하는 것보다 크게 낮다.

이런 재가자 선원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개방형 선원과 신도 및 회원을 대상으로 한 신도중심형 선원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서울에서도 도심에 위치한 강남 봉은사의 경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개방형 선원의 대표격이다. 봉은사는 재가자를 위한 봉은선원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매월 1일 입방 원서를 받고 면접을 통해 방부를 들이도록 하고 있는데 기초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들도 면접을 통과하면 선수행을 체험할 수 있다. 선방에서 수행은 오전 4시 시작해 오후 9시까지 상시 개방돼 자율적으로 어느 때건 할 수 있다. 7월 재가자 안거기간에는 120 여 명 가량이 방부를 들였다.

남궁강 봉은사 교육팀 팀장은 "명상과 힐링을 위해 찾는 비불자들의 수도 상당수 된다. 와서 선수행을 접하고 불교에 관심을 가져 기초교육을 받고자 하는 일반인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와 반대로 서울 안국선원은 안거 수행에 집중을 요하는 대표적인 선원이다. 안국선원은 안거 수행에 앞서 선원장 수불 스님이 직접 지도하는 7박 8일간의 간화선 프로그램을 거쳐야만 한다. 안국선원의 재가자 안거 기간은 3개월 보다 짧은 2개월이다.

안국선원 홍법부회장 응암 거사는 "기존 3개월 안거가 방학과 휴가 등에 비해 길어 신도들의 집중력 있는 수행을 독려하기 위해 기간을 줄였다"며 "이런 수행을 하고자 하는 재가자들의 수가 매년 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안국선원 재가자 안거에 방부를 들인 재가불자들은 서울만 해도 지난해에 비해 100명 가량이 증가한 1000여 명 수준이다.

그동안 한국불교에서 참선 수행은 출가자의 것이란 인식이 상당했다. 재가불자들의 안거수행 동참은 세상과 호흡하는 새로운 불교 운동의 새 불빛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글=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참선 수행 사찰

사찰및기관	연락처(접수)	사찰및기관	연락처(접수)
서울 봉은사 봉은선원	(02)512-9171	경상 대구 보현선원	(053)254-6966
서울 정안사 묘심선원	(02)523-8005	경상 대구 영남불교대학	(053)474-8228
서울 화계사 국제선원	(02)902-2663	경상 대구 원효불교대학	(053)563-9155
서울 길상사 시민선원	(02)3672-5945	경상 영주 부석사	(054)633-3464
서울 법련사 시민선원	(02)733-5322	경상 김천 직지사	(054)436-6013
서울 선학원 시민선원	(02)732-3327	경상 부산 금화사	(051)582-3042
서울 안국선원	(02)732-0772	경상 부산 범어사	(051)508-3122
서울 임제선원	(02)883-6397	경상 부산 홍법사	(051)508-0345
서울 금강선원	(02)445-8484	경상 부산 홍제사	(051)802-0130
서울 공생선원	(02)900-2448	경상 부산 해운정사	(051)746-2256
서울 우곡선원	(02)529-5027	경상 부산 혜원정사	(051)866-7771
서울 임제선원	(02)888-6397	경상 부산 우곡선원	(051)740-6288
서울 전등선원	(02)762-0643	경상 부산 안국선원	(051)892-9877
인천·경기 일산 무상선원	(031)903-9627	경상 부산 영주암	(051)754-2210
인천·경기 안성 활인선원	(031)671-7707	경상 부산 미타선원	(051)253-8587
인천·경기 수원 공소사 시민선방	(031)246-1001	경상 부산 겁외선원	(051)464-0068
인천·경기 수원포교당 시민선방	(031)255-2692	경상 부산 여여선원	(051)853-5486
인천·경기 인천 용화선원	(032)872-6061	경상 부산 안국선원	(051)583-0993
충청 공주 갑사 대자암	(041)525-0330	경상 울산 학성선원	(052)272-5352
충청 대전 현문선원	(042)257-0996	경상 마산 정인사	(055)256-5450
충청 대전 보현문화회관	(042)624-6555	경상 해인사 백련암	(055)932-7300
충청 대전 국은사	(042)522-0300	경상 해인사 원당암	(055)932-7308
충청 청주 용화사	(043)274-2159	경상 통도사 취운선원	(055)383-6479
전라 광양 보광사	(061)763-1192	경상 함양 황대마을선원	(055)963-9551
전라 광주 금륜회관	(062)224-0175	경상 창원 안국선원	(055)281-0772
전라 완주 홍련암	(063)263-6072	경상 양산 극락암	(055)382-7083
		경상 밀양 대흥선원	(055)352-1150
		제주 남국선원	(064)733-2278
		제주 원명선원	(064)755-3322



서울 전등선원 참선대중이 좌선 사이에 포행을 하고 있다.



"쉽게 얻으려면 구하기 어려워"

서울 봉은사 선원장 석장 스님

"불교와 수행에 대해 예전에 비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이 부족한 편입니다. 깨달음을 위해서라면 불길이라도 걷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봉은사 선원장 석장 스님은 용맹정진에 대한 재가자들의 뜨거운 발심이 실제 생활에서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결실로 회향되야 함을 역설했다.

스님은 "봉은사에서 지도해 보니 열심히 수행하는 재가자들의 모습에서 스스로도 느낀 바가 많았다"며 "실질적으로 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그렇기 때문에 수행에 있어 이를 바르게 이끌어 주는 스승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재가자들은 스님들이 10년, 20년 해도 안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란 두려운 마음을 먼저 낸다. 이런 두려움 없이 바로 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님은 "현재 불교계의 수행환경은 잘 갖춰져 있지만 도심에서 참선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라며 "다양한 연령대와 근기에 맞게 쉬우면서 때론 어렵게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장 스님은 끝으로 "재가자 수행은 안거 외에도 생활 속에서 수행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 속 5분 수행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일상에서도 수행 가능합니다"

서울 전등선원장 동명 스님

서울 성북동 전등사 전등선원장 동명 스님은 40년 째 재가불자들을 제접하고 있다. 현대 재가 안거 역사의 산 증인이라는 이야기다.

스님은 전등선원의 특징으로 가정을 지키면서 일정 시간에 수행 정진을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꼽았다. 방부를 들여 숙식하며 용맹정진하는 것보다 재가자는 생활을 하며 수행에도 매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쁜 재가자들은 시대를 역행하면서까지 수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환경이 다릅니다. 시민 선원은 이런 다양함을 고려하면서도 부처님의 바른 법과 수행을 재가자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런만큼 스님은 재가자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수행이 가능하다고 충고한다. 삶이 곧 선이고 수행이라는 것이다.

"청소도, 빨래도 일상생활의 만 가지 행동이 모두 수행입니다. 법당에서 지극히 올리는 기도도 수행입니다. 너무 참선에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와 함께 동명 스님은 재가 안거와 시민선원을 이끄는 스님들도 재가자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수행할 수 있게끔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편화 되고 있는 시민선원의 안거를 이끌 스님들의 수행력도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안거와 시민 선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재가자가 자유롭게 수행하고, 이 수행이 일상생활 속으로 이어주는 데 있습니다. 이끄는 스님도, 재가자도 이를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신중일 기자



수강생모집

알기 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 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동방칠성교주,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73-13 ☎ 전화 010-7415-0803 / 051)343-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다음카페 : cafe.daum.net/9dan9gung 네이버카페 : cafe.naver.com/9dan9gung


펜싱 구본길


체조 양학선


배드민턴 이용대


양궁 임동현

선수들과 함께 뛰는 올림픽 '모정불심'

지구촌이 스포츠 축제에 빠졌다. 2012 런던 올림픽이 7월 28일 '세대에게 영감을(Inspire a Generation)' 이란 주제로 화려한 막이 올랐다. 선수들은 4년간 흘린 땀의 결실을 맺기 위해 메달 사냥에 나섰다.

한국은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10개로 종합순위 10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금메달 획득 유력 선수 중 70~80%가 불자여서 불교계 관심이 더욱 뜨겁다. 하지만 누구보다 이들을 더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들이 있다. 바로 선수들의 부모다.

부모들은 머나먼 타향에서 고생하고 있을 자식들을 생각하며 매일 부처님께 기도 드린다. 세상이 모두 선수들에게 '금메달'을 바라지만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러하듯, 이들은 자식들의 건강과 행복을 먼저 발원한다.

금메달 효자종목인 양궁대표팀 임동현 선수의 어머니 함선녀(52) 씨는 매일 아침마다 임 선수를 위해 108배를 한다. 현재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함 씨는 "재적 사찰이 수원 태고사지만 거리가 멀어 자주 갈 수가 없다. 대신 스님과 전화 통화를 자주 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고 말했다.

함 씨는 "스님이 조언을 해주셔도 혹시나 아들이 부담을 가져 경기에 지장을 줄까봐 직접 전하지 못한다"고 조심스럽게 귀띔한다. 이어 "대신 내가 스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면 아들에게 전달될 거라 믿는다"고 확신에 찬 어조로 설명한다.

양궁대표팀은 7월 29일 남자단체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메달 사냥에 나섰다. 함 씨는 사소한 행동·말투 하나가 아들의 경기에 영향을 미칠까 조심하는 눈치다.

양궁에 이어 7월 30일 경기를 치룬 펜싱 대표 구본길 어머니 선태복(47) 씨는 이틀에 한번 새벽 4시가 되면 어김없이 대구 팔공산을 오른다. 혹여 아들이 부상당하지 않을까, 또는 부담감에 경기를 망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부처님께 아들의 건강을 기원한다.

"부담될까 스님말씀도 못 전해"

행동 하나에도 신경쓰는 어머니들

부상없이 최선 다하길 축원

선 씨는 "일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유일하게 새벽밖에 없다"며 "올림픽에 나간 아들이 무사히 경기를 마치길 바라는 마음에서 팔공산 갓바위서 기도 드린다"고 말했다.

시어머니 때문에 불교를 접하게 됐다는 선 씨는 아들이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더욱 열심히 절에 다녔다고 한다. 평소 경주 오봉산 주사암에 들러 예불을 올리지만 올림픽에 출전한 구 선수를 위해 집과 가까운 팔공산 갓바위서 기도 한다고 밝혔다.

선 씨는 "장사를 하는 탓에 운동하는 아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지 못해서 항상 미안했다. 출국 전에는 혹여 부담이 될까 통화도 제대로 못하고 문자만 남겼다"며 "바라는 건 아들이 무사하게 돌아오는 것 뿐이다"라고 했다.

베이징올림픽서 '윙크 세러모니'로 큰 인기를 누린 배드민턴의 국민 동생 이용대는 정재성 선수와 호흡을 맞춰 8월 5일 배드민턴 남자 복식경기서 두 번째 금메달에 도전한다. 이용대와 정재성은 모두 독실한 불자다. 특히 이용대는 평소 불자인 어머니 영향으로 남다른 불심을 보여왔다. 이용대 선수의 어머니 이애자(51)씨는 런던으로 떠나는 두 선수에게 염주를 선물하며 경기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이 씨는 "이번에도 금메달을 따면 좋겠지만 그건 둘째 문제다"라며 "아들이 무사히 경기를 마치면 그 뿐"이라고 담담하게 답했다. 이애자 씨는 "틈나는 대로 전남 화순 양복사에 들러 아들을 위한 예불을 드린다"고 밝혔다.

새벽 4시 팔공산 갓바위 기도

염주 손에 쥐어 주고

집에서 108배 하며 경기 응원

이 씨는 "용대와 재성이가 4년 동안 힘들게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며 "부상당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 체조 역사상 첫 금메달리스트로 기대를 모으는 양학선 선수는 8월 6일 남자 체조 도마 결선을 앞두고 있다. 양 선수의 어머니 기숙향(43)씨 역시 다른 국가대표 어머니처럼 "져도 괜찮다. 아들이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 씨는 양 선수가 슬럼프를 겪을 당시 그를 사찰로 데리고 가 다시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했다.

기 씨는 "평소 금메달을 따면 부모님에게 '집을 사드리고 싶다. 부모님을 편히 모시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양 선수가 대견하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기 씨는 바쁜 농사일로 인해 절에는 자주 못가지만 항상 아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했다.

기 씨는 "어려운 집안 형편 속에서도 잘 자라준 아들이 고맙고 대견하다"며 "런던 올림픽에 아들 딸을 보낸 모든 어머니들이 힘냈으면 좋겠고 특히 비인기종목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해 더욱 더 열띤 응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불광교육원 가을강좌 눈길

9월 개설…"벌써 기다려집니다"

기본교육부터 고승들의 역사·사상

경전 강좌까지 대채로운 강좌 마련

불교의 기본부터 한국 고승들의 수행담, 〈육조단경〉까지 불교의 정수를 알 수 있는 법석이 마련된다. 서울 불광사는 가을을 맞아 9월부터 다양한 불교교육 아카데미를 불광사 교육원에서 실시한다.

9월 15일부터는 불교에 입문하는 초보 불자를 위해 불교란 무엇이며, 다른 종교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교육이 진행된다.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3시에 3개월에 걸쳐 진행한다. 교육과정에는 불자로서의 품성과 예절, 부처님의 생애와 교리, 수행방법 등을 비롯해 해인사 수련대회가 포함된다. 참가자들은 교육과정을 마치면 오계를 수지하고 법명을 받아 진정한 불자로서 거듭나는 기회를 얻는다.

9월 12일부터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총12회에 걸쳐 '한국의 고승과 불교사상' 강좌가 진행된다. 이번 강좌는 지난 봄 '붓다와 서양 철학자의 대화'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강좌다.

동아시아 불교의 초석을 다진 승랑 스님, 유식학의 새장을 연 신라학승 원측 스님, 해동불교의 신 새벽을 연 화쟁보살 원효 스님, 일승법계도와 해동의 화엄사상을 일으킨 의상 스님, 남종선의 전래와 구산선문을 성립한 도의 스님, 한국 천태종의 개조 의천 스님, 위기의 고려불교를 살린 정혜결사 지눌 스님,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 스님, 간화선 선풍을 드날린 태고·나옹·백운 스님, 선교를 회통한 청허 스님, 조선 최대의 선문논쟁을 벌인 백파와 초의 스님, 근대사의 고승 경허 스님까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스님들의 생애와 사상을 통해 한국불교의 역사를 배울 수 있다.

강연에는 김성철 동국대 교수, 남무희 국민대 교수, 김원명 외국어대 교수, 동국대 교수 해주 스님, 김상현 동국대 교수, 이병욱 고려대 박사, 이덕진 창원문성대 교수, 조명제 신라대 교수, 황인규 동국대 교수, 고영섭 동국대 교수, 김방룡 충남대 교수, 변희욱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연구원 등이 강연자로 나선다.

또 9월 12일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는 야부송을 중심으로 〈금강경오가해〉강좌가 총10회에 걸쳐 진행되며, 9월 17일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에는 총8회에 걸쳐 김형효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의 '마음혁명 부처님의 세상보기' 강좌가 진행된다.

이밖에 9월 4일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오후 7시 30분에는 고려대 박사 범준 스님과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강사로 나서 〈육조단경〉강의를 진행한다. (02)417-2551

이은정 기자

캠핑하며 가족 사이 '情' 나눠요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가족 캠핑 템플스테이 개최

캠핑하며 가족 간 정을 나누는 이색 템플스테이가 열린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법진)은 8월 10~12일 2박 3일동안 전북 완주 송광사에서 '서로의 별이 되자'를 주제로 가족 캠핑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가족 중심의 캠핑 문화가 각광받고 있는 트렌드에 맞춰 템플스테이에 캠핑을 접목한 이번 행사는 산사체험과 캠핑을 일석이조로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행사는 108배, 명상, 예불, 운력, 공양 등 사찰체험인 템플스테이의 기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한지 만들기, 연등 만들기, 연잎차 만들기, 장작패기, 떡매치기, 천연비누 만들기, 장승 만들기, 가족도예 체험, 노래교실, 법고체험 등 다양한 상설 체험공간이 운영된다.

또한 가족 캠핑의 의미에 맞춰 가족 심리상담, 사찰음식 만들기 등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저녁에는 산사음악회, 캠프파이어, 가족 장기자랑 등 풍성한 문화행사와 함께 축제 한마당이 진행될 예정이다.

어린이들을 위한 놀거리도 다양하다. 한낮에는 야외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고, 불교 영어 강연도 펼쳐진다. 마지막 날에는 전주한옥마을 관람과 비빔밥 1,000인분 비비기 체험 등 지역명소 탐방 프로그램을 구성해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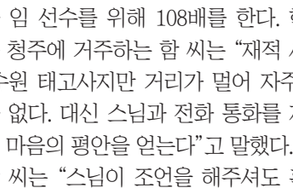
참가신청은 송광사 홈페이지(www.songkwangsa.org)를 통해 오는 31일까지 접수 받는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200가족(초등학생 자녀 가족)이며, 가족 대신 친구나 동호회 등의 4인 구성도 가능하다. 참가비는 4인 가족 기준 10만원이다. (063)243-809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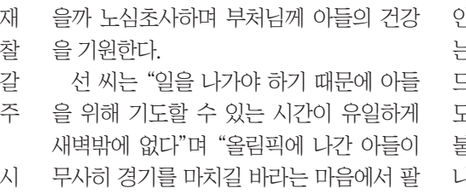
신중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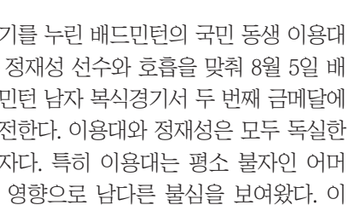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좋은 소리는
스피커와 마이크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파워드믹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 高音質 무선마이크

스님께서 사용중인 '무선-핀 마이크'를 高性能 '헤드셋 마이크'로 개조 해 드립니다. (삐- 소리없이 웅장하고 맑은 소리를 책임지겠습니다.)!!


• 무선 마이크
◆고성능 헤드셋 (귀걸이)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일반 마이크 V-620


•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군포교의 전당!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법당 원불 모연


원불 실제 부조

사부대중의 정성과 원력으로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법당 낙성대법회를 봉행했지만, 10억원이 부족하여 완전한 회향을 못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법회 3500명 참석

불사금 후원 접수 중입니다

원불 / 불사금 후원 계좌번호
농 협 301-0063-3042-71
제일은행 325-20-221949
국민은행 477401-01-179603 (예금주 : 군종특별교구)
문의안내 02)797-7266,749-8646

불사금 10억 원이 부족합니다. 한번 더 힘을 모아 주십시오!
▶ 호국연무사 신축법당 원불모연 불사
• 후불탱화를 대신해 원불을 모십니다.
• 원불봉안 동참금 1인 1불 100만원(분할납부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83호 국방부 원광사 내
불사문의 / 안내 (02)797-7266,749-8646 홈페이지 www.gunindra.com

인형극 · 뮤지컬로 성범죄 예방한다



불교계 복지시설에서는 인형극, 뮤지컬, 긴급전화 등을 통해 성범죄와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진은 과천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나를 알고 나를 지키는 극단(이하 나나극단)'의 성폭력예방인형극.

아동성폭력예방 지침요령

1. 부모님 허락없이 다른 사람 집에 가지 않기
2. 부모님 허락없이 다른 사람 차에 타지 않기
3. 누군가 차를 세우고 길을 물으면 두걸음 떨어져 대답하기
4. 소지품 이름과 연락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적기
5. 등하굣길 여럿이 함께 가기
6. 가깝다고 후미진 지름길 다니지 않기. 큰길로 다니기
7. 낯선 사람이 따라오거나 붙잡으면 "안돼요! 싫어요! 불이야!" 소리치기
8. 컴퓨터 온라인에서 알게된 사람은 절대 만나지 않기
9.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유없이 주는 돈과 선물 받지 않기
10. 잊지말자. 엄마 아빠는 언제나 내편

불교계 복지시설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

과천복지관, 성폭력예방 인형극
개금아동센터, 상황극으로 대처
아동들에게 반복 · 주입교육 필요
사고 발생시엔 반드시 신고전화

경남 통영에서 10세 여자 초등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45)씨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다양한 위험 상황으로부터 자녀와 여성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예방법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불교계 복지시설에서는 인형극, 뮤지컬, 긴급전화 등을 통해 성범죄와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추교선 · 02)507-6319)은 성폭력예방인형극단 '나를 알고 나를 지키는 극단(이하 나나극단)'을 운영해 아동의 눈높이에 따른 맞춤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영 · 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형극은 가까운 지인 및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부터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사례를 인형극으로 꾸민 것이다.

2006년 창단한 나나극단은 30대 후반에서 70대 중반의 가정폭력상담원교육의 수료자를 비롯한 전업주부 10명으로 구성된 작은 극단이다. 이들은 한해 20회 이상의 공연을 통해 2000여 아동들에게 성폭력예방을 주제로 인형극을 연다.

나나극단은 부모들을 위한 성교육을 동시에 진행해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자녀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은미 팀장은 "친구 간 사소한 장난으로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이나 선물로 유인해 추행을 저지르는 범죄 등 상황별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30분 동안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과 보육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금강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원장 민지영 · 041-856-6110)은 2006년부터 주기적으로 플래쉬 동화를 상영하고 성범죄예방을 주제로 한 인형극과 뮤지컬을 공연하고 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아이들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성범죄 예방 교육의 습득이 빠르다"며 "지속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면 반드시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금꿈나무지역아동센터(관장 임화원 · 051-893-5034)은 보호자의 동의하에 아동들을 대상으로 상황극을 진행한다. 성범죄를 당할 경우의 상황을 설정해 아이들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다.

임화일 사회복지사는 "아동 범죄는 갑자기 생기는 일이라서 아이들의 대처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며 "성범죄 예방교육은 장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교육해야한다. 월 1회, 주 1회정도씩 반복적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화한통화로 위기상황을 알려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서비스도 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센터장 진원 · 054-1366)는 위기에 처한 여성들을 위해 24시간 긴급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긴급전화상담, 긴급보호를 실시하며 △전문상담기관 △보호시설 △의료 · 교육기관 △법률기관 △경찰 · 행정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 어르신들이 초등학교 등 · 하교길을 순찰해 아동들을 보호하는 곳도 있다.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 · 02-742-9500)은 스쿨존교통지원사업 '길동무'를 조직해 사고와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한다. **은평노인복지관**(관장 김승자 · 02-385-1351)은 '은평 1004-실버경찰'을 조직해 지역경찰서와 연계해 200여 어르신을 초등학교 30여 곳에 배치해 순찰을 돌린다.

이처럼 성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성범죄 예방에 대한 반복교육이다.

여성긴급전화 1366 긴급센터장 진원 스님은 "성범죄 피해 아동의 부모 가운데 10%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은폐한다. 학부모가 직접 나서 아이의 피해를 주위에 알리고 가해자를 신고해야 제2 · 3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다"며 "또한 아이들이 혼자 다니게 해서는 안되고 낯선 사람이 따라오면 싫다고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게 성범죄 대처 요령을 반복적으로 주입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복지단신

장애 · 비장애인 문화체험 8월 8~10일 영월군 일대

철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강영규)은 8월 8~10일 강원도 영월군 일대에서 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이 함께하는 문화체험캠프 '알알이 품은 꿈'을 실시한다.

예상 참가인원은 40여 명으로 2박 3일 동안 강원도 영월군 일대에서 한반도 지형, 탄광문화촌, 별마로 천문대 관람 등의 테마체험과 미니올림픽, 래프팅 체험을 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행사 전까지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사전 모임에 필수로 참석해야 된다. (02)2617-0410

소외지역청소년에 핸드볼 세트 전달

대한핸드볼협회(회장 최태원)는 농 · 어촌에 위치해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아동들에게 핸드볼 장비 일체를 후원했다.

협회는 7월 26일 올림픽공원 SK핸드볼 경기장에서 진각복지재단 산하 지역아동센터인 △본원지역아동센터 △칠암지역아동센터 △선원지역아동센터 등 7개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 · 청소년 210명에게 700만원 상당의 핸드볼 장비 세트를 전달했다.

동국대, 지역주민위한 문화 체험 8월 말까지

동국대 일산병원(병원장 채석래)은 8월말까지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캠페인 'Happy Hos-pital Season5'를 진행한다.

병원 1층에서 진행되는 행사는 △민화부채로 나와 소통하기(7월16일~8월10일) △손맛사지로 직원과 소통하기(8월13~31일) △소통나무로 모두 함께 소통하기(7월16~8월31일) △플러스 알파말로 소통하기(7월16~8월31일) △한방차 서비스(7월16~8월31일) 등 6가지 프로그램이다.

미혼남녀 산사 싱글파티 8월 11~12일 고양 흥국사

조계종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은 흥국사(주지 대오)와 함께 젊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산사의 싱글파티 만남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8월 11~12일 경기도 고양시 흥국사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미혼남녀 20~30대 20명을 대상으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특강) △다도체험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참선) 등을 진행한다.

8월 9일까지 홈페이지(www.mahayana.or.kr)에서 접수하면 된다. (02)723-5101

우리복지관 주력사업 서울 성북장애인복지관 '네모' 프로그램

사진촬영으로 사회적응력 'UP'



한 달에 한 번 청소년들은 놀토가 되면 가벼운 발걸음으로 남산타워, 테디베어 뮤지엄, 올림픽공원, 북촌 한옥마을 등을 둘러보고 사진촬영을 한다.

"어? 이 물고기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네? 만화에 나온 니모랑 똑같이 생겼다! 찰칵!"

지난 3월 코엑스 아쿠아리움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다. 지적 · 자폐성 장애청소년들이 직접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출사를 나간 것.

자원봉사자와 함께한 청소년들은 어느 한 개도 놓치지 않고 눈에 띄는 것이면 모두 카메라에 담으려고 연신 셔터를 눌렀다.

한바탕 사진을 찍고 난 후 모두들 삼삼오오 모여 카메라에 집중했다. 서로 자신이 찍은 사진을 자랑하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성북장애인복지관(관장 현관)은 장애아동 디지털 사진촬영을 통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네모'를 운영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청소년들은 놀토가 되면 가벼운 발걸음으로 남산타워, 테디베어뮤지엄, 올림픽공원, 북촌 한옥마을 등을 둘러보고 사진촬영을 한다.

1:1로 대학생 봉사자 선생님과 짝이 돼 서로를 찍어주고 카메라 사용법에 대해서도 공부한다.

출사를 다녀오면 학생들은 매회 촬영한 작품의 포트폴리오를 제작해 연말에 사진 전시회를 연다.

성북장애인복지관 학생들은 지난해 적장애인복지협회에서 시행하는 사진공모전 '너와 나 행복한 그 순간'에서 동상을 받기도 했다.

사진교육이라고 하면 주로 카메라를 다루는 방법이나 사진을 잘 찍는 기술을 익히는 것에 초점이 맞혀져 있다. 그러나 장애아동 ·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기술 중심이 아닌 시각적인 인식, 즉 시각문화로 접근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사진촬영을 통해 우리의 문화를 즐기고, 이해하고, 보다 창조적이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은 지역사회 시설 및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사를 가기 때문에 사회적 질서와 규칙을 지킬 수 있고 다양한 외부상

지적 · 자폐성 청소년 대상
놀토활용해 문화체험 제공
사진촬영 표현력 길러줘

황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박소연 사회복지사는 "청소년들은 카메라 촬영으로 자기표현 방법을 익히고 시각문화적인 접근을 통해 문화생활을 즐기고 이해하게 된다"며 "또한 아이들은 자신이 직접찍은 사진을 가지고 소감을 나누고 자기 표현력을 키우고 자신감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성북장애인복지관장 현관 스님은 "네모 프로그램은 다양한 지역사회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대인관계기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며 "비싸고 다루기 어려운 기계라는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장애아동들에게 자기표현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02)915-9200 **이나은 기자**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 법 자 세 교 정 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骨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 ●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특강: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 특별강사 : KBS / MBC출연 / 대한(병)의원 진흥회장.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과 질환으로 고생하는자
▶ 특 전 : 자세교정사 자격 부여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9-517-1730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괴로움 그 자리에 머물 줄 아는 것이 수행”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마타선원 가족법회

미국 듀크대 한국불교학 교수 일미 스님

불교가 현대사회 가정문제의 해결책으로 대두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7월 22일 부산 미타선원에서는 미국 듀크대 한국불교학 교수 일미 스님이 강사로 나서 ‘부처님의 가족적인 삶과 고난의 삶’ 이라는 주제로 가족법회를 진행했다.

행사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이 불교가 현대사회 저출산, 가족해체 위기극복을 위한 보편적 가치임을 인식하고, ‘불교적 생명 · 가족 · 사회 사찰 가족법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일미 스님은 이번 법회에서 ‘불교적 가족’ 이라는 담론의 원천을 찾기 위해 부처님의 고난의 삶과, 가족적인 삶, 부처님이 말하는 ‘불교적 가족’ 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했다.

정리=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미국 듀크대 한국불교학 교수 일미 스님이 7월 22일 부산 미타선원에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주관하는 사찰가족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가족적인 삶과 고난의 삶에 대해 설명했다. 자료제공=부산 미타선원

부처님 생애는 고난 · 역경 연속
중생들의 삶과 다를 바 없어
가족적 삶 추구 해 공동체 형성
가족을 수행의 동반자로 여겨

부처님은 가족적인 삶 살아

현대사회에는 이혼, 가정폭력, 저출산 등 가정의 문제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부처님의 가족적인 삶과 고난의 삶’ 을 주제로 가정문제를 비롯한 삶의 괴로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하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와 가족’ 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대합니다. 하지만 ‘불교와 가족’ 에 대해서는 이질적인 느낌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단연 십자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중생들의 죄를 자신이 모두 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부처님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좌선하고 계시는 편안하고 온화한 느낌입니다. 그렇다 보니 부처님은 아무런 고통 · 번뇌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분으로 오해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기원전 6세기, 부처님은 인도의 한 작은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으나 그런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셨습니다. 생로병사(生老病死)를 알고 난 후, 29세에 인생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코자 아버지, 아내, 아들 그리고 백성을 떠나 6년 간 고행에 올랐습니다. 35세에 깨치신 부처님은 열반에 드시기 전까지 대중들에게 설법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이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편견에 불과합니다. 부처님은 열반에 드시기 전까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예수님을 너무 전지전능한 분으로 신격화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도 우리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굉장히 인간적인 삶이었습니다.

최근 서양학자들에 의해서 부처님에 대한 이런 사실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우선 부처님은 가족적인 삶을 추구하셨던 분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으신 후, 바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상황을 상상해 보면, 가족들은 자신들을 버리고 출가한 부처님이 많이 야속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당연히 가족들에게 환대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깨달은 모습을 본 가족들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심지어 부처님의 아버지인 정반왕도 그의 제자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부처님은 아들 나후라, 사촌 아난다와 아누룻다, 이복동생 난다, 처남 데바닷타, 이모 마하파자바티, 아내 야소다라 등 일가친족들이 모두 부처님의 수행공동체 안에 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수행자들을 비롯해, 자신의 가족들을 모두 거느리며 함께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당시 철없는 어린 아들을 비롯해 사촌들 간의 시샘과 다툼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모든 어려움을 꼼꼼히 점검하며 극복해 가셨습니다. 가족은 수행에 있어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닌 함께 가야 할 동반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상당히 가족적인 분이셨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은 부처님

부처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아들 나후라를 비롯해 아내 야소다라,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한 이모 마하파자바티 등 자신보다 먼저 가족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족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인간은 슬픔, 절망, 괴로움 등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습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또 처남인 데바닷타는 항상 부처님을 견제하며 시기와 질투, 심지어 배반과 살해위협까지 했습니다. 부처님의 삶은 그다지 평온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북인도는 코살라왕국과 마가다왕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코살라국 파세나디왕은 부처님을 존경해, 부처님이 계시는 기원정사까지 찾아와 가르침을 얻곤 했습니다. 당시 왕은 아들이 없어 고민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첫째부인이 천민 출신인데다, 딸을 낳아 근심이 더욱 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왕은 부처님에게 부탁해 같은 왕족 출신인 샤키야족의 비사바카티야를 아내로 맞이하고 비두다바라는 아들을 두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 비두다바가 외가인 가비라위성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 아들은 자신의 어머니가 진짜 왕족 출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 샤키야족은 그들의 순수 혈통을 지키고자 진짜 왕족 대신 왕과 하녀 사이에서 태어난 비사바카티야를 보낸 것입니다. 어머니 출신 때문에 크게 모욕 당한 비두다바는 이후 부왕을 멀리하고 부처님 일가족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웠습니다.

결국 파세나디 왕이 부처님을 만나러 성을 비운 사이 왕자는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 부처님의 일가족도 몰살당하게 됐습니다. 파세나디 왕 역시 조카인 마가다왕국의 왕 아자타샤트루의 도움을 얻기 위해 라자그리하로 갔는데, 성문이 닫혀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서 탈진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데바닷타의 배신, 가족 죽음에도
고통 피하지 않고 대중 설법 지속
괴로움 속에서 해결책 찾으려 노력
나와 괴로움 관계 재설정 해

당시 부처님은 이 반란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 했고, 그때 나이가 70세였습니다. 부처님이야 말로 당시 가장 곤란한 입장이었을 겁니다. 또 가족의 죽음을 지켜보는 일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두 왕국의 사이는 이 계기로 더욱 악화됐고, 결국 이 모든 것이 부처님 때문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승단까지 위험에 빠지게 됐습니다. 계속되는 사람들의 중상모략 때문에 부처님은 지칠 법도 했지만, 끝까지 대중들에게 설법하시며 승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부처님은 결국 누군가 아난다를 죽이기 위해 독을 넣어 만든 음식을 대신 드시곤 열반에 드셨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 열반에 드시기 전 아난다에게 “형체로 이뤄진 것은 모두 사라지기 마련이다. 고통 속에서도 너를 등불삼아 내가 가르친 방법대로 정진하라”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어떤 고통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많은 대중들에게 설법하시고 중도(中道)의 길을 걷고자 하셨습니다.

생활 속에서 일체개고 실천해야

우리 삶의 고통은 80%이상이 가족문제에서 비롯됩니다. 그만큼 가족은 인생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남편, 자녀, 부모로부터 받는 스트레스와 고통 등에서 항상 벗어나려고 애씁니다. 때문에 종교를 통해 더욱 이상적인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부처님, 예수님의 삶은 바로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삶 모두 이상적인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달랐던 것은 어떤 고난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고통이 일어나면 고통을 무마하려고 술, 도박 등을 합니다. 이런 도피를 통해 괴로움을 줄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옳지 못한 방법입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피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과 나와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고(苦)는 부처님과 중생 모두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남편 · 아내, 자식문제로 마음속에 괴로움이 생긴다면 그 순간을 그대로 느끼고 지켜보십시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축적되면 괴로움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행은 괴로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줄 아는 것이 수행입니다. 이것이 곧 깨달음입니다. 부처님 역시 일체개고(一切皆苦)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셨습니다. 고(苦)와 함께 했지만 고(苦)에 의해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삶이 ‘불교적 가족’ 이라는 담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원천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新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야광 호랑이 양초 연봉 원기둥 7.0ƒ× 34㎝


야광 용 양초 연봉 원기둥 7.0ƒ× 34㎝


육각초 7.0ƒ× 34


연화 大 9.5ƒ× 11㎝, 연화 中 9ƒ× 10㎝, 연화 小 7ƒ× 6.5㎝


밀납연화 小 7ƒ× 6.5㎝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와까바



후라지아


영원향 장,단(소바라)


향수림


백목향,목향


우리향,백단향,설중매,인삼향,대발향,쑥향


• 도자기 인등


• 인등용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 제조-삼환양초

New 꽃과 나비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원기둥나비


노랑 연두 백색 핑크 환타 주황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만해사상 세계적 관점서 재조명하자

만해학회 세미나서
아시아 개혁사상가와 비교분석

만해 한용운 스님의 불교적 평화실천을 기리고 개혁정신을 조명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자리가 열렸다.

만해학회(학회장 한계천)가 7월 27일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서울사무소에서 '아시아와 만해'를 주제로 연 만해축전 기념 세미나에서는 각국 평화개혁가들과 만해 스님의 사상에 대한 비교고찰과 함께 후대의 선양 활동을 본격 전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만해 축전세미나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불교운동가, 개혁 사상가와의 비교 고찰이 진행됐다.

만해, 세계 사상 속 조명 향후 과제

이날 총론 발제를 맡은 김광식 교수는 "만해 개혁론은 불교개혁과 참여운동, 실천운동, 불교 근대화 등이었다. 그리고 만해 스님의 이런 운동 및 지향에는 근대주의 · 서구철학과 사상 등이 수용됐다"고 말했다. 만해사상을 세계적 관점에서 재조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이 과정에서 만해 한용운은 근대 문명의 변화상을 직시하고 근대적인 승려로 변모한 것으로 보이며 불교근대화를 위해 불교 유신 및 개혁에 눈을 떴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개혁사상은 한 국가에 머무르지 않고 서로 영향을 주는 만큼 만해 사상이 동아시아 사상에 받은 영향과 다시 영향을 준 과정을 면밀히 고찰해야 한다고 과제를 제시했다.

중국 양계초, 태허와 만해의 계몽 의지

김성옥 중국사회과학원 교수는 '민족 또는 님을 통한 공동체의 구상' 발표를 통해 "양계초와 만해는 서구이론의 계몽사상을 사회에 펴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양계초는 일본유신 성공을 보고 서구이론을 적극 받아들여 강력한 민족국가를 건설 코자 했다"며 "양계초가 계몽적 지식인을 앞세운 정치공동체를 구상했다면 만해는 심정적 공동체를 먼저 만들고자 한데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중화민국 건국 당시 불교개혁을 추구한 사상가 태허(1889~1947) 스님과 만해 스님을 비교했다. 고 교수는 "태허는 다양한 교육기관 개설과 인재양성의 면에서 만해는 심우장을 통해 새로운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두나라 불교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고 평했다.

세노오 기로와 사회주의 실천서 차이

일본 세노오 기로(1889~1961)는 불교청년운동을 통해 군국주의와 파시즘 국가 일본을 아래로부터 변혁시키고자 했던 불교운동가다.

원영상 원광대 불교학과 교수는 '한용운과 세노오 기로의 불교혁신사상 비교연구'를 통해 "한용운과 세노오는 당시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를 포용하며 반자본주의 대안으로 불교를 내걸었다"며 "불법을 현실로 이끌기 위해 불교교단을 개혁하고자 한 점, 그 운동의 주체는 청년이어야 한다는 점, 불교사회주의 이상을 지닌 점 등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원 교수는 "한용운은 민족자주 힘을 키운 독립이 목표였기 때문에 불교사회주의에 대한 동조는 있어도 구체적인 논리 전개나 참여는 미흡하다. 반면 세노오는 불교사회주의를 구체화해 공산주의와 불교 양자 모두 민중의 삶의 고통해소가 국가사회의 흥망에 달려있다고 보고 천황제 및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한다"고 설명했다.

불교부흥과 불교개혁

스리랑카 다르마팔라(1864~1933)는 스리랑카에서 '제2의 아소카'로 불리는 불교운동가로 서구 식민시대에서 불교를 통한 독립과 사회계몽 운동을 펼친 이다.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다르마팔라와 만해' 발제를 통해 "다르마팔라는 '불교부흥', 만해는 '불교개혁'이란 점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며 "다르마팔라의 부흥운동은 복고적이며 붓다성지 및 불교문화 회복 등에 집중돼있다. 반면 만해의 불교운동은 불교대중화와 현대화에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분석하면서 만해 개혁정신을 이어야 함을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한미 양국불교 상생구현 모색

회당학회, 7월 20일 미 서부대서 국제학술대회 개최

한국과 미국의 불교와 학술교류를 위한 국제학술대회가 미국에서 개최됐다.

진각종 회당학회(학회장 지정 정사)와 미국 서부대학교(University of the West 총장 샘우)는 7월 20일 서부대에서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양국 불교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21C 미국과 한국의 불교'란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는 한국 측에서 진각종 총인 성초 정사를 비롯해 통리원장 혜정 정사, 교육원장 경정 정사, 종의회 의장 혜명 정사, 회당학원 이사장 효운 정사, 前 통리원장 회정 정사, 총금강회장 일석 각자 등 회당학회 관계자들과 샘우 서부대 총장 등 100여 명이 동참했다.

회당학회 명예학회장 효운 정사는 "종교적 적대감이나 경제적, 환경적 대립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밝은 미래는 없다"며 "미국불교가 한국 전통불교와 만나 교류하고 서로 장점을 결합한다면 이상적 불국토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샘우 서부대 총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한국과 미국 불교간의 교류가 더욱더 활발히 전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당학회장 지정 정사는 기조논문을 통해 "세계화 속에 동서양의 문화와 문명의 교류는 필연적인 것이며 특히 동양의 불교와 서양 기독교사상의 접목은 인류생활의 질적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의 가장 합리적 생활모델"이라고 밝혔다.

지정 정사는 또 "종교는 본연에 자율이 있다. 불교의 자율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함께 자율을 세워 세계의 평화와 평등문화가 일어나게 하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르스 롱 서부대 교수는 '불교, 그리스도교와 현대 세속세계와의 대면', 바하네트 와폴라(Ven. Bhante Walpola) 상가나야케 승원장 스님이 '21세기 미국사회와 불교의 역할', 모니카 센포드(Monica Sanford) 서부대 불교군법사 박사과정 연구원이 '미국사회에서의 불교 법사를 위한 자비와 자애사상'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가 축사하고 있다.

국제학술대회가 열린 미국 서부대학교는 1991년 대만 불광산사에서 설립해 2006년 2월 정식 대학으로 인가를 받아 현재 불교학을 비롯해 경영학, 심리학, 언어학 등 학부와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학술 · 문화재소식

석가탑 9월 중 전면 해체 된다

기단석 균열로 수리, 30억 예산 2014년까지 진행

지난 1966년 도굴미수사건으로 훼손된 이후 풍파에 지속적으로 훼손돼 온 불국사 석가탑이 9월 경 전면 해체 수리에 들어간다.

석가탑 수리는 부분 해체 수리한 이후 46년 만의 일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 7월 20일 "9월 중순 시작해 내년 초까지 석가탑을 전면 해체하고, 복원 설계를 한 후 다시 쌓아올려 2014년 말까지 복원을 끝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산은 약 30억 원.

국보 21호인 석가탑은 2010년 말 기단석에서 길이 1.32m, 폭 최대 5mm의 균열이 확인됐다.

2011년 5월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위원회에서 전면 해체 후 보수로 결정됐다.


훼손이 심각한 석가탑 기단부

해체 및 수리, 복원 등 전 과정은 불국사에서 진행되며 일반에 공개된다.

노덕현 기자

불광연구원, '전법학 연구' 제2호 출간

'북한산 중흥사' 특집 등 논문 12편 수록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이 최근 펴낸 '전법학 연구' 제2호에 △전도선언에 담긴 전법의 정신과 방법(김응철) △전법의 이념과 역사적 전개(백도수) △불전미술에 나타난 부처님의 전법행(유근자) 등 3편의 논문이 실렸다.

'북한산 중흥사'를 다룬 특집논문으론 △북한산의 사찰과 불교의 전개(황인규) △조선후기 국토방위전략과 북한산성(박재광) △조선후기 승군의 북한산성 축성과 중흥사의 산성 관리(조명제) △한국불교사에서 중흥사의 위상과 역할(김상영) △승영사찰 중흥사의 가람배치와 복원방향(이경미) 등 논문 5편이 게재됐다.

광덕 스님의 사상과 관련된 연구로는 △금하 광덕의 바라밀 사상과 그 실천(김호귀) △무한 생명 사상(목경찬) △광덕 스님의 선사상(황금연) △반야바라밀 염송과 법신염불(김영진) 4편이 실렸다.

노덕현 기자

금강대, 개교 10주년 맞아 우리 불교문화 공모전

금강대(총장 정병조)가 개교 10주년을 맞아 우리 불교문화의 인식 제고를 통한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이미지 개선 및 확산을 위해 불교문화 공모전을 개최한다.

문화관광체육부가 후원하고 설립 재단인 대한불교 천태종이 주최하고 금강대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한국불교전통문화컨텐츠 공모전과 △불교문화유적답사기 공모전으로 나누어 개최된다.

한국불교전통문화컨텐츠 공모전은 불교문화와 IT미디어의 결합 및 활용을 통한 한국불교전통문화콘텐츠(플래시)를 제공함으로써 한국불교 전통문화의 가치와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개최된다.

참가자격은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 중?고교 학생 및 교사로 지정과제(①삼회양 놀이 ②연등축제 ③불교전래) 3팀과 일반과제(불교문화 관련 자유주제) 10팀 등 총 13팀을 1차 선발하여 제작비를 지원(지정과제 팀별 300만 원, 자유주제 팀별 100만 원)하고, 1등 대상팀에 상금 500만원을 비롯해 6팀에 총 상금 1,400만원을 시상한다.

불교문화유적답사기 공모전은 불교문화유산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개최된다.

참가자격은 대전 · 충청권 중 · 고교 및 대학생으로 50개 팀을 1차 선발하여 제작비를 지원(팀 50만원, 개인 10만원)을 지원한다. 시상은 대상 1등 대상(팀)에 300만원을 비롯해 총 16개팀에 총 상금 1,150만원을 지급한다.

공모전 응시는 8월 20일까지며 제작 계획 및 제안서를 금강대학교 대외협력처 대외교류팀으로 보내면 된다. (041)731-3012

노덕현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1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8월 16일까지

◆ 개강일시 : 2012년 8월 17일(금요일) 개강. 매주(화,금)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사)대한불교 일월 조계종
종 도 모 집

석가세존의 진리를 수지하고 相扶(상부), 相助(상조), 相生(상생)의 정신으로
불법을 탁마하여 自我成就(자아성취)를 추구하고자 발심하신 선지선각자님 환영합니다.

일월조계종 입종서류

■ 주민등록증사본, 증명사진 3매
■ 승려증 발급하실 분 타 종단 수계증 사본
■ 사암 등록시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 입종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입종비 : 총무원 방문하시면 입종비 없습니다.
■ 출가 하실 분, 장기간 기도하실 분 환영

대한불교 일월 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 원
전남 곡성군 옥과면 설옥리 산 146. 사자암 011-677-8525

무각사 봉사단 지역민에 훈훈한 보시행

2년째 소록도 자원봉사도 펼쳐

"외지인들이 이곳에 오기 쉽지 않은데 매번 정성스러운 음식을 주시니 너무 기쁩니다. 덥지만 음식 대접을 받으니 힘이 납니다."

공양을 대접 받은 이들은 소록도 주민들이고, 대접한 사람들은 광주 무각사 자비봉사단원들이다.

이처럼 평생 외부인과 격리돼 살아온 외딴섬 소록도 주민들에게 불교계의 온정이 전해져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 자비봉사단 20여 명은 7월 17일 전남 고흥군 소록도병원을 찾아 한센병 환자인 마을주민 700명에게 삼계탕을 공양했다.

이날 봉사에는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을 비롯해 무각사 총무 법봉 스님 등 자비봉사단 20여 명이 동참해 구슬땀을 흘리며 음식공양 봉사를 했다.

자비봉사단의 소록도 봉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해 여름 시작해, 매년 7월마다 더운 여름을 이기기 위한 보양음식을 무료로 보시하고 있다. 또한 겨울에는 마을주민을 위한 김장도 직접 담궈주며 동지팥죽도 대접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조계종 교역직 스님들과 방문해 팔을 걷어 부치고 주민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펼치기도 해 주민들은 불교계에 고마워하고 있다고 마을 주민들은 입을 모았다.

자원봉사를 함께 한 무상 스님은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같이 이야기 할 수 있어 기뻤다"며 "보시 정신은 부처님 가르침 중 가장 으뜸인 덕목"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센병 환자인 마을주민에게
두번째 삼계탕 700인분 보시

2008년 결성돼 군법당 자원봉사
지역 어르신 위한 봉사 펼쳐


광주 무각사 자비봉사단이 7월 17일 소록도를 방문해 마을주민 700여 명에게 삼계탕을 보시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법봉 스님도 "소록도에서 지난해 자비봉사단이 봉사활동을 한 것은 불교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며 "다른 이웃 종교들처럼 우리 불교계 봉사 단체들도 소록도에 와서 주민들을 위로하고 자비심을 나눌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름 밝히기가 부끄럽다는 한 자비봉사단원은 "이날 봉사를 위해 봉사자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전날 미리 인삼, 녹두 등 재료를 준비하고, 당일 광주 무각사에서 새벽기도 후 4시 30분에 출발해 이 곳에 왔다"며 "환자와 주민들이 공양을 하며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환희심이 절로 생겨났다"고 즐거워 했다.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장 김명호씨는 "환자들이 대부분 연로해서 더운 여름을 지내기 힘들어 한다. 이렇게 불자들이 따뜻한 마음을 모아 큰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답했다.

한편 무각사 자비봉사단은 지난 2008년 3월 결성돼 소록도 봉사 활동외에도 매주 토요일 무각사 주차장서 열리는 재활용장터 보물섬 개최, 장성 군부대 법당 무각사 봉사 등을 하고 있다. 또한 매년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음식 대접과 생필품 전달, 보름 한마당축제, 음악회 등도 열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일자리 제공이 부처님 자비실천"

전북 유일 불교 사회적 기업 운영

(유)비사벌 코리아 김광원 대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 회사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전북에서 유일하게 불교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김광원 대표〈사진〉는 자신의 성공보다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유)비사벌 코리아는 가구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으로 지난 2011년 9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고 첫발을 내딛었다.

김 대표 "오랫동안 절집에 몸담고 있으면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고민하다가, 일시적 도움보다는 스스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는 생각에 창업을 결심했다"고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현재 회사에는 11명의 직원 중 6명이 장애인이며, 김 대표는 장기실직자와 고령자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 채용했다. 김 대표는 "아직 회사를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매출은 미약한 수준이지만 회사 이익이 발생하는 데로 수익금 일정금액을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올해만 1400만원에 달하는 가구와 후원금을 정심원이나 전주시 정신보건센터 등에 기부했다.

또 직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가구수리, 빈곤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용가구 전달과 장학금 지급에도 나서고 있다.

군 제대 후 김제 금산사에 입산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교에 입문하게 된 김 대표는 그동안 한눈팔지 않고 20년 가까이 불교를 위한 일을 떠나본 적이 없다. 현재도 완주 송광사 사무국장 소임을 맡고 있으면서 주말마다 템플스테이, 어린이 청소년 법회와 여름 수련회등의 기획 관리업무를 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단체인 (사)송광의 이사직과 백산장학재단 사무국장을 하며 1인 다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오는 9월경 인증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 대표 "비사벌 코리아는 가구를 팔기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위해 가구를 파는 기업이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야말로 불보살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 착한소비, 나눔과 순환이라는 회사의 모토아래 취약계층의 고용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지리산 지키고, 여름캠프도 즐기고

전북청소년생명평화실천단 지리산 일대에서 여름캠프 진행


전북청소년 생명평화실천단이 7월 21~23일 지리산 일대에서 여름캠프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이 지리산 일대를 둘러보고 있다.

전북 청소년 생명평화 실천단(단장 오종근)은 지리산 일원에서 7월 21~23일까지 2박3일간 청소년 30명과 지도교사 등 5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여름캠프를 개최했다.

'생명의 지리산, 평화의 순례길에서 여름맑기'란 부제로 진행된 행사는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 순례를 통해 자연의 소중함과 공동체의 소중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청소년들이 쉽게 노출되고 있는 도박, 게임 등 중독 예방교육과 우리문화 이해하기, 고민함께 나누기, 진로탐구, 지리산 순례길 걷기, 지리산댐 반대운동 생태계 보전운동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직접 느껴보고 생명평화적 대안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지리산 순례길을 걷는 중간에는 최근 지역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리산 댐 건설예정 현장과 용유담을 직접 방문해 생태환경문제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생생한 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생명평화 정신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김수연(이리 남성여고) 학생은 "화를 내는 것보다 원인을 찾아 객관화 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하고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자연을 훼손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아름다운 우리 자연이 파괴될 수도 있다는 설명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섬 포교 활동 더욱 활발히 진행하겠다"

광주포교사단 7월 22일 연수교육

조계종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정영균, 이하 광주포교사단)은 지난 7월 22일 광주불교회관 2층 법당에서 2012년 후반기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광주포교사단 전반기 분야별 성과에 대한 발표와 발전방향에 대해 그룹별 토론이 진행됐다.

정영균 단장은 인사말에서 "2012년 전반기는 우리 지역단이 각 팀별로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며 "3년 전 부터 진행해온 섬 포교 활동을 더욱더 활발히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수교육에서는 사찰문화해설팀(팀장 김광수), 군포교팀(팀장 방순량), 교정교화팀(팀장 이종관), 염불봉사팀(팀장 조현옥), 자원봉사팀(팀장 김경영), 홍보 및 사무지원팀(팀장 강막례)이 전반기 활동성과와 사례에 대한 발표와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네팔 이주노동자 엑스포 나들이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는 지난 7월 15일 네팔 외국인 노동자 50여 명을 초청해 여수엑스포 나들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타국에서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적 문화축제인 여수 엑스포 참관을 통해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세계 여러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이날 센터에서 마련한 차편을 통해 여수에 도착한 후, 한국관, 기업관, 국제관과 아쿠아룸 등 여수엑스포 전시관들을 둘러보았다.

네팔 이주노동자 비스터 씨는 "그동안 여수엑스포를 가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많아 참가하지 못했다. 이번 엑스포를 통해 한국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고맙다"고 참가 소감을 말했다. 이주성 센터장은 "근로자들이 아쿠아룸에 들러 바다 속의 신비한 아름다움에 빠져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즐거웠다"며 "이들이 타국 생활에서 소외감과 고립감을 잊고 한국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2012년 동산불교대학 41기 신입생 모집

최고의 교수진과 열성적인 강의로 불교인재 양성



끝없는 열정
신행·교육·포교의 전문도량 동산

배움이란 마라톤처럼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동산반야회 30년 역사와 그 바탕으로 21년 전 설립된 본 대학은 불교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습니다. 동산불교대학이 지성을 찾아 인격과 덕성을 함양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불교학과 토요반(매주 토요일 오후6시) / 목요반(매주 목요일 오후2시) / 통신반

근본불교, 유식사상, 반야사상,
불교상담론,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법화사상, 대승불교,
화엄사상, 정토사상, 밀교사상,
불교사회복지론, 불교학개론,
불교미술, 선학의 이해,
포교방법론, 비교종교론

무진장 대종사(본대학 학장)
김상현 교수 김형준 교수
김호귀 교수 묘 주 스님
박 종 교수 보 각 스님
윤열수 교수 정병조 교수
정 엄 스님 종 석 스님
주명철 교수 차차석 교수
최봉수 교수 최종석 교수
활 안 스님

원서교부 및 접수(불교학과)
2012년 7월 2일(월) ~ 2012년 8월 11일(토)

입학일시(불교학과) 8월11일(토)오후 5시(동산불교회관)개강

9월 개강학과
• 불 교 다 도 학 과 (3년) _ 9월 4일(매주-화, 오후 2시) 박희준 교수
• 사찰음식문화학과 (1년) _ 9월 5일(매주-수, 오후 2시) 정산 스님
• 불 교 미 술 학 과 (3년) _ 9월 6일(매주-목, 오전 10시 30분) 법인 스님
• 불 교 한 문 학 과 (2년)(정규,통신) _ 9월 6일(매주-목, 오후 7시) 만춘 스님
• 동산의식범패반 (2년) _ 9월 5일(매주-수, 오후 3시) 인각 스님
• 동산한글의식반 (2년) _ 9월 8일(매주-토, 오후 2시) 문종순 법사, 만춘 스님

모집인원(불교학과) 180명(토요반·목요반·통신반 각 60명)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사진3매, 입학금 20만원

원서교부처·본대학 사무처 | ☎ 02)732-1206~8 전송 02)732-1207

※ 특전사항 : ① 불교학과, 불교한문학과를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② 군법당 관련종사자(군종병, 하사관, 장교)는 전액면제교육
③ 일반군인 입학금 면제, 수업료 50% 할인함.

DONGSAN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대학원
(우)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0 동산불교회관 www.dongsanbud.net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염주, 염주 주머니)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도심 속 천진불들의 웃음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마련한 도심 속 여름 불교학교가 어린이와 청소년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7월 21~22일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대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옥불보전 대법당에서 열린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는 250여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이 참여했다. 이 학생들은 작은 운동회와 영어로 하는 불교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불교교리와 협동정신을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 자리에서 한국불교대학 회주 우학 스님은 어린이들에게 육바라밀의 뜻을 알기 쉽게 설명한 뒤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지켜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국불교대학은 앞서 7월 14일 50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 수련회를 가진데 이어 28일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중등부 수련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올 여름 오대산서 붓 끝 연화장 세계가

평창 월정사, 그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최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가 여름을 맞아 그림으로 불교문화와 한국전통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월정사 성보박물관은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성보박물관 앞 체험마당에서 '옛 선인들의 삶을 붓과 색으로 만나다'를 주제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012 복권기금 문화나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평창지역의 초등학생과 청소년, 평창관내 다문화가정의 학부모, 노인 요양원 입소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로 옛 선인들의 소박한 면면을 엿볼 수 있는 '민화 그리기' 체험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전문 강사 지도 하에 초뜨기부터 금선 배우기까지 민화를 그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배우게 된다.

이와 함께 월정사 문수청소년회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초등학생 고학년(4~6학년)을 대상으로 '여름 어린이 문화틔움터'를 진행한다.

'붓으로 옛 선인을 만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 프로그램은 문화와 놀이를 하나로 묶어 어린이들의 사고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민화교육 △환경을 생각하며 남기지 않는 발우공양 △전나무 숲길 걷기와 명상 △탁본체험 및 도자기풍경 만들기 체험 등이 다채롭게 열린다.

아울러 9월 28일까지는 대상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되는 제9회 오대산 전국 학생 백일장을 공모한다.

부문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주제는 각각 시부문 그림자 · 꽃씨 · 종(鐘), 산문부문 아이스크림 · 반성문 · 벽이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장학금 50만원이 수여되며 장원에 강원도지사상, 강원도교육감상, 월정사주지상이 주어진다. 차상에는 평창군수상, 평창군교육장상 등이 수여된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오대산은 한국불교의 성지이자 한암 스님과 탄허 스님이 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인류의 평화와 자비를 실천하시던 곳"이라며 "평화와 생명, 나눔과 사랑의 신심으로 가득 찬 오대산에서 전국의 문학청소년과 어린이들이 꿈과 재량을 펼쳐 보일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7월 21일 대법륜전에서 포교사단 강원지단(지단장 최상규) '포교사 포살(布薩) 및 제17회 포교사 고시 1차 합격자 연수, 면접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강원지역 200여명 포교사들은 상원사 주지 인광 스님을 계사로 모시고 10중 48계를 점검, 청정 계율로 수행 정진해 나갈 것을 서원했다. (033) 339-6800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구 보성선원서 혜민 스님 '마음치유 법회'

베스트 셀러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의 저자 혜민 스님이 7월 24일 대구 달서구 보성선원(주지 한북)에서 마음치유콘서트를 봉행했다.

혜민 스님은 이날 강연을 통해 "우리 사회는 자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많다"고 지적하고 "자신의 빛깔과 향기를 찾아 고마워하고 사랑하며, 상대방을 용서 할 때 비로소 내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혜민 스님의 법회에는 지역 불자와 시민 약 2000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마음치유콘서트에서는 남원 선원사에서 '사랑 실은 스님의 짜장' 무료대중공양도 함께 마련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부산 연등축제 대상에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이 부산 연등축제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부산광역시봉축위원회(위원장 수불)는 7월 17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2012년 연등축제 회향보고회를 열고 종합평가 대상에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삼광사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창작등 경연대회 대상은 관음사, 금상은 홍법사, 은상은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이 각각 수상했다. 동상은 진각종 부산교구와 삼광사, 여래사불교대학이 수상했다.

봉축위원장 수불 스님은 "연등회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첫 연등축제였던 올해의 행사에 동참해 준 시민불자 여러분에게 모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모두가 이번 연등축제 대상의 주인공으로 내년에는 더욱 알찬 법석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부산불교신도회관 법계정사 자명 스님 초청법회

부산불교신도회관 법계정사는 부산 마하보리회(회장 손정현) 주최로 7월 20일 자명 스님 초청 법회를 봉행했다. '법의 성격과 깨달음' 주제로 진행된 이날 법회는 마하보리회 회원과 불자 100여명이 동참했다.

자명 스님은 '법이란 무엇인가'와 참선의 중요성에 대해 설하고, 즉문즉설 방식으로 대중의 고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20여 년 동안 홍포해 온 고성염불 수행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5분여 간 고성염불을 직접 염송해보이기도 했다.

한편 오후 7시 반부터 4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이날 법회는 다음 날 오전 2차 법회로 이어져 스님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귀중한 시간을 선사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마음을 깨끗이 하기 위해 찾은 사찰 주변에 술과 고기를 파는 주점과 노래방 등 유흥시설이 난립하고 있다. (충남 ㄱ 사찰)

절 주변을 청정하게

사하촌(寺下村)은 절 아랫동네를 일컫는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절 가까운 곳에 사하촌이 형성되어 사찰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기도하고, 스님들의 수행이나 생활 그리고 신도들의 신앙활동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물건들을 판매하기도 하였다.

언제부터인가 사하촌 기능은 변질되어 사찰과 무관한 술집이나 음식점, 혹은 놀이시설들이 자리잡게 되면서 사찰의 청정환경을 헤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사찰에 가게 되면 길 양쪽으로 빽빽하게 들어선 유흥음식점을 당연한 듯 생각하게 되었으며, 호객행위를 하는 상인들의 모습에 익숙해져 버렸다.

그나마 '문화재보호법'이나 '자연공원법' 그리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찰주변에 대한 정화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인 결과 어느 정도 옛 모습을 찾기는 하였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형성돼온 유흥시설에 대한 완전한 정비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사찰에 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진다. 열심히 기도 하려고 절에 가는 사람도 있고, 부족한 공부를 하려고 절에 가는 사람도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재를 지내려고 절에 가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한결같이 악하고 잡되고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 바르고 선한 것만을 대하고 싶은 바람이 있다. 그런데 막상 절에 가면 도량에 들어가기 전에 온갖 어지러운 환경을 접해야 하니 처음부터 기분 상하는 것이 사실이다.

사찰의 영역이라는 것은 단지 일주문 안쪽의 공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사찰에 영향을 주는 주변공간까지도 모두 사찰영역이다.

예전에 존재했던 사하촌은 사찰내부영역은 아니었지만 사찰과 연관된 다양한 기능들이 존재한 곳이기 때문에 청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었다.

삼보를 모신 곳이 사찰이며, 삼보에 귀의한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사찰이다. 이러한 사찰은 안팎으로 청정환경이 유지되어야 한다. 특히 오랜 세월동안 법등이 유지되어온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어지러운 세상에 그나마 사찰이라도 청정해야지 어디에서 우리가 몸과 마음에 낀 속세의 때를 벗길 수 있겠는가!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⑤ 양산 통도사 백련암(通度寺 白蓮菴)



성철 스님이 1938년 동안거를 보낼때 머물던 요사채.



성철 스님이 통도사 백련암에 머무르던 시절, 통도사는 1900년 경허 스님이 직접 통도사로 와서 선풍을 떨치던 때였다. 순례단원 340여명은 백련암에서 참배를 마치고 스님이 주석하던 요사채를 둘러보며 법향을 느꼈다.

철마다 어머니 돌려보내 동안거 든 곳

백련문화재단과 불교인재원이 주최하는 '성철 스님 수행도량 순례단'이 7월 21일 다섯 번째 순례로 경남 양산 통도사를 찾았다.

통도사는 자장율사가 643년에 당나라에서 귀국할 때 가지고 온 불사리와 가사(袈裟), 그리고 대장경 400여 함(函)을 봉안하고 창건함으로써 초창 당시부터 매우 중요한 사찰로 부각됐다. 불사리와 가사뿐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대장경을 봉안한 사찰이기 때문이다.

통도사 일주문 영축산 통도사(靈鷲山 通度寺)라고 쓴 현판 좌우에는 불지종가 국지대찰(佛之宗家 國之大剎)이라는 주련이 걸려있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해서 '불지종가', 나라의 으뜸가는 절이므로 '국지대찰'이라고 한다.

성철 스님은 1937년 3월 부산 범어사에서 비구계를 받은 뒤 그해와 이듬해 동안거를 통도사 백련암에서 보냈다. 이 무렵까지도 어머니가 철마다 옷가지와 음식 등을 마련해 찾아왔으나 계속 물리쳤다고 한다.

새벽부터 서울, 대구, 부산 각지에서 버스로 달려온 순례단 340여 명은 점심공양 후 진신사리가 모셔진 금강계단을 참배한 뒤 통도사 설법전에 앉았다.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前조계종 초대 교육원장)은 축원문을 독송한 뒤 환영사를 남겼다. 스님은 "성철 큰스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스님이 그동안 수행했던 처소를 순례하면서 스님의 자취를 느낀다는 것은 좋은 발상"이라며 "성철 스님은 1938년도에 통도사 백련암에서 동안거를 지냈다. 그때 당시 스님들은 염불회를 결성해 신도들에게 염불을 권장하고 신행활동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증명법사 원택 스님은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과 향곡 스님이 둘도 없는 도반사이로 공부를 했다고 전한 뒤, 성철 스님이 1982년 경봉 스님 영전에 올린 추도사를 읊었다.

"영축산 꼭대기에 외로운 달이 밝게 비치니 티끌마다 찰찰마다 빛나고 빛나는도다. 거두고 펼침이 자재로움이여! 천둥 요란하고 번개치도다. 나타나고 사라짐이 뜻과 같음이여! 용은 노래하고 봉황은 춤춘다. 한 번 놀고 한 번 웃음이여! 바다도 잔잔하고 강도 맑다. 흑은 앉고 흑은 누움이여! 옥 구슬 구르고 보배 구슬 구르도다. 허허! 문득 푸르른 소나무 아래에서 길게 휘파람 부니 천문만호(千門萬戶)에 노래 소리 들린다."

원택 스님의 법문이 끝나고 순례단은 성철 스님의 법어를 독송했다.

"사바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원래가 하나요, 더불어 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비선악의 분별심이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바의 참모습은 수억막 년 동안 비춰주는 해와 같고 티없이 맑은 창공과 같아 청정한 것인데 분별심을 일으키는 마음에서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백이 되고, 그로써 욕심과 고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백도 하나가 되는 융화(融化)의 중도(中道)를 바로 보고 분별의 고집을 버립시다.…." 〈1993년 음 4월 8일,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초파일법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자' 중에서 정리 분〉

법회를 마친 순례단은 경봉 스님 열반 30주기를 맞아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 개최한 '삼소굴' 전을 관람한 뒤 성철 스님이 동안거를 지냈다는 백련암으로 향했다.

성철 스님이 통도사 백련암에 머무르던 시절, 통도사는 1900년 경허 스님이 직접 통도사로 와서 선풍을 떨치던 때였다.

백련암의 백련선원은 1935년 개원됐다. 개원당시 석봉 스님과 16명의 스님이 정진했으며 1942년까지 정진은 계속됐다.

통도사 일주문 앞 주차장에서 왼쪽으로 난 길을 따라 취운암을 지나 1㎞정도 가면 세 갈래 길이 나온다. 서운암과 극락암 길의 중간 길로 접어들어 1㎞

1937년 범어사서 비구계 받고
이듬해 동안거, 스님이 결성한
백련암 만일 염불회 명성 높아

정도 가면 백련암이 나온다. 백련암이 있는 곳은 현재 성철 스님이 머물었던 요사채를 제외하고는 새로 지어진 건물들이다.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백련암에 대해 설명했다.

백련암은 고려 공민왕 22년(1373년) 월하 대사가 창건하고 조선 인조 12년(1634) 현암대사가 중건했다. 백련암 큰법당을 백련사(白蓮舍)라 현액(縣額)한 것은 부처님 당시 기원정사 죽림정사에 유래하며 한때 백련정사 만일염불회를 개회한 현액이 누각에 걸려 있었는데 통도사 성보박물관으로 내려 보냈다.

큰 법당은 숙종(1707)때 1차 중수를 하고 철종 14년(1863)에 2차 중수 해 354년차 중수를 하고 철종 14년(1863)에 2차 중수해 354년간을 내려오다가 2002년 음력 정월에 해체, 2004년 5월에 아미타불을 모시고 입주했다. 現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이 1975년 부임해 도로, 전화, 전기를 개설했다.

현재건물은 1995년 중창불사를 시작해 큰법당, 광명전, 누각, 요사채 등으로 돼 있다. 이곳에는 역사적으로 선원, 염불당, 강원을 두루 갖춘 곳이다. 환성·경허·성철 스님 등이 납자로 수행했다. 만해 스님은 이곳에서 불교대전을 집필했고, 경운 화상은 이곳에서 정진 스님 부친의 왕생극락을 발원하며 일자일배(一字一拜)해 금자(金字) 법화경을 쓴 곳이다.

백련암 만일염불회는 당시 명성이 높았다. 수행인의 수도처로서 전통이 빛나는 곳이며, 누구나 이곳에 당도하면 세연을 모두 잊고 적정처에 들어온 느낌이다.

현재는 영축총림 염불당으로 천일기도를 수십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고, 매월 음초하루 법회와 지장재일 관음재일 법회 거사법회와 매월 보름에는 인등기도 법회를 하고 있다. 법회일에는 불교입문등 각종경전 교리강좌를 원산 스님이 직접하고 있다.

순례단원은 백련암에서 참배를 마치고 스님이 머물던 요사채를 둘러보며 성철 스님의 향취를 느낀 뒤 각자의 집으로 해산했다. 제6차 순례는 8월 25일 영천 은해사 운부암이다. **양산 통도사=이나은 기자**



증명법사 원택 스님은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과 향곡 스님이 둘도 없는 도반사이로 공부를 했다고 전한 뒤, 성철 스님이 1982년 경봉 스님 영전에 올린 추도사를 읊었다.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 단체주문 쇄도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사은행사
정골요법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무료증정품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빛살림
척추교정운동

이 운동으로 죽을 병 고친사람, 몸이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강해진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하면 제 병을 제가 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 운동은 무병장수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여! (본문에서)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녹아버리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던 사람이 죽음을 기다리다가 무심코 『발치기』 운동으로 기적같이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골격이 비뚤어져서 생기는 병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모든 내장질환의 발병원인은 골격이 비뚤어져 척추 신경이 눌려서 발생한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종다는 곳 다 다녀보고 돈은 돈대로 없애고도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의 종결 코-스

침, 뜸, 부항,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요법, 무중력감압치료, 수술을 받아도 여전히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치료받을 때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재발하는 이유는 척추를 감싸고 있는 기립근육을 풀어주지 않고 척추의 토대인 골반을 바로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스로 골격을 바로잡아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십견,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좌골신경통, 갑상선, 관절통, 고혈압, 당뇨, 안면마비, 위장병, 수족냉증, 두통, 이명증, 전립선, 피부병,
백반증, 아토피, 알레르기, 건선, 부정맥, 만성피로, 상기증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20여년간 수십만명이 체험한 건강법을 지도 합니다.
단, 한번만 체험해 보시면 곧바로 확신이 옵니다.

이 운동으로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고 전신의 막혀 있는 경혈을 뚫어서 질병의 뿌리를 뽑는 법 수록
-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발가락 운동과 뱃속의 단단한 덩어리인 적취(냉적)를 쉽게 푸는 법 수
- 악어가족같이 단단해진 어깨근육, 기립근육 좌골근육을 아주 쉽게 풀어서 통증을 뿌리 채 뽑는 법 수록
- 양쪽다리 길이가 길고 짧은 것을 손쉽게 바로잡아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단침이 몽글몽글 솟아나며 전신의 자장을 높이고 몸속의 냉기를 확 뽑아내서 체온을 높여주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종다는약 다 먹어봐도 병이 낫지 않는다면 몸속을 대청소하라

독소가 우리몸을 공격하고 있다. 만성병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 독소가 꽉차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만성병을 이기는 놀라운 디톡스요법 공개!

몸속에 쌓인 독소와 뼈속에 들어있는 냉기를 싹~ 뽑아내서 자연치유력을 높이는 동양의학 역사상 가장 놀라운 건강법 수록!

■ 책 구입안내
책값 12,000원을 입금하시고 전화로 주문하시면 책2권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농협계좌 : 751017-52-024285 예금주 김 순 옥
■ 위 치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901 소백산수련원

책신청 :054)637-9810

정골본가(이영숙) 서울성수동1가 14-35(우영빌딩4층 제2010-서울성동 0204호

생태사회와 불교

생태와 교육 ㊤

‘氣 죽임 문화’… 협력보다 경쟁 배운다





2004년 지리산 실상사 대안학교인 작은학교의 축제와 운동회 모습. 아이들은 자연과 함께 숨쉬며 세상과 어떻게 상생해 나갈것인지를 스스로 배운다. 무한경쟁사회의 ‘죽임의 교육’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이다.

토끼와 거북이 우화 비틀기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마자 토끼와 거북이의 이솝우화를 1학년 국어교과서에서 읽었던 기억이 있다. 제도교육을 처음 시작하면서 거의 백지상태인 나의 뇌리속에 일찌감치 자리잡았던 토끼와 거북이 우화는 다른 무엇보다 선명하게 저장되어 있었다.

이 이솝우화의 교훈은, 자만하지 말고, 불리한 조건을 탓하지 말며 꾸준히 노력하면 결국 당신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쟁사회 압축적 고도성장을 도모하던 시절, 이 우화는 우리에게 아주 적절한 교육내용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우화에 조금 깊이 의심하는 사람들은, 자고 있는 토끼를 깨우지 않고 몰래 지나가는 그 거북이의 심뽀가 틀려먹었다고 비판한다. 교과서에 나올 만큼 교육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20여년전 당시 야당인 평민당의 심볼이 토끼와 거북이의 이인삼각이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인식의 반영이었다.

그러나 나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 우화를 통해 나의 마음에는 결국 ‘승리’에 대한 집착과 강박이 자리잡게 되었다는 점이다. 결국 경쟁사회에서 ‘이기는 것’, ‘1등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세뇌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토끼가 잠을 자는 실수를 한 것은 거북이에게는 퍽 다행스런 일이 된다. 이토록 경쟁에서 상대방의 실수, 실패는 나에게 승리이며 이익이 된다는 사실이 깊이 각인되었다. 그런데 더 깊고 자세히 뜯어보면 이 게임에서 거북이가 이긴 이유는 우리가 그토록 칭송해 마지않는 ‘거북이의 꾸준한 인내와 노력 때문’이 아니라, 실제는 ‘토끼가 잠을자는 실수’를 범해서 어부지리로 이긴 것이다. 그것이 솔직한 승리의 원인이란 점이다.

우화를 더 비틀어 시비를 걸자면, 토끼는 토끼끼리, 거북이는 거북이 끼리 경쟁을 해야 하는데, 애초부터 게임이 되지 않은 두 대상을 같은 무차별적 평등조건에서 경쟁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일이다. 아무튼 이 게임은 공동체의 이익, 남에 대한 배려, 사랑, 협동적인 가치와 전혀 반대로 개인주의적 이익,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경쟁에서 이기게 하는 인간의 사적 이기심을 극대화하고 격려하는 우화인 것이다.

경쟁의 가치, 죽임의 삶, 그리고 교육

교훈적 내용인 이 우화를 시작으로 우리에겐 끊임없는 경쟁적 삶이 펼쳐진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경쟁에 내몰리는 것이다. 특히 학교교육은 1등에서 꼴찌까지 이어지는 시험과 입시경쟁, 취업경쟁 등 모두 경쟁이다. 죽을때까지 경쟁 하는 것이다. 경쟁은 곧 이기고 지는 게임이며,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져야 한다. 누군가의 실수는 곧 나의 이익이다. 주요한 것은 이러한 경쟁에 대한 인식의 기본 토대는 나와 상대를 철저히 구분하고 가르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전투화 한다.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 이기고 지는 문제로 보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용기를 북돋는 말까지도 ‘화이팅(싸워라)’이라고 한다. 이러한 승리 전략은 우리 삶의 곳곳에 짙고 교묘히, 세세하게 베어 있다.

토끼와 거북이 우화는 이기심 극대화
경쟁적 삶은 패배감 · 열등의식 양산
자살, 우울증… ‘기죽임’ 문화서 비롯

이 많은 경쟁의 게임에서 승리하는 사람과 패배하는 사람을 비교한다면 누가 더 많을까.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과 피해의식을 느끼는 사람을 비교한다면 과연 누가 더 많겠는가. 아마도 승리하는 사람,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보다 피해의식과 패배의식을 갖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다. 그런데 한 게임에서 설령 이겼다고 해도 더 많은 다른 게임에서 그 승리자가 계속 이기라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패배하거나 피해의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더 많다. 더욱이 사람은 성공했던 좋았던 기억보다 피해의식, 패배의식, 상처받았던 의식이 훨씬 더 오래 심리적으로 각인된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사회는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의식, 패배감, 열등의식을 양산하며 사회적 상처들이 내면에 켜켜히 쌓이게 만드는 사회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말에 자주 쓰이는 말중에는 기(氣)와 풍(風)이라는 말이 있다. ‘분위기(雰圍氣)를 살린다. 기운(氣運)을 북돋운다, 사기(士氣)를 높인다. 정기(精氣)를 세운다’ 라는 말로 쓰이며 특히 ‘기를 살리고 죽인다’는 표현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 가장 자주 사용된다. 또한 학풍(學風), 교풍(校風), 가풍(家風)이라는 말도 자주 사용한다. 보이지 않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일정한 경향과 분위기 및 에너지를 말한다.

그러나 경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패배와 피해의식, 상처는 결국 사람들의 ‘기를 죽게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적인 ‘기(氣)죽임’이 누적되고 반복되면 살아도 사람 구실하지 못하고, 더욱 심해지면 실제 물리적 죽음으로 비화된다. 우리나라의 자살율 10만명당 31.2명으로 세계1위이다. 1년에 약 2만여명이 자살한다고 한다. 또한 이보다 30배나 더 되는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한다고 한다. 우울증환자들도 심각하다. 결국 우리 사회에 흐르고 있는 ‘기(氣) 죽임’ 문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죽임의 문화가 우리사회 곳곳에 베어있지만 특히 사회의 이데올로기의 재생산 시스템인 교육속에 더욱 짙게 이러한 문화가 스며들어있다.

무한경쟁 사회에서의 ‘죽임의 교육’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하는 무한경쟁사회에서 이러한 죽임은 사람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기업과 국가도 곧 그렇게 훈습된 이기적인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곳이다. 기업에게 ‘자연을 보존, 환경보존’의 구호는 회사의 공익적 이미지를 만들어 상품판매가 잘 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만큼만 주장할 뿐이다. 또한 정치는 10년, 20년 뒤의 장기적인 국가 설계보다, 선거와 선거기간만 책임지며, 끊임없이 개발공약만 내세우는 정치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개발 · 성공위주 교육에서 왕따 문화 생겨
대안교육은 ‘죽이는 교육’ 부작용 줄일뿐
‘홈스쿨링’ 대안적 방식이 주목받아

환경을 주장하긴 하지만, 경제성장이 그래도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그래야 표를 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의회에는 수많은 토건족들을 중심으로한 토호세력들이 차지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시스템은 시인 김지하가 말하는 ‘죽임의 문화’이며, 루돌프 바로(Rudolf Bahro)가 말하는 ‘스스로 자살하는 거대한 기계사회’인 것이다.

이렇듯 인간과 인간과의 죽임이, 인간이 자연을 죽여 나가는 관계로 확장된 것이 바로 환경오염, 자연파괴로 이어진 것이다. 나아가 인간끼리의 죽임과 자연을 죽여나가는 관계가 결국 인간 스스로 죽여가는 관계로 연결된 것이다. 환경문제는 단순히 자연환경의 오염과 파괴가 아니라 이러한 거대한 죽임의 순환고리, 죽임의 문화가 약한고리인 환경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환경문제의 진정한 해법은 환경을 보존하고 자연을 지켜나가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임의 문화, 죽임의 사회를 살림의 가치가 흐르는 사회로 만드는 것이다.

생태적 교육이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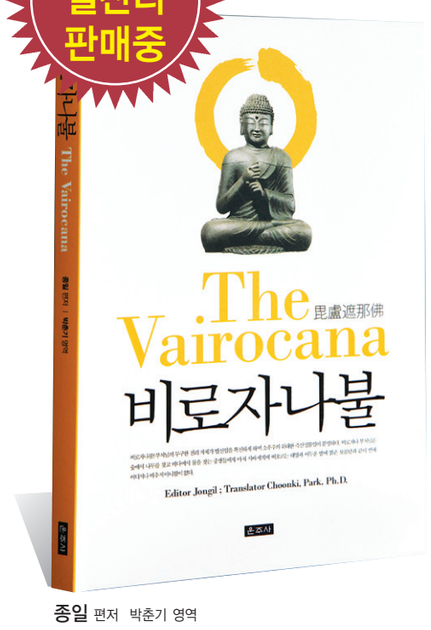
경제적 성공, 경쟁에서의 승리, 이윤과 성장을 지향하는 사회에서는 어떠한 교육개혁도 결국 경쟁적 인간형을 양상할 뿐이다. ‘배워서 남주자’가 아니고 ‘배운것은 나만갖자’는 것이다. 그 배움을 이용해 남을 속이고 영달을 위해 돈만 벌기에 혈안이 된 괴물들을 양상한다. 그 과정에서 낙오한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일진회’라는 폭력의 커뮤니티에서 존재감을 느끼고 위로를 받거나, 수많은 ‘왕따’문화와 ‘자살’의 문화를 양산해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개발위주의 교육, 성공위주의 교육, 일류대를 향한 대학진학을 위한 교육은 기존의 학교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제 아무리 ‘대안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어도 결국 사람을 ‘살리는’일을 하지는 못하고 ‘죽이는 교육’의 부작용의 구멍을 메워주는 역할을 할뿐이다.

서로 협력을 배우기 보다, 경쟁을 배우는 학교, 지식을 통해 지혜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통해 돈을 배우려는 학교, 그래서 학교간의 파벌을 만들고, 배울수록 전통을 부정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교육, 이것이 제도교육의 근본 바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 ‘홈스쿨링’이라는 대안적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유정길 (에코붓다 前 공동대표 · 생태사회 연구소 연구원)

참 불자를 위한 성불로 가는 지침서
종일 스님의 비로자나불
전국유명서점 절찬리 판매중

종일 편저 박춘기 영역
193쪽 값1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The Vairocana 毘盧遮那佛
나무 암밤람함캄 청정법신 대교주
비로자나 부처님!
비로자나불! 부처님의 무구한 진리 자체가 법신임을 확신하게 하며 소우주의 위대한 즉신성불임이 분명하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숲에서 나무를 찾고 바다에서 물을 찾는 중생들에게 마치 사바세계에 떠오르는 태양과 어두운 밤에 밝은 보름달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비추지 아니함이 없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체득함으로써 우리네 삶이 영원히 나고 죽음에 벗어나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참된 자유 참된 행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다. 이 얼마나 숭고한 이치인가! – 불교TV 회장 석성우 스님의 추천사 中
■ 보경사 031)755-3336

藝園®
http://www.예원몰.com
법복/생활한복/단체복/기업체 유니폼/티셔츠

▷ 소백산 구인사 대조사전 “부산 삼광사 백만독 회향대법회” 납품사진 ◁
● 공장 직영 도소매 판매 / 온라인쇼핑몰 및 상설매장 년중운영 /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
● 브랜드 납품잔량 다운패딩 할인판매 / 단체복(티셔츠/모자/바람막이/유니폼/츄리닝) 상담환영
● 고객님과 불자님들의 상담방문을 환영합니다. 한땀 한땀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상담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앤씨드림타워 7차 1310호 수(秀)어패럴(株)
문의 TEL 070-4010-4800 / H.P 010-4660-8814

거인국 5백 비구 발우에 담아 범천 다녀와

② 신통제일 목건련目犍連

〈중〉신통력과 효심

부처님께 귀의한 후 7일 만에 목건련은 아라한과를 증득하고 6신통을 갖추게 되었다. 목건련의 깨달음은 탐욕에서 벗어나서 사성제의 성스러운 진리를 깨달아 진리에 대한 의심이 없으며, 열반을 성취하여 윤회의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신통력을 얻어서 천상의 천인들과 대화를 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까지 갖게 되었다.

목건련의 '신통'

부처님은 목건련의 신통력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목건련은 너무 나태하지도 않고 너무 성급하지도 않으며 안으로 침체되지도 않고 밖으로는 산란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 그는 마음을 집중하는 노력을 기울여 신통의 기초를 닦는다. 그는 낮과 같이 밤을, 밤과 같이 낮을 한결 같이 수행정진한다. 이와 같이 그는 열린 마음으로 빛나는 마음을 닦는다. 수행승들이여 그는 이러한 네 가지 신통의 기초를 닦고 네 가지 신통의 기초를 익혀서 커다란 능력을 지니게 되었다" 〈쌍윳다니까야〉

이제 목건련은 자유자재로 천상을 넘나들며 천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다. 천상 세계에 간 목건련은 천인들의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보고 이들은 전생에 어떤 공덕을 지녔기에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그는 천인들에게 "전생에 어떤 공덕을 지었기에 천상에 올 수 있었습니까?"라고 물어본다. 천상의 사람들은 다양한 대답을 한다. 누군가는 "항상 진실만을 말하며 정직하게 살았을 뿐"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자신을 고용한 주인이 난폭하게 대하고 학대를 해도 마음을 안정시키며, 고용해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지냈을 뿐"이라고 한다. 또 누군가는 "아주 작은 물건이나 먹을거리를 정성스럽게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렸다"라고 대답한다.

너무나 다양한 대답을 들은 목건련은 진실로 어떻게 하는 것이 천상에 이르는 길인지 궁금해졌다. 곧 천상에서 내려와 부처님을 찾아뵙고 이에 대해 여쭈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여래의 아들이 부질없는 의심에 빠져서는 안 된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착하고 어진 마음으로 행하게 되면 반드시 그 이익이 따른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천상에 태어난다. 항상 진실을 말하고, 분노를 억제하고, 작은 것이라도 구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행위만으로도 얼마든지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부처님도 인정한 그의 신통력이 의심을 받은 적이 있다. 〈증일아함경〉 29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어느날 비구들 사이에서 목건련의 신통력이 사리불의 것보다 못하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목건련을 낮추어 보는 대중들을 보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거조암 목건련나한상

"너의 신통력을 보여 대중들이 더 이상 어리석은 생각을 내지 못하게 하라" 이에 목건련은 부처님의 발에 예배를 하고, 동방으로 항하의 모래알 같은 세계를 일곱 개나 지나 기광 부처님이 있는 거인의 나라에 떨어지게 된다. 이 모두가 팔을 굽혔다 펼 정도의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목건련은 기광 부처님의 발우 가장자리 위에 올라탔다. 거인 스님들이 목건련을 보고 말했다. "벌레가 기어 다니네? 그런데 모양이 꼭 스님이야"

"어떻게 해야 천상에 이르는지요"
부처님 "선행을 하면 반드시…"

지옥 어머니 구하려고 했으나
죄가 너무 커 개의 몸 받게 되자
하안거 해제일에 천궁으로 인도



그림 · 김홍인

기광부처님은 목건련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이 비구들이 너를 업신여기는구나. 신통을 나타내 대중들에게 보여라"

목건련은 발우에 5백 비구를 담아 범천으로 올랐다. 왼쪽 다리로 수미산을 딛고 오른쪽 다리를 범천에 올리며 이렇게 게송을 읊었다. "더욱 정진할 것을 늘 생각하며 부처님의 법을 닦아 행하고, 마군들의 원한 항복 받기를 갈고리로 코끼리를 다루듯 하라. 만일 능히 이 법 안에서 실천하며 방일하지 않는다면 괴로움의 근원을 완전히 없애 다시는 온갖 번뇌를 받지 않으리"

그때 목건련의 소리는 부처님과 비구들이 있는 사바세계 기원정사까지 두루 펴졌다. 비구들은 이 소리를 듣고 부처님께 목건련을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청한다. 부처님의 명에 따라 목건련은 거인국의 5백 비구들을 데리고 기원정사로 돌아오게 된다. 거인 비구들이 너무 커서 들어갈 수 없자 목건련은 다시 신통을 부려 그들을 몸집을 줄인다. 이렇게 5백 비구는 부처님의 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다. 그때 부처님께서 거인 비구들을 향해 이렇게 설법을 하셨다.

"이제 너희들을 위해 6계(界)의 법을 설명하려니 잘 사유하고 기억하라. 6계로 이루어진 사람은 부모의 정기를 받아 세상에 태어난다. 6계란 이른바 흙(土界) 물(水界) 불(火界) 바람(風界) 허공(空界) 식(識界)이니 이것을 6계라고 하느니라"

이어 부처님은 6입을 설명하신다. "또 사람의 몸에는 부모의 정기를 받아 6입이 생기는데 이것이 안입(眼入) 이입耳(이入) 설입(舌入) 비입(鼻入) 신입(身入) 의입(意入)이다. 또 이 6입을 의지함으로써 6식신이 있게 된다. 어떤 것이 여섯 가지인가? 만일 안식(眼識)에 의지하면 안식신(眼識身)이 있게 되고 이식신(耳識身) 비신신(鼻識身) 설식신(舌識身) 신식신(身識身) 의식신(意識身)이 있게 된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렇게 정리해 말씀하신다. "6계(界) 6입(入) 6식(識)을 아는 비구가 있다면 그는 여섯 하늘을 건너 다시 몸을 받을 것이요. 만일 거기서 목숨을 마치고 이곳으로 와 태어난다면 총명하고 재주가 뛰어나 현재의 몸으로 번뇌를 없애고 열반에 이르게 될 것이다"

기광 부처님 세계 비구들은 부처님의 짧은 설법을 듣고 모든 번뇌가 없어져 법안(法眼)이 깨끗해졌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제자 중에서 성문으로서 그 신통이 제일이어서 따를 이가 없는 자는 바로 목건련이니라" 그때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꺼이 목건련을 신통제일로 다시 인정하게 됐다.

지옥의 어머니, 그리고 우란분재

부처님은 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부모가 병들면 자식은 갖가지 방법으로 병고를 빨리 제거하도록 해야한다. 그리하여 오근(五根)이 경쾌하고 편안하게 조화되며 양질의 음식으로 체력이 견고해져서 온갖 고통을 떠난 가운데 장수를 누리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몸이 세상에 있는 것은 세상의 부모가 있기 때문인데, 이런 이유로 부모의 은혜가 무거운 까닭이다" 〈불본행집경〉

목건련은 부처님 10대 제자 중 효의 대명사로 불린다. 〈목련경〉에는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한 목건련의 이야기가 나온다. 목건련이 출가 후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기산굴 산중에 들어가 수행정진을 할 때의 일이다. 그때 33천을 관찰하다가 화락천궁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는 아버지만이 계셨다. 목건련은 부처님께 물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날마다 오백승재를 차렸다고 하셨는데 어찌 천궁에서 볼 수가 없습니까?" 부처님은 "목련아 너의 어머니는 세상에 있을 적에 삼보를 믿지 아니하고 욕심을 내고 나쁜 짓을 많이 하여 지은 죄가 수미산과 같으므로 죽어서 지옥에 들어갔느니라"라고 대답하신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목건련은 몸부림치며 오열했다. 그리고 어머니를 구하기로 결심하고 지옥으로 들어간다. 각고의 노력 끝에 아비지옥에 떨어져 불구덩이 속에서 벌을 받고 있는 어머니를 만나게 된다.

"어머니! 어머니께서는 살아계실 적에 제게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오백승재를 차렸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맞다면 죽어서 화락천궁에 태어났어야 할 터인데 어찌 지옥에 계십니까?" 어머니는 "나는 지옥에 있어 죄보를 받느라고 갖은 고생을 하였다. 배고프면 뜨거운 무쇠탄재를 먹고 목마르면 끓는 구리즙을 먹으면서 말이다"라고 답한다.

목건련 어머니의 죄는 무거운 것이었다. 출가전, 아버지를 여의고 집을 잠시 비워야 했던 목건련은 어머니에게 돈을 드리며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를 위해 날마다 오백승재(五百僧齋)를 베푸십시오" 이렇게 당부하며 집을 나섰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오백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기는커녕 짐승들을 사들여 살찌우고 함부로 살생을 하고 또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기까지 했다. 어머니는 집으로 다시 돌아온 목건련에게 자신의 악덕을 숨기고 목숨을 거두었고 이 과보로 지옥에 간 것이다.

목건련은 부처님의 도움으로 어머니에게 밥을 가져다 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어머니는 밥을 보자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왼손으로는 밥 덩어리를 집고 오른손으로는 밥을 달라고 졸라대는 지옥 귀신들을 막아내고 있었다. 그러자 왼손의 밥은 입에 넣기도 전에 맹렬한 불길이 되어 녹아들고 만다.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간 목건련은 다시 어머니를 구할 방법을 묻는다. 목건련은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보살네들에게 청하여 방생을 하고 신번을 세우고 49등을 켰다. 이후 목건련의 어머니는 개의 몸을 받게 된다. 이 역시 안타까웠던 목건련은 부처님게 다시 도움을 청해 이를 벗어날 방법을 구한다.

"목건련아 7월 보름날에 우란분재를 차리면 너의 어머니가 개의 몸을 면하리라"

"부처님. 무슨 까닭으로 13일이나 14일을 정하지 아니하시고 7월 보름날을 택하라 하시나이까?"

"목건련아 7월 보름날은 대중이 여름 안거를 해제하는 날이라, 즐겁게 한 곳에 모여 너의 어머니를 천도하여 정토에 태어나게 하리라"

목건련은 즉시 부처님의 말씀대로 버드나무와 잣나무를 가지를 사서 우란분재를 차리니, 어머니가 개의 몸을 벗어나 부처님 앞에 마주앉아 오백계를 받아 도리천궁에 태어나게 된다.

바로 이것이 백중의 우란분재 효시가 된 것이다. 〈우란분경〉에는 이런 부처님 말씀이 나온다.

"불제자로서 부모에게 효성을 드리는 이는 항상 지금 있는 부모 7대 선망을 생각하여 삼보에 공양을 올려라. 해마다 7월 보름날에는 특별히 살아 있는 부모와 7대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우란분재를 차려서 부처님과 스님네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우란분공양을 차려라. 이렇게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하면 나를 낳아 길러준 부모의 망극한 은혜를 갚을 것이다. 여러 불제자들은 이 법문을 잘 받들어라"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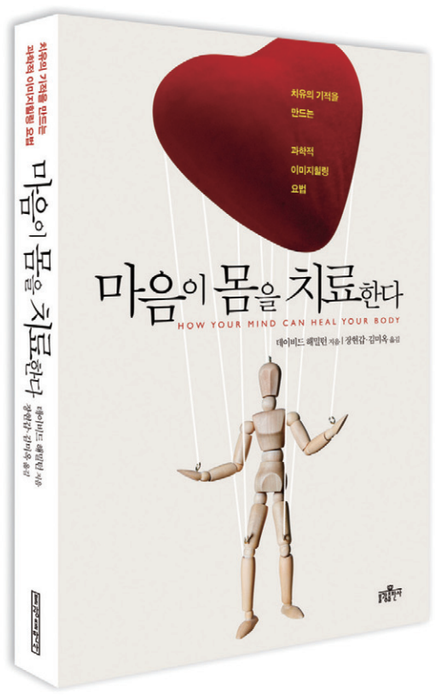
HOW YOUR MIND CAN HEAL YOUR BODY

놀라운 치유의 기적, 이제 당신도 느껴 보라!

치유의 기적을 만드는
과학적 이미지힐링 요법

마음이 몸을 치료한다

데이비드 해밀턴 지음
장현갑·김미옥 옮김
372면 값 17,000원



생화학 박사이자 전 제약 회사 연구원이 밝히는 강력한 마음의 치유력!

심신의학 권위자인 데이비드 해밀턴 박사가 내놓은 이 획기적인 책은 이미지힐링과 믿음, 긍정적 사고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한다. 저자는 혁명적인 '양자장 치유법'을 언급하면서 상상력과 사고 과정을 통해 우리 몸의 방어 기제와 치유 시스템을 강화시켜 각종 질병을 물리치는 방법을 제시한다.

심신의학 치료의 의학적·과학적인 근거에 대한 갈증을 속 시원히 풀어 주는 책!
- 장현갑(옮긴이, 전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한국명상치유학회 명예회장)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 / bulkwang

100개의 문답으로 풀어낸
사찰의 상징세계 (상·하)
글 자현 스님



때론 오해가 빚어낸 역사가,
때론 가슴 절절한 신앙이 오롯이 담겨진
'사찰'에 대한 종합 안내서

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종교부문 베스트셀러

언론이 주목한 바로 그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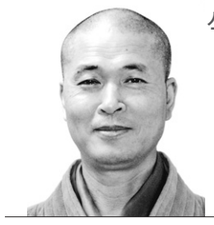
영똥하게 알려진 상식은 바로잡고 사찰 곳곳의 은유와 상징들을 설명한다. - 동아일보

비교문화·종교학적 관점에서 한국불교에 녹아있는 다양한 문화의 흔적을 들춰낸다. - 중앙일보

크고 작은 의문들이 자연스레 풀려간다. 330여 장의 컬러 사진과 다양한 그래픽도 이해를 돕는다. - 조선일보

"문화를 보는 눈은 종교를 보는 눈과 다르"며
"(절집을) 불교적 시각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오만"
이라는 죽비소리, 시원하다. - 한겨레

상하 각 320쪽, 312쪽 | 올컬러
가격 각 22,000원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자기의 일을 찾으라

학승이 물었다. "각기 한 소질을 지닌 사람들이 몰려왔다면 그 일은 어떻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의 눈은 본래 똑바르니까 그 일에 대해 논하지 않겠네."

問 衆機來湊 未審其中事如何 師云 我眼本正 不說其中事

손이나 발을 능숙하게 움직이는 자가 이 도를 익히면 손발을 움직이는 것이 곧 도가 된다. 그러나 도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손이나 발을 움직여도 그것은 절대 도가 될 수 없다. 일대 장인은 원래 도에 가깝다. 그러나 손발을 능숙하게 움직인다고 다 도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마음이 문제이다. 마음을 내려놓고 원하는 것 없이 다만 능숙하게 움직이기만 한다면 어느 날 도와 맞닥뜨릴 날이 있을 것이다. 장인이자 곧 도인이 되는 것이다. 예컨대, 도예가가 도를 행하면 도가 더욱 빛날 것이다.

미래에 빛나는 도인은 참선을 오래 한 자가 아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든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해서 그 일에 능숙한 달인이 되고, 마음까지 도에 합일된 사람이다. 참선을 하던지, 화살을 깎던지, 그릇을 굽던지, 벽돌을 찍어내던지, 그림을 그리는 일 등은 결국 같은 일이다. 호흡을 고르면서 화두를 드는 일이나, 일을 하면서 화두를 드는 것은 그 효과가 같다.

다만 참선하는 자는 가난하다. 일을 하는 자는 보수가 있다. 이 차이만 있다. 만일 장인이 화두까지 타파한다면 그야말로 천상천하에 유아독존격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미래 참선하는 납자들에게 권한다. 자기의 일을 찾으라. 자기 일을 하면서 끝까지 화두를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 맞아떨어질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주 선사와 같은 천하 고승도 그대에 대해 이러니저러니 평하지 못할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청정한 세계에도 머물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는 아직 그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학승이 물었다. "그 곳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모든 것을 그친 자이니라."

問 淨地不止是什麽人 師云 你未是其中人在 云如何是其中人 師云止也

청정한 세계에도 머물지 않아야 참다운 도인이다. 오늘날 겉은 멀쩡하게 생겼으나 속은 빈껍데기인 형식에 도취되어 있는 자들이 많다. 작설 차 세트를 구입하는데 몇 백 만원, 조용하고 시원한 마루가 있는 정자를 짓는데 얼마, 그리고 처음 딴 찻잎, 시원한 모시 적삼, 점잖은 말투, 여기에 맞는 분위기를 익히는데 몇 년을 쏟아 붓고 손님을 초빙하여 능숙하게 차를 따르면서 마치 이것이 도인 듯 풍미한다. 그러나 공안에 대해 물어보면 단 반 마디의 견해도 내보이지 못하면서 스스로 고개를 바짝 쳐들고 자존심만 내세운다. 그야말로 수수밭에 알맹이 없는 수수대의 참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도는 그런 세계에 없다. 도인은 그런 청정함에 머물지 않는다. 도인은 이산 저 강을 가리지 않는다. 고요한 운동장, 시끄러운 시장, 아수라와 같은 삶의 전쟁터, 부모와 자식, 성품이 다른 사람이 부부가 된 삶의 현장에서 적당한 조율이 필요한 곳에 도인은 있다. 지나치게 당기거나 지나치게 느슨하게 방치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살아간다. 평생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고, 높은 장작을 쌓아놓는 호화로운 장례절차도 필요 없다.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갈 뿐이다.

그 곳에 있는 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참으로 양변의 견해가 끊어진 사람이다. 더럽고 추함을 보지 않고 깨끗한 것을 깨끗함이라 여기지 않는 '진정한 고요'를 체득한 자이다. 그는 비오는 날 선사를 만나면 "뚝방을 살펴서 평안하게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맑은 날 선사를 만나면 "오늘 날씨가 맑으니 산색을 구경하러 나가시지요." 라고 말하고, 법회 날 선사가 "이 소식을 아는가?" 하고 물으면 "이 늙은이가 어찌 코를 흘리고 다닐까?" 하고 반문한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이 그쳐진 자이다.

이 사람에게 형식과 규율을 묻지 말라. 참 인간에게 강제적 규율은 필요치 않다. 이 사람은 영원히 영혼의 수용소에 갇혀 있는 자들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 이 사람은 어디에 가건 그곳의 필요한 사람이 된다. **무불선원 선원장**



주성원의
기초 교리 〈24〉

십이처에 육식을 더한 무상의 근본 가르침

삼과 – ③십팔계(十八界)

지난 호에 연재한 '십이처(十二處)'에서 감각 기관인 육근(六根)과 그 감각의 대상인 육경(六境)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다. 이번에 설명할 삼과의 마지막인 십팔계(十八界)는 육근과 육경을 합한 열두 가지 항목에 다시 '여섯 가지 식별작용[六識]'이 더해진 것을 말한다. 즉 육근 · 육경 · 육식을 합한 열여덟 개의 항목을 십팔계라고 한다.

계(界)는 산스크리트어 다투(dhātu)를 번역한 말이다. 다투는 근본, 기초 등을 의미하는 말로, '근원을 간직한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해 일종의 '원리'의 의미로 쓰인다. 불교에서는 이 육근 · 육경 · 육식을 합한 열여덟 항목이 세상의 성립과 인간생존의 성분이자 요소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의 의미를 가진 '계'를 붙인 것이다.

또 계에는 생본(生本)과 종류(種類)의 두 가지 의미도 지니고 있다. 생본이란 원인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십팔계의 열여덟 항목은 인간생활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종류란 각각의 요소가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계에는 '원인'과 '요소의 특징'이 포함돼 있고, 이에 '차별'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각각의 사물이 혼란스럽지 않게 특징에 따라 세세히 차등을 둬 분류했기 때문이다.

십이처에 더해진 육식은 육근이 육경과 접촉한 결과로 형성되는 인식작용이다. 예를 들어 눈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을 통해 어떤 음식을 보고 맛있겠다 혹은 맛없겠다라는 식별작용이 일어난다. 여기에 혀를 통한 미각으로 음식의 맛을 직접 보고 맛있다 혹은 맛없다라고 분별해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이러한 사고 작용이 바로 인식작용이다.

이처럼 감각기관인 안근(眼根)이 안근의 대상인 색경(色境)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인식작용이 안식(眼識)이고 이를 안식계(眼識界)라고 한다. 이처럼 나머지 이 · 비 · 설 · 신 · 의와 성 · 향 · 미 · 촉 · 법이 만나 각각 이식계(耳識界) · 비식계(鼻識界) · 설식계(舌識界) · 신식계(身識界) · 의식계(意識界)가 형성된다. 이 중에서 십이처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 육식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3) 안식계는 시각의 인식 작용이자 이러한 인식의 주체가 된다. 이것은 눈으로 색깔이나 형상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기능을 말한다.

(14) 이식계는 청각의 인식작용이자 이러한 인식의 주체가 된다. 이것은 귀로 소리를 듣고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기능을 말한다.

(15) 비식계는 후각의 인식 작용이자 이러한 인식의 주체가 된다. 이것은 코로 냄새를 맡고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기능을 말한다.

(16) 설식계는 미각의 인식 작용이자 이러한 인식의 주체가 된다. 이것은 혀로 맛을 보고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기능을 말한다.

(17) 신식계는 촉각의 인식 작용이자 이러한 인식의 주체가 된다. 이것은 몸으로 접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기능을 말한다.

(18) 의식계는 지각의 인식 작용이자 이러한 인식의 주체가 된다. 이것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식별하는 기능을 말한다.

경전에는 이처럼 마음작용의 기본으로 육근 · 육경 · 육식의 십팔계가 설명돼 있다. 이것들은 모두 조건[緣]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제법무아에 따라 모두 무아임을 알아야한다.

불교 세계관의 이론체계인 삼과를 바탕으로 이 세상을 오온 · 십이처 · 십팔계로 나누어 보고, 그것이 모두 무상함을 깨닫는 시각을 기르는 것이 불자들의 사명중 하나임을 알아야 한다. **日 용곡대 불교학석사 · 前 본지기자**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㉙



어떤 가정도 보시하였기 때문에 망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소 〈상윳따 니까야 42〉

이런 고백을 하면 웃으시는 분도 계실 터이다. 더 심하게 비난을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다. '명색 불교학을 하는 교수가 그런 말을 하다니…' 라고 말이다. 그러나 오늘은 용기를 내서 말해보기로 한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내 꿈이다.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지금까지 평생 돈에 구애를 받고 살아온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데, 그 많은 일들은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가 되어서, 하마만큼이나 큰 입을 벌리고 있다. 우선 책을 맘껏 펴내고 싶다. 돈이 안 될 것 같아서, 차마 출판사에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포기했던 책들을 다 내고 싶다. 연구소를 멋지게 운영하고 싶다. 또 어려움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싶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부자가 되고 싶다는 내 간절한 꿈은 금생에는 이룰 수 없는 꿈이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 이유는? 복(福, punya)이 없어서다. 돈이 모여드는 복 말이다. 그 복은 전생에 지은 나의 업(業, karma)과 상관되는 복이다. 전생에 내가 많은 보시를 했더라면, 나는 금생에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가난하게 태어났고, 돈에 대한 욕망과 그리움을 늘 안고 살아간다. 보시를 많이 하지 못한 것 뿐이던가. 도둑질까지 해가면서 장차 부자가 될 수 있는 씨앗을 싹둑싹둑 잘랐을 것이다.

가난에 대한 전통적인 불교교리는 이렇다. 젊고 많이 배운 분들은 이런 말을 안 믿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러한 인과설(因果說)을 100% 믿고 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보시를 부지런히 하는 수밖에 없다. 내생을 위해서, 내생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말이다.

문제는 가난한 형편에 어떻게 보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실제로 부처님께 이러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흉년이 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속출하는데, 얻어먹으면서 행각을 하는 것이 옳으냐고 말이다. 이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신다. "지금까지 어떤 가정도 요리된 자선음식을 보시하였기 때문에 망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소."(일아역편,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민족사, 338쪽)

어떻게 들으면 좀 무뚝뚝하고, 좀 무자비하게 들린다. 그렇다. 불교는 무자비하다. 진리 그 자체를 말하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가난해도 보시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시는 재물을 나누는 것이지만, 먼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서는 재물을 나눌 수 없다. 가난의 고통을 맛본 일이 많은 사람들이기에 더욱 더 마음을 나누는 일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재물을 나누는 것은 형편에 맞게 하면 된다. 어쩌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의 보시를 걱정하는 이면에는 이미 어느 정도의 선(線) 이상이라야 보시일 수 있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림 · 박구원

보시의 공덕을 평가할 때에도 그 양에 따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예를 들어 재산이 백만원인 사람이 1만원을 보시하는 경우와 재산이 천만원인 사람이 5만원을 보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자. 양적으로 평가한다면 당연히 5만원을 보시한 사람이 더 많은 공덕을 지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1%를 보시한 사람과 0.5%를 보시한 사람 중 누가 더 큰 공덕을 지었을까? "어떤 이는 조금 있어도 베풀고 / 어떤 이는 많아도 베풀지 않으니 / 조금 있어도 베푸는 보시는 / 천 배의 가치가 있다."(상윳따 니까야, 323쪽)

부자들의 재물이 정녕 "자선함으로써 모으게 되었"(338쪽)음을 생각해 보면, 부자들도 금생의 보시를 통하지 않고서는 내생의 일을 알 수 없게 된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보시의 길 말고는 길이 없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특강안내
수정기공 Soojung Touch Therapy
대한민국 인증대상(기공부문)
2012년 대한민국 신지식인 선정기념
무료 공개체험
신지식 공유를 위하여
수시 공개합니다
전화요망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정기강의시작 : 매월 첫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6시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모집인원 : 매회 8명이내
연 락 처 : 010-3463-7806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전함

원목 법탁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원목 법상
Naver 무인경보불전함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나의 서원 나의 신행 〈14〉

‘평생 부처님 말씀 보겠다’… 50년 강의

대강백 각성 스님 부산 화엄사 회주



각성 스님은 … 1938년 전남 장성의 한학자 집안에 태어나 8살 때부터 할아버지에게 사서삼경을 배웠다. 1955년 18세에 선사이자 율사이신 해인사 백련암 도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23세 약관의 나이로 은해사에서 강주로 활동했으며, 관응, 탄허, 운허 스님 문하에서 경학을 연찬했다. 이후 50년 간 수많은 스님과 재가불자들을 대상으로 경전을 강의했다. 저서로는 〈능가경〉, 〈수능엄삼매경〉, 〈대도직지〉, 〈유식론 강의〉 등 20여 저서가 있다. 현재 부산 화엄사 회주 소임을 맡고 있으며, 일흔이 넘은 세수에도 후진양성을 위한 왕성한 강의 활동을 하고 있다.

도심 사찰의 일주문은 마치 성(聖)과 속(俗)을 나누는 경계면 같다. 서울 종로 한 복판에 우둑히 서 있는 조계사 일주문은 더욱 그렇다. 그 경계 앞에서 〈화엄경〉 강론의 대강백으로 알려진 부산 화엄사 회주 각성 스님과 만날 약속을 잡았다. 대강백이라는 기대와 선입견이 앞서일까. 설레면서도 초조했다. “무슨 말을,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수백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오전 9시, 약속 시간에 맞춰 각성 스님이 도착했다. 단촐했다. 이제는 흔하디 흔한 자가용을 타지도 않았고, 시봉하는 시자도 없었다. 모시옷 한벌에 강의 자료와 가사가 든 큰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먼저 알아본 스님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수고하십니다.”

인사를 건네는 눈은 빛났고,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다. 함께 조계사 경내를 걸을 때에는 활기를 느꼈다. 올곧은 교학자의 풍모는 스님의 모든 행동과 말에서 자연스레 묻어났다.

아직도 나는 현역입니다

옮긴 자리, 먼저 “시봉하는 시자가 없으시냐”는 속인의 질문을 던졌다. 스님의 대답은 분명했다.

“없어요. 그런 게 모두 돈이고 경비입니다. 부처님 시주 돈, 허투루 쓸 수 있습니까. 아직은 필요없어요.”

염려의 질문이 무색할 만큼 쩌렁쩌렁한 답변이다. 스님의 세수는 올해 75세. 스님은 지금도 부산과 서울 오가며 학인 스님과 불자들을 제접한다. 매월 1, 3주 월요일 오후 7시에는 종로 5가에 있는 보명선원에서 〈대도직지〉 강의를, 화요일 오후 2시에는 동국대 학명 세미나실에서 학인들을 대상으로 〈열반경〉을 강의한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열반경〉강의는 현재 9권까지 진행됐으며, 앞으로 36권을 더 강독해야 한다. 젊은 사람에게도 녹녹치 않은 강의 일정이다.

“몸은 많이 고되고 힘들지요. 그래도 요청이 들어왔고, 부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니까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열반경〉강의을 마치면 이제 책임을 좀 벗어나려고 합니다.”

‘空手來空手去’ 무엇이 아까운가

최근 각성 스님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전남 장성의 본인 생가와 인근 부지 6611.57㎡를 매입해 ‘수선사(修禪寺)’라는 사찰을 창건함과 동시에 모든 소유권 일체를 조계종에 기증했기 때문이다. 사찰 불사 비용도 스님의 강의, 법문, 출판 등으로 모은 사재를 전부 보시해 이뤄졌다. 지난 7월 14일에는 소속 교구본사인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수선사 창건 법회를 성대히 봉행하기도 했다.

이렇게 평생의 사재까지 털어가며 장성 자신의 생가에 사찰을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 스님은 불교 불모지인 장성에 사찰이 꼭 하나 있었으면 했다고 말했다. 장성은 스님의 고조부터 아버지까지 4대가 살았던 곳이다.

“수선사 인근은 제 고조부부터 아버지까지 삶을 일궈 오신 곳입니다. 이곳에 사찰을 세운 것은 지역 불교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입니다. 장성에는 여법한 사찰이 거의 없습니다. 50리 밖에 백양사가 하나 있습니다. 원효 스님도 자장 율사도 자신의 생가를 절로 만들었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왕릉에는 능침사찰이 있었구요. 저 같은 서민들도 생가에 절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고향에, 자신의 사재를 보시해 만들어진 사찰이지만, 스님은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아무런 욕심을 내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이미 종단의 공찰로 등록한 상황에서 자신이 참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서다. 지금 주석처인 화엄사도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모두 종단에 전부 증여할 계획이다.

운허 · 관응 · 탄허 스님 문하에서 연찬
‘화엄경’ 강론의 대가로 알려져
“범부가 부처되는 과정 상세히 묘사”

불자위한 추천 경전은 ‘능엄경’
‘정토’ 길잡이 ‘아미타경’ 도 읽었으면

“염불은 쉽게 할 수 있는 귀한 수행법
늘 부처님 떠올리는 마음이 곧 염불”

생가 · 부지매입 수선사 창건
공찰등록… 현 주석처도 곧 종단에

“승려 개인이 사찰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종단 공찰로 운영하는 게 삼보정재를 지킬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종도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인간은 모두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크게 보면 우주만유가 모두 내 것이고, 작게 보면 내 것이 없습니다. 어디에 집착심을 갖겠습니까? ”

공자를 놓고 부처님 말씀을 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안에는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상(像)이 없었다. 딱딱한 이야기였지만, 그 심지는 굵었다.

각성 스님은 출가 전 유학을 공부했다. 스님의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도 모두 유학을 공부한 유학자였다. 스님 역시 출가 전 사서삼경을 통독했다.

하지만 6.25전쟁 이후 고향이 폐허가 되고, 공부할 거처가 없어지자 스님은 백양사로 발걸음을 옮겼다. 예전 읽은 책에서 율곡 이이 선생이 금강산에 있는 절에 들어가 공부했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얼마 안 있어 같이 간 친구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며 절을 떠났다. 스님 역시 친구와 함께 절을 나왔다. 하지만 발걸음은 해인사 백련암으로 행하고 있었다.

“해인사 백련암에서 출가했습니다. 출가하며 ‘평생 부처님 말씀을 보겠다’ 고 발심했지요. 그래도 경전 보다는 참선을 통해 일대사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4.19이후 벌어진 정화운동으로 은해사에서 경전을 가르치는 강주 소임을 봐야했습니다. 도반 스님이 은해사 주지 소임을 맡았는 데 대처승들을 내보기 위해서는 여법한 강원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요. 강주가 공부를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경전을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스님의 노력이 통해서 일까. 은해사 강원에는 50~60명의 학인이 모여 공부를 시작했고, 몇 달 안돼 대처승은 은해사를 떠났다. 이후 각성 스님은 당시 3대 강백이라 불리었던 관응, 탄허, 운허 스님 문하에서 경학을 연찬했다. 탄허 스님이 역주한 〈화엄경〉, 〈화엄론〉의 교정 작업도 스님이 진행했다. 또, 〈한글대장경〉의 번역과 감수 작업을 10년 가량 했다. 출가 이후 스님은 오롯히 천태, 화엄, 유식부터 소승에서 대승까지 경전 공부에만 평생을 매진해 온 것이다.

무명 그 자체가 곧 불성

수많은 경전들을 강독한 각성 스님은 대중에게는 〈화엄경〉강론의 대가로 잘 알려져 있다. 강백이 전하는 〈화엄경〉 요체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망설임없는 답변이 나왔다. ‘범부가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과정’ 이라는 것이다. 부처의 세계를 설명한 경전이 〈화엄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화엄경〉을 보면 부처님의 재산과 살림살이를 볼 수 있다는 게 스님의 설명이다.

“십주, 십행, 십지품 등 〈화엄경〉은 부처가 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단계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부처가 될 수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명이 본래 있는 게 아니라 무명 그 자체가 부처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바다 위 거품은 생겼다 사라집니다. 바다는 곧 마음이고, 거품은 번뇌망상입니다. 거품과 파도가 아닌 바다를 아는 게 깨달음입니다. 화엄경은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가 현각대사는 이 도리를 깨닫고 ‘무명실성즉불성 환화공신즉법신(無明實性卽佛性, 幻化空身卽法身)’ 이라는 증도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스님은 〈화엄경〉 공부가 치열한 현대인의 삶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했다. 경전 공부만이 가지는 혜안이 열린다는 것이다.

“물방울은 약하지만 이를 하나로 모으면 군함도 부술 수 있을 정도로 강합니다. 천 가지, 만 가지 생각을 분리해 있는 게 우리 범부들의 정신 상태입니다. 큰 바다처럼 하나로 정신을 모을 수 있다면 사업이나 공부에서도 무한한 힘이 나올 것입니다. 경전을 공부하면 이렇게 스스로의 자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화합불교의 일불제자 구현

봉 **호국불교조계종 우란분재(백중절) 49재 영가천도** 행

부모형제 영가천도를 보시 때문에 못하신 분들은 **아래 각 사찰로 동참하시어** 조상이 편안하면 나라와 가정이 태평성대하여 소원성취하옵니다

회향 : 1년에 한번 하늘이 열리는 음력 7월 15일 회향합니다

종 정 운송 (양산 상북면 청운사)
중앙원로원장 대웅 (부산 진구 당감 봉주암)
중앙원로 의원 무진 (경주 황용 용수암)
중앙원로 의원 일파 (경북 청도 부야 삼화사)
중앙비구니회장 혜명 범우(부산 진구 부암 백광사)
중앙문화원장 소현 무향 (천수바라무, 살풀이)
선거관리위원장 관우 (대구 약사사)
총 무 국 장 관음 **총 무 과 장** 청곡

이 사 장 혜운 (진주 봉래동 봉광사) (이사진)
중앙종회의원 범주 (양산 중부 몽불사)
수경 (김해 진영 백련암)
진우. 진여. 진설. 혜덕. 법광
총 무 부 장 정무 도일 (부산 해운대 재송 청운암)
규 정 부 장 수연 법승 (부산 금정 부곡 천왕사)
재 무 부 장 묘향 (부산 수영구 망미 반야라마)
감 찰 부 장 서암 (부산 만덕 약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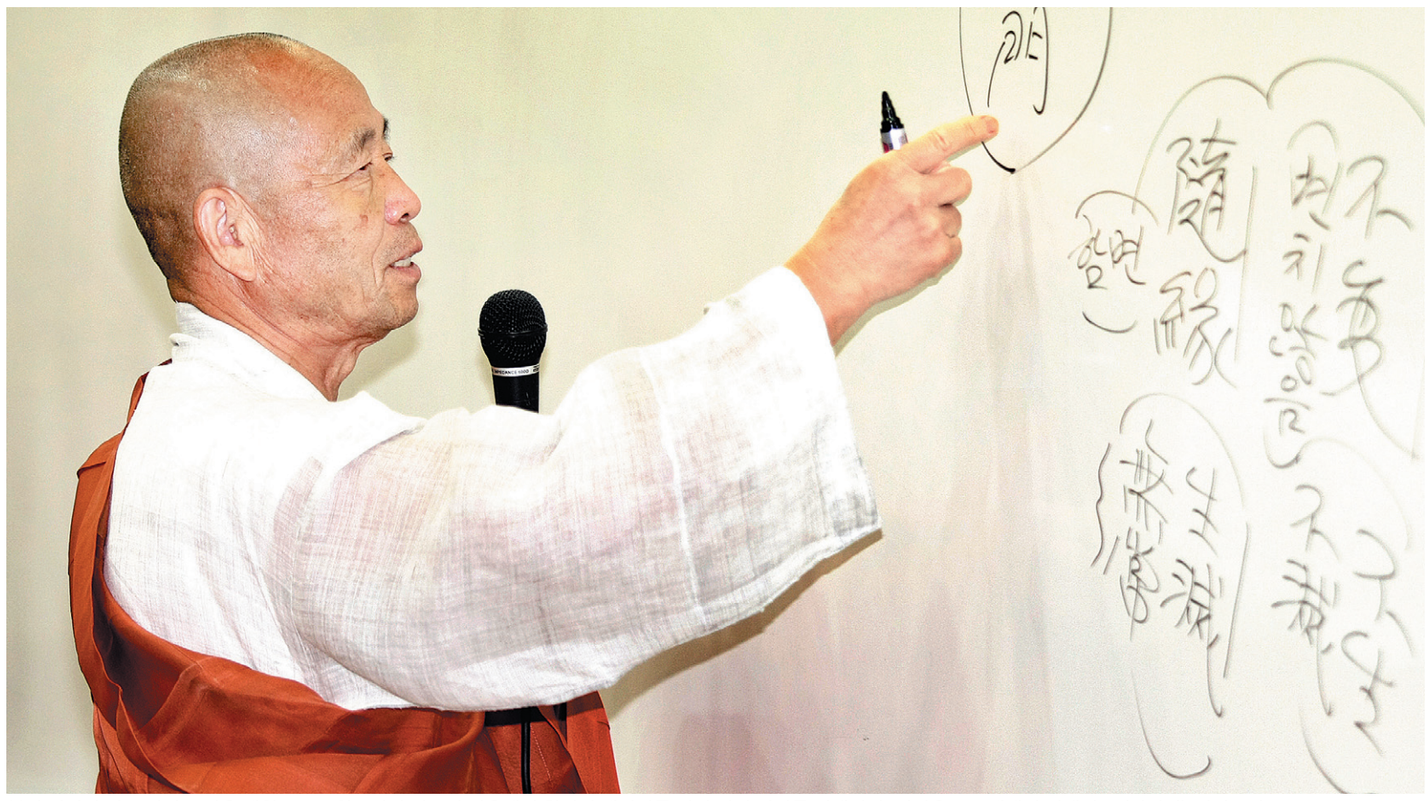
총 무 원 장 유심 성도 (부산역 관음정사)
중앙종회의장 일봉 (경주 강동 안계 관음사)
포 교 원 장 운암 (의령 봉수 문황사)
교 육 원 장 법기 (양산 원동 백림사)
감 사 원 장 청수 (양산 상북 청수사)
부산종무원장 범중 (부산 금정구 장전 법전사)
대구종무원장 의광 지현 (대구 서구 평리 약사사)
사천종무원장 무무 현수 (사천 향촌 연지암)

전국종도님, 재가법사 입종을 보살행으로 환영합니다.

종교승가 護國佛教 曹溪宗 website : bbnr.or.kr

총 본 산 : 경남 양산시 상북면 내석리 산 36번지 청운사 **총 무 원 :** 부산 동구 초량2동 207-10번지 부산역앞 / 관음정사 051)468-5657 팩스 051)442-5659
교 육 원 : 양산 원동 백림사. (사)대한불무도 수련원장 : 수연 051)516-4494. (사)보성노인대학학장 : 진공 051)465-3697
부설단체 : 051)442-5658 부산대학병원시신및장기기증모임 한국대승불교실천연합 **입종업체 :** 신라불교미술관 무상 051)808-1273. 불교음향기기 특수제작 수봉전자 수봉 051)803-0426

염불선원 건립이 마지막 발원



부산 화엄사 회주 각성 스님은 매월 1, 3주 월요일과 화요일 서울에서 학인과 재가자를 위한 경전 강의를 진행한다. 사진은 동국대에서 진행하는 〈열반경〉 강의 모습

'敎와 禪은 결코 둘이 아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선에 치중된 한국불교의 현실로 넘어갔다. 스님은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선은 부처님의 마음인데 어떻게 따로 놓고 생각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경전을 공부하지 않고는 현대인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서산대사는 〈선가귀감〉에 '방하교의 참상선지(放下敎義 參詳禪旨)'라 했습니다. '교를 잠시 내려놓고 선의 종지를 구하라'는 뜻인데, 교가 필요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면 되겠습니까? 역대 조사들의 말씀들도 모두 경전에서 비롯됐습니다. 탄허 스님은 경학을 풍시하는 종단 현실을 보고 '조계종은 무식으로 종지를 삼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는 불교대학도 생기고, 스님들 역시 많이 공부하는 편이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죠."

그렇다면 수 많은 경전 중 불자들에게 권하는 경전은 무엇이 있을까? 스님은 주저없이 〈능엄경〉을 꼽았다. 팔만 장경의 요체를 담은 것이 〈능엄경〉이라는 것이다. '소화엄경'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능엄경〉은 그 내용이 방대하고 난해하기도 하지만, 한국불교 신행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각성 스님 역시 10권 분량의 〈능엄경〉 정해본을 저술하기도 했다.

"〈능엄경〉은 인도 이외의 나라에는 전하지 말라는 당시 왕명이 있었을 정도로 소중한 경전입니다. 인도 나란다 대학에 숨겨져 있었죠. 그것이 어렵게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능엄경〉은 깨달음의 본성이 무엇이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되며, 세간의 만법이 모두 여래장묘진여성(如來藏妙眞如性)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정토 신앙을 설한 〈아미타경〉도 좋은 경전입니다. 선으로 견성성불을 하면 더욱 좋겠지만, 말세 중생에게는 염불이 극락정토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중생이 부처님을 만나는 수행법 '염불'

의외였다. 경학의 강백이 대중들의 수행법으로 염불을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염불은 대중적이지만 한국불교 내에서 위치는 미약하다. 하지만 스님은 이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강조한다. 염불수행법은 〈정토삼부경〉, 〈무량수경〉, 〈대집경〉부터 〈대승기신론〉, 〈화엄경〉까지 다양한 경전에 명시돼 있으며, 부처님이 세상에 나투셔서 상·중·하 근기의 모든 중생에게 고루 설법할 수 있게 하는 귀중한 수행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염불을 예로부터 진여자성을 여의지 않는 자성선(自性禪)이라고도 하고, 또한 모든 삼매(三昧)의 왕이라 하여 보왕삼매(寶王三昧)라고도 했다.

"〈화엄경〉 십지품의 십지보살도 마지막까지 놓지 않는 수행이 염불입니다. 염불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수행법이지, 하근기의 사람들이나 하는 낮은 수행법이 아닙니다."

이어 스님은 불자들을 위한 염불 수행법도 소개했다.

"〈관무량수경〉은 16가지로 극락세계를 눈으로 보듯이 관하고 있습니다. 아미타불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지요. 일반 범부들에게 가장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나무아미타불'을 명호하는 지명염불입니다. 화두는 의심이 안나면 번뇌망상이 끊이지 않습니다. 염불 수행은 지극한 마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명호를 소리 내 부르면 더욱 좋습니다. 늘 부처님을 떠올리는 마음, 그것이 바로 염불입니다."

그래서인가 스님의 마지막 서원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염불선원을 개원하는 것이다. 장성 수선사에 들어간 사재는 원래 염불선원 불사를 위해 모았던 재화였다. 하지만 스님이 생각하는 규모의 염불선원을 건립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했고, 결국 불교 불모지인 고향 장성에 사찰을 짓게 된 것이다.

"염불선원은 내 마지막 원력이자 서원이죠. 종단 차원에서도 여법한 염불수행 전문도량이 하나쯤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저도 나이가 있고, 도움을 주는 사람도 없네요. 물론 이생에서는 못다 이룰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꿈을 꿉니다. 전국 불자들이 염불선원에 한 데 모여 토, 일요일 용맹정진하며 염불삼매에 드는 모습들을."

이와 함께 스님은 한 가지 서원을 더 이야기 했다.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것, 분별과 다툼이 없어지는 것이다.

조계사 대웅전의 염불소리와 한 여름 매미 울음이 조화롭다. 스님은 환희 웃었다. 함께 미소가 지어졌다.

글=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거하게 취하네



동국대 명예교수

난. 난은 글자의 모양으로 보아 동쪽 창문에 두어야 잘 자라는 식물임을 알 수 있다. 난은 심산유곡에 피기 때문에 둔세적이라는 말이 붙었다. 스스로 고독을 즐기는 미덕을 지녀 인간세상에 옮겨지는 것을 지극히 꺼린다고 한다. 이러한 성질도 파악하지 못하고 마구 옮겨놓고 보려고만 하니 그들은 환경에 적응하기가 힘이 들 뿐. 그래서 난초 난(蘭) 자를 만들 때 동쪽 창가에 놓고 사귀어 보라고 하지 않았을까 한다.

지난 2월에 받은 화분이 있다. 난 화분이다. 서재에 놓고 보낸 사람의 고마움도 새기고 난의 속성을 음미하기도 한다. 깊은 골짜기에 살기에 유곡란이라 한다지. 문명의 찌꺼기 – TV·컴퓨터·책상·책·필기도구 등 – 속에 뒤섞여 있으려니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마음이 쓰여 늘상 미안한 생각이다. 에어컨 바람을 싫어하여 여름 내내 사용하지 않으니 망정이지. 난이 안도의 숨을 쉬는 듯하다. 난생 처음 기상천외의 바람이 불어재끼는 날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닥쳤으련만.

작은 배려가 갸륵했던지 꽃이 피었다. 처음에 촉이 세 대 솟았다. 큰 놈 한 촉, 작은 놈 두 촉. 거기서 각각 네 꽃부리, 세 꽃부리씩, 도합 열 꽃부리가 되었다.

마치 시방세계에 공양을 올리겠다는 결연한 의지라도 표현하듯이. 점차 아랫대부터 위쪽으로 질서를 지키며 꽃을 피워 갔다. 난의 고고함은 어디에 있다 이렇게 향기를 발산하는가. 거문고 소리가 어디서 나는가 궁금한 악사가 거문고 줄을 낱낱이 풀어 아무리 만지작 거려도 그 소리는 찾을 길 없다. 향기 또한 어느 우매한 사람이 분에서 꺼내어 뿌리를 유심히 살핀들 그윽한 향은 찾을 길이 막연하다. 규방에서 자란 아름다운 처녀나, 권세와 명성에 영합하지 않고 산속에 숨어 사는 격이 높은 선비를 유곡란(幽谷蘭)에 비유 하던가.

향은 온 방을 장식하였다. 안다미로 넘치게. 특히 외출하고 왔을 때의 방향은 감동을 준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신비를 새삼 느낀다. 마디에서 한 화관을 완성할 때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미루어 알 만하다. 줄기와 꽃부리 사이에는 바늘로 떨구어 놓았음직한 물방울이 맺혀 있다. 한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필연코 겪어야만 하는 진통일런지. 순차적으로 열 송이가 피는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아도 그 때마다 마찬가지 현상이다.

지금은 가장 늦게 핀 꽃부리에 물방울이 맺혀있다. 단순히 물방울일까. 아니야. 성실하게 소임을 다한 산고의 눈물이겠지. 동물의 왕국에서 백수의 왕 사자는 토끼를 사냥하는 데도 큰 코끼리를 습격하듯이 힘을 쏟는 것을 보았다. 상대가 없는 데도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난의 모습에서 고개를 숙인다. 인간은 보여주기 위한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봐주지 않으면 시들해 지기도 한다. 남이 알아 주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는 군자의 기상을 빼닮은 난이여. 그대는 이 시대의 스승이요, 문명에 찌든 인간의 지표가 아닐까. 행운유수하는 운수납자의 모습이기도 하다.

연못가에도 난이 꽃을 피웠다. 연못의 크기는 해가 진다고 하는 서쪽의 큰 못인 함지(咸池)는 아니지만, 나 혼자 흥겨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그만 연못이다.

난초의 산지로 유명한 복건성에서 진귀하게 여기는 최상의 품종이 진몽량(陳夢良)이다. 빛깔이 물과 같아 물에 넣으면 더더욱 양상블을 이룰 것만 같다. 어찌 혼자만이랴. 개구리도 있고 소금쟁이도 있다. 개구리는 여름밤을 알리는 전령이 되기도 하고, 소금쟁이는 물위를 달리는 스프린터이다. 긴 발만 있다고 물위를 달릴 수 있는 일은 아닌 듯하다. 몸이 가볍기 때문이리라. 지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자유스럽고 속박이 된다는 사실을 인간은 망각한 듯하다. 몸무게가 나가는 인간은 물에 빠지지 않기 위

군자의 기상 빼닮은 蘭
'행운유수' 납자의 모습

하여 온갖 소란을 피운다. 자유형, 접형, 배형 등을 익히며. 테너에서 소프라노로 음폭을 높여가는 개구리, 소금쟁이도 난향에 취했는지 넓이 뛰기까지 하고 있다.

이따끔 오르는 좁다란 이슬받이에 봉선화를 심었다. 어느 영혼인가 꽃을 감상하라고. 그리고 어느 생에선가 백반에 꽃잎을 넣고 찧어 아주까리 잎에 쌓아 물들였던 손가락도 생각해 보라고 말이다. 아니라면 이승의 어느 나그네가 오고가는 방향을 잃고 혹시 이 길을 걷게 된다면 어린날의 추억에 잠시 머물러 보라는 뜻에서 이기도 하다.

하기야 진짜 나그네는 오고 가는 쪽을 모른다고 한다. 자기 이름마저도 모른단다. 생종하처래 사향하처거라고 했지. 봉선화의 삭과(朔果)는 익으면 터져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 낼 것이고….

자연의 입술은 빨갛고 문명의 입술은 창백하다던가. 봉선화의 붉은 꽃부리는 자연의 입술임이 분명하다. 해변에 있는 몸짱들의 입술이 파래지는 것은 자연의 일탈 때문이다.

'문을 잠그면 깊은 산속이요, 책을 읽으면 어디나 정토와 같다'고 한 당나라 시인 진계유의 노래를 음미하며 오늘도 난향에 거하게 취하려네.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서비스] 검색 →
114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주·야 상담 합니다

창사 19주년 기념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고품격 여행상품
미얀마 성지순례
일 정 : 양곤 / 짜익티오 / 바간 / 헤호 7일 220만원
출발일 : 8월 20일, 9월 7일, 9월 15일 확정

■ 중 국 성지순례
지장도량(구화산, 황산)
관음도량(보타산 낙가산) 7일 135만원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119만원 / 6월23일 요금문의
■ 라오스 성지순례 고품격 6일 135만원

◎ 인도 성지순례 9일 230만원
◎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210만원
◎ 라오스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7일 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 방콕 I 파타야 5일 599,000부터
◎ 백두산 6일 529,000부터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 02)365-7747

단체명상으로 테러리즘 막는다

불교의 명상을 통해 국제테러를 72% 감소시킬 수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있어 눈길을 끈다.

범죄자 재활 신문(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은 최근 "마하리쉬 마헤쉬(Maharishi Mahesh)의 초월명상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테러 및 국제분쟁을 줄일 수 있다"며 "7000명을 대상으로 초월명상을 임상시험한 결과 전세계적으로 국제적인 충돌이 감소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7000여 명상그룹은 1983년부터 1995년까지 총 3회에 걸쳐 매회 8~11일간 초월명상에 참여했고 결과는 테러에 관한 정보와 데이터 수집 전문 기관인 캘리포니아 '랜드(Rand)' 사(社)가 분석했다. 랜드 사는 "정보 수집 결과 국가 및 국제분쟁이 30% 감소했다"고 밝혔다.

초월명상(Transcendental Meditation)은 마하리쉬 마헤쉬가 창시한 것으로 명상과 요가공중부양법을 활용한 것이다.

120여 나라서 600만 명이 초월명상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틀즈 멤버였던 조지 해리슨이 인도서 TM에 심취하면서 전세계적으로 폭발력을 얻게 됐고, 현재는 미국 유명 토크쇼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가 초월명상을 하고 있다.

현대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명상법으로 새롭게 개발된 초월명상의 방법은 간단하다. 불교의 참선이나 묵상법은 철학적 주제나 명제를 마음속에 골똘히 생각하면서 좌선에 들어가지만 이 명상법은 각자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서 자신의 만트라를 통해 입정상태에 들어간다. 이 방식으로 2006년 미국 워싱턴서 75일간 대규모 집단 초월명상이 진행된 적이 있다.

초월명상 임상실험 테러 감소

120여 국가 600만명 이용

물리학 마이스너 효과 때문



7000여 명상그룹은 1983년부터 1995년까지 총 3회에 걸쳐 매회 8~11일간 초월명상에 참여했고 결과는 테러에 관한 정보와 데이터 수집 전문 기관인 캘리포니아 '랜드(Rand)' 사(社)가 분석했다. 랜드 사는 "정보 수집 결과 국가 및 국제분쟁이 30% 감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그룹명상하는 참고자료

초월명상운동 세계본부측은 "워싱턴에서 1200명이 초월명상과 그 상급과정인 요가공중부양법을 2006년 7월 대규모로 시행한 결과 극적인 변화들이 미국과 세계에 뚜렷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본부측에 따르면 대규모 초월명상으로 7월 중순 배럴 당 78달러까지 치솟던 유가는 25%이하인 58달러 떨어졌고, 당시 미국이 중개한 레바논 사태가 종결됨으로써 폭력 위험성을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세계적인 양자물리학자 존 헤글린(John Hagelin) 박사는 "국가 인구 1%제곱근에 해당하는 인원이 단체로 초월 명상을 하면 범죄나 폭력 등 국가의 부정적 기류는 감소하고 경제와 사회가 긍정적으로 개선된다"며 "이 사실은 희망이 아니라 지난 50년 간 현장실험에서 입증된 엄밀한 과학"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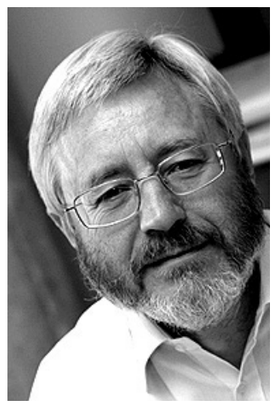
헤글린 박사는 "이는 물리학의 마이스너 효과(Meissner Effect)로 설명할 수 있다. 초전도체(超傳導體)가 그 내부 원자들의 강력한 통합력을 바탕으로 외부에서 침투하는 모든 영향을 물리치는 현상"이라며 "수행자들이 국가의식 속에 통합력을 증가시킴으로써 테러, 분쟁, 허리케인 같은 파괴력을 물리치고 국가에 미칠 손해를 예방하는 것도 이와 같은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초기경전 서술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세계의 불교학자(26)

요한네스 브롱코스트
스위스 로잔대 교수



요한네스 브롱코스트(Johannes Bronkhorst · 66) 스위스 로잔대 교수는 인도 사유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산스크리트어의 토착 문법, 고전 힌두이즘의 종교적 관념, 자이니즘과 불교의 분야에서 철학 · 학문적으로 역점을 두고 있다.

브롱코스트 교수는 영어, 불어, 독어, 네덜란드어 등 4개국어를 유창하게 하며 산스크리트어, 빨리어 등의 문헌을 다룬다.

1980년 이래 그가 발표한 114편의 논문들이 영어, 독어, 불어 네덜란드어 등으로 발행되는 세계 유수 저널들에 실릴 정도로 그의 활동영역은 국제적이다. 그가 언어적 감각을 지니게 된 것은 그의 출신국가 때문도 있지만 대학졸업 후 떠난 인도 유학에서 기인한다.

네덜란드 출신인 브롱코스트 교수는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하고 고등학교 교사로 활동했다.

1960년대 후반 그는 인도 뿌나로 유학을 떠나 산스크리트어와 빨리어를 공부했다. 1979년 문법학 분야를 주제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1980년 라이덴 대학에서 '빠니니 문법학의 이론적 측면' 이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라이덴 대학의 케른(Kern) 연구소 연구원을 시작으로 런던대학 SOAS의 산스크리트어 강사를 거쳐서 1987년 스위스의 로잔대학 범어학 인도학교수로 임용됐다.

1997년에는 파리의 고등연구원(Ecole Pratique des Hautes Etudes)에서, 1999년에는 미국 켈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서, 그리고 2000년에는 런던대학 SOAS에서 강의했다.

브롱코스트 교수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Theoretical Aspects of Panini's Grammar〉(1980), 〈The Two Traditions of Meditation in Ancient India〉(1986), 〈The Two Sources of Ancient Indian Asceticism〉(1993)이 있고 대표적인 논문으로 'Dharma and Abhidharma' BSOAS (1985) 등이 있다.

브롱코스트 교수는 초기경전의 서술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다.

그는 1985년 발표한 논문 '다르마와 아비달마'에서 "초기불교에 관한 어떤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초기경전 만으로는 신뢰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가능한 모든 초기 부파불교의 문헌들과 자이나로 대표되는 비불교적인 문헌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초기경전의 서술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1986년 브롱코스트 교수가 출판한 〈고대인도의 두 가지 선정수행전통〉은 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책에서 그는 선정사상에 대한 고대인도의 자이나 불교 및 브라만 자료들에 대한 폭넓은 조사를 통해 불교의 초기경전에 나타난 선정에 대한 서술들에 얼마나 다양한 요소들이 혼재해 있는가를 보여주면서 이들의 상호영향관계를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쟁점이 되는 문제들을 대칭시켜 선명하게 논의하고 있다.

영·독·불 등 4개국어 능통

산스크리트어 빨리어 문헌 다뤄

고대 인도 선정사상 연구

또한 브롱코스트 교수는 〈인도 고행주의의 두 가지 근원〉이라는 책을 통해 고대인도 선정사상연구에 몰두했다. 여기에서 그는 인도 고행주의의 기원 및 고행주의에 관련된 철학적인 논의들을 심도 있게 다뤘다.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종교적 수행과 철학적 대화를 인도철학의 맥락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접근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브롱코스트 교수는 1998년 한국에서 열린 무차선회에 참석차 내한 한 적이 있다. 당시 그는 교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불교의 수행전통을 보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만 몇몇 학자들의 지나치게 호교적인 태도와 경전에 나타난 언급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에 조금은 놀랐다"며 "아비달마를 포함한 초기불교의 문헌들은 불교 내부의 다른 판본들과 자이나 및 우빠니샤드의 문헌들과의 검토를 통해 비판적으로 검증됐을 때에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나은 기자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 세계최대 불교사원으로 기네스 등재

인도네시아 대표적 관광 자원 중 하나인 중부 자바 마겔랑의 보로부두르 사원이 세계 최대 불교 사원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7월 5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관광 · 창조경제부 푸르노모 시스워프라세초 보로부두르-프람바난 관광국장은 "기네스월드레코드(GWR)가 최근 보로부두르 사원을 세계 최대 고대 불교사원으로 인정했다"고 전했다.

기네스월드레코드는 홈페이지에서 "중부 자바 족자카르타 인근의 보로부두르는 750~842년 건설된 세계 최대 불교사원"이라며 6만㎥의 석조물이 가로, 세로 각각 123m, 34.5m 높이로 솟아있다고 소개했다. 사일렌드라 왕조 시대에 건립된 이 사원은 정사각형 기단 위에 검은색 화산암을 쌓아 올린 구조물로 사원 벽면에 불교 사상을 전하는 부조 1460개가 새겨져 있다.

보로부두르 사원은 1991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으며 국제적으로도 중부 자바와 족자카르타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지난해 보로부두르 사원을 찾은 관광객이 모두 250만명으로 전해보다 15% 증가했고 올해 1분기 관광객도 작년 동기보다 16%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 최대 불교사원으로 인정받은 보로부두르 사원

이나은 기자

美CIA, 1950년대 티베트 독립운동 지원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1950년대 티베트 독립운동을 직 · 간접적으로 지원했다고 중국 언론 매체들이 최근 독일 신문을 인용, 보도했다.

베이징천바오(北京晨報)는 독일의 중도 좌파 성향의 일간지인 쥐트도이체 차이퉁(SZ)의 보도를 인용해 CIA가 1950년대 티베트 무장 독립 세력에 매년 18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1951년 미국은 인도에서 달라이 라마의 특사와 접촉해 티베트 독립운동 세력의 '경무장'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CIA는 미국으로 티베트 유격대원들을 불러와 사격, 지뢰 매설, 폭약 제조 등의 훈련도 시켰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듬해인 1949년 중국은 군대를 보내 티베트를 합병했다.

그러나 1959년에는 티베트 곳곳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대규모 봉기가 일어났고 진압 과정에서 최소 수천명이 희생되면서 달라이 라마가 인도로 망명하게 됐다.

이나은 기자

중국 쓰촨성서 티베트 승려 또 분신

티베트 승려들의 분신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7월 17일 18살의 젊은 승려가 분신했다고 티베트 망명정부가 밝혔다.

인도에 있는 티베트 망명정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쓰촨성 바르캄의 한 사원 소속의 승려 롭상 로진이 어제 중국정부의 강압적인 행동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며 관공서로 행진하면서 분신했다고 알렸다.

망명정부측의 한 관계자는 "현지 티베트 주민들이 경찰의 사원 진입을 막기 위해 사원으로 통하는 모든 교량과 길을 철저히 봉쇄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티베트 지배에 항의해 분신한 경우는 지난 2009년 이후 이번이 벌써 44번째다.

인권그룹 '프리 티베트(Free Tibet)'는 "이번 분신 사건을 계기로 티베트 미래 문제를 티베트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압력을 가해야 한다"며 중국의 강경 조치에 항의했다.

이나은 기자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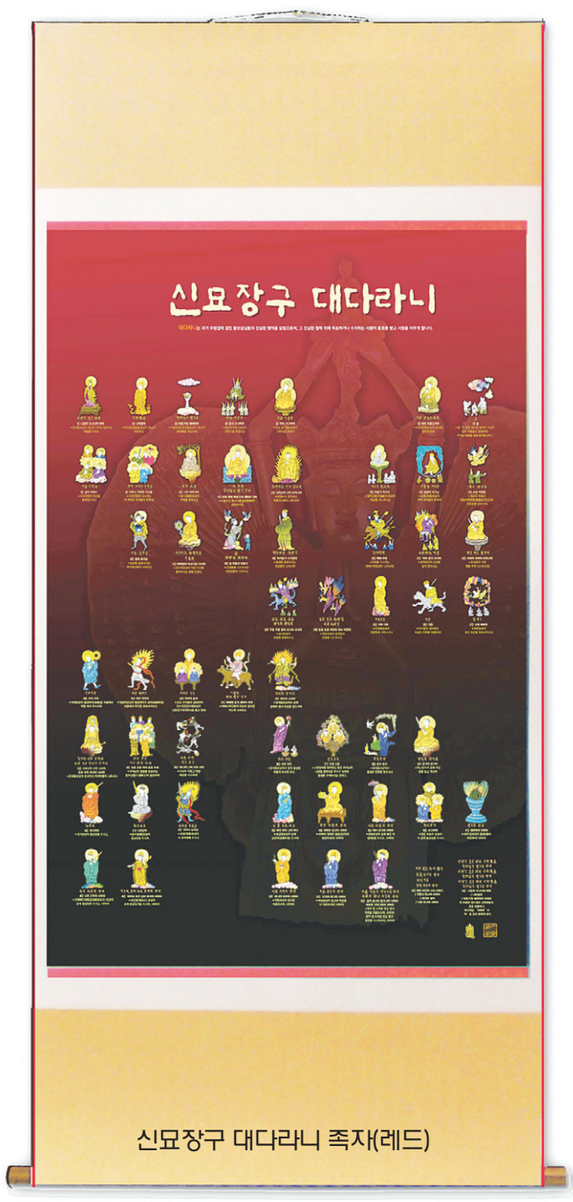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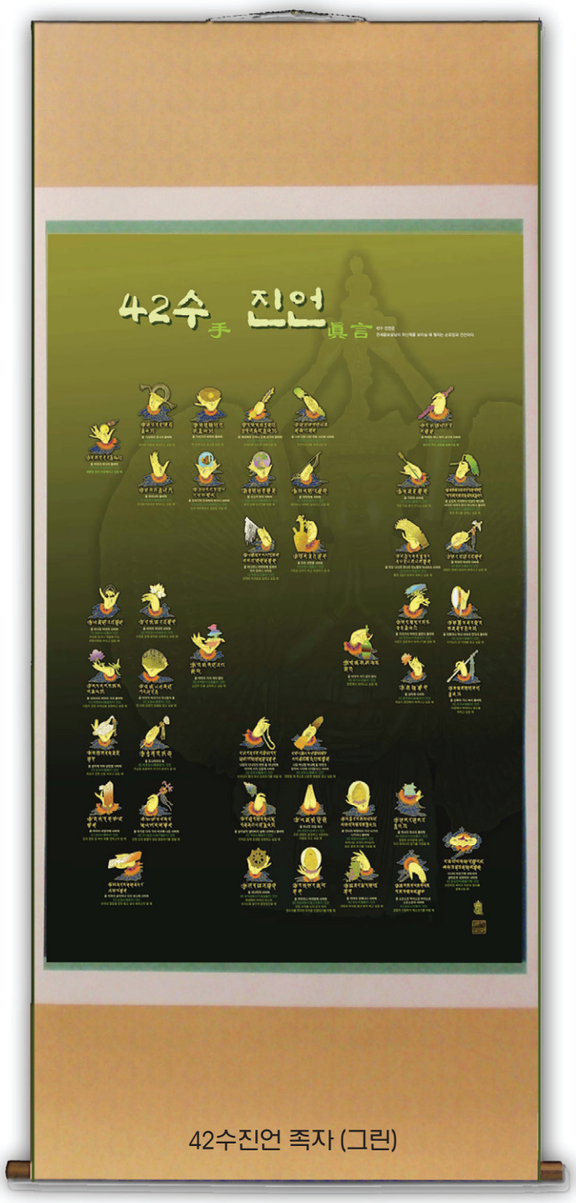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진언

그림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쟈못쟈'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그린, 레드』 사찰용(65x145cm) 100,000원
가정용(45x110cm) 70,000원

- 색상과 사이즈를 선택하세요.
- **특별증정**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검소한 삶이 수행의 근본

오유지족(吾唯知足) 소견


석주 스님의 '오유지족'

한국 불교 현대사를 온 신심(身心)을 다해 살아가신 조계종의 큰 어르신이었던 석주(昔珠)스님께서 가장 많이 쓰신 글이 바로 오유지족이다. 그대로 직역하자면, '나는 오직 만족함을 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신도들이 글을 받으러 오면 부자가 되는 글이라 하셨다 한다.

석주 스님은 조계종의 총무원장을 두 번이나 역임하시고, 역경원을 설치하여 한국불교사 사상 최초로 대장경을 한글로 완역하시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이다. 그뿐 아니라 포교를 위해서는 항상 글을 써주시고 전시회를 통해 모금한 돈은 전액 불사에 쓰셨다.

스님은 종교 법정 공휴일이 오로지 기독교의 크리스마스만 존재할 당시에

배고픔 면할 수 있다면 행복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해
법정스님 무소유 되새겨야

석가탄신일인 4월 8일도 공휴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공휴일로 지정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다. 결국은 초파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힘쓰신 분도 석주 큰스님인 것이다. 1926년경 석주 스님은 선학원(禪學院)에서 만해(萬海) 스님을 모셨는데 그때가 만해 스님의 시집 〈님의 침묵〉이 출간된 해였다. 그 당시는 〈님의 침묵〉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인데, 시집을 들고 책방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시집을 팔았던 장본인이 바로 석주 스님이었다.

석주큰스님은 말씀하시길 "부처님께서도 열반에 드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 하셨어. 만족할 줄 알면 맨땅에 누워 있어도 안락하고 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극락에 가서도 불안하게 살아"라고 하시며 오유지족을 해설하셨다.

그럼 이 사진의 오유지족(吾唯知足)은 왜 이렇게 쓰셨을까? 입 구(口)자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뜻하는 오(吾), 오직을 뜻하는 유(唯), 알 지(知), 만족할 족(足)을 상하좌우로 쓰신 이 글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깊은 뜻을 지니고 있다. 잘 살펴보면 입 구(口)자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은 만족의 핵심은 입에 있다는 것을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꼭 필요한 의식주 가운데 있는 글자가 식(食)이라는 것은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를 보여준다.

비록 남루한 옷을 입더라도 추위를 피할 수 있으면 되지 구태여 브랜드가 있는 값비싼 옷을 입을 필요는 없다. 내 분수에 맞지 않는 비싼 옷은 사치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복(福)을 감할 뿐이다.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일곱 자 되는 방 하나 만 있으면 충분히 수행하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호화로운 목욕탕을 들이고 값 나가는 수입대리석으로 화려한 집을 지을 필요는 없다. 아무리 화려한 불사를 하더라도 결국 사찰이란 수행하고 부처님을 모시는 공간일 뿐이다.

그렇다면 결국, 배고픔을 면할 정도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만족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배고픔을 해결하면 그 때부터는 공부도 하고 참선도 하고 포교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입 구(口)를 가장 중심에 두고 만족함을 얻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 '무소유(無所有)'라는 글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생존에 필요한 물건 이외에는 수행에 필요한 것은 별로 없는 법이다.

검소한 삶을 통해 항상 우리들을 일깨워 주셨던 큰스님들이 오늘따라 무척이나 그립다. 보살의 원력으로 다시 사바세계에 오셔서 우리들을 제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양심에 귀 기울이면 세상의 진실 보여

다큐 '두 개의 문' 김일란 감독




다큐 영화 '두개의 문'이 관객 5만을 돌파했다. 이 영화는 경찰 특공대의 시선으로 용산 참사를 다뤄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용산 참사 특공대 시선으로 기록
6만 관객 돌파 '용산 다시 기억'
총무원장 자승스님 관람 후
희생자 위로하는 천도재 제안

"제가 영화를 만드는 이유는 유명해지기 위해서나 대박을 내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지요. 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다 보면 제가 어떤 영화를 만들어야 할지도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영화와 일상의 문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김일란 감독〈사진 왼쪽〉은 자신이 영화를 만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다큐영화 '두 개의 문'(감독 김일란 · 홍지유)이 6만 관객을 넘어서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찰 특공대의 눈으로 바라본 용산참사라는 독특한 설정으로 시선을 끈 이 영화는 지난 7월 24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종무원들이 특별 관람하기도 했다.

불교계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던 용산 참사를 기록한 '두 개의 문'을 만든 김일란 감독은 사건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동시에 희생자들을 위로해주고 싶었다고 말한다. "관람을 온 자승 스님께 참사 현장 남일당에서 꼭 천도재를 열어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영화를 만들며 이 문제는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을 위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보상금 등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주는 일이죠. 그리고 필요한 일은 세상의 진정한 사과와 위로입니다"

영화는 2009년 1월 20일 밤 용산 철거민 현장에 투입된 경찰 특공대의 투입작전 현장 영상과 그들의 법적 증언 기록이 오버랩되면서 사건의 진실을 풀어간다.

화재 발생, 철거민 5명 경찰 특공대원 1명 사망, 철거민 7명 구속 기소. 생존권을 호소하며 망루에 올랐던 철거민들은 25시간 만에 싸늘한 시신이 되고 살아남은 이들은 범법자가 됐다. 불법 폭력시위가 참사의 원인이라는 검찰의 발표, 공권력의 과잉진압이 참혹한 사건을 만들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부딪히는 가운데, 진실 공방의 긴 싸움은 법정으로 이어진다. 유가족 동의 없는 시신 부검, 사라진 3000쪽의 수사 기록, 삭제된 채증 영상, 어떠한 정보도 하달 받지 못했다는 경찰의 증언… 과연 그날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처음부터 영화를 제작하려는 의도로 자료를 수집한 건 아니었어요. 어느 누구도 진실을 밝히려고 하지 않는 이 사건을 알리는 게 우선이었죠. 이후 용산참사를 영화로 만들기로 결정하면서 특공대의 시선으로 가보자고 했죠. 가해자의 시선을 통해 피해자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 둘 모두가 피해자이며 결국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영화는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고통을 호소하는 기존의 방식을 탈피해, 특공대의 법정 기록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해 그날의 현장을 생생하게 말해준다. 이 방식은 객관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사건의 참상을 관객들에게 알리는 데 큰 공헌을 한다.

영화를 본 시민들은 남일당 현장에 모여 촛불 추모제를 열기도 하고 국화꽃을 놓고 가기도 한다. 결국 대법원이 2010년 11월 망루 생존 철거민 7명에게 원심 확정 판결을 내리며 용산의 참상을 덮으려고 했지만 한 편의 영화가 다시 용산을 기억하게 한 것이다.

김 감독은 여성주의 미디어 공동체 '연분홍 치마'에서 활동하며 〈3XFTM〉(2008년) 〈종로의 기적〉(2010년) 등 사회적 약자를 주인공으로 한 다큐 영화를 만들어 왔다. 그녀가 이렇게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모두가 양심 때문이라고 말한다. "양심에 귀 기울이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기보다는 진실을 이야기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녀는 작품을 만들 때는 정말 철저하게 완벽주의자가 된다. "다큐는 그냥 평범하게 살 수도 있었을 주인공의 인생에 제가 끼어든 거잖아요. 제가 의도한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해 섭외한 인물인 만큼 그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매우 엄격해야 돼요. 주인공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 안고 간다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하고 있죠"

영화 개봉을 하기 전인 1월에 어머니와 함께 충남 서산 간월암에 다녀왔다는 김 감독. 그때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그녀는 오늘도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고 있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조선왕실의 혼례를 엿보다"

의궤, 영남 지역 최초 공개
9월 9일까지 대구박물관서

국립대구박물관 '외규장각 의궤와 조선왕실 혼례이야기'가 9월 9일까지 국립대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특별전은 1866년 병인양요 때 약탈되었다 지난해에 우리 곁으로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를 중심으로 한다.

조선왕실 의궤는 국가와 왕실의 주요 행사 기록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역사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7년에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됐다. 특히 이번에 전시된 외규장각 의궤는 대부분 국왕의 열람을 위해 제작한 어람용(御覽用)으로 영남지역에서는 최초로 공개된다.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정조건릉천봉도감의궤, 인조국장도감의궤, 인선왕후국장도감의궤 등 외규장각 의궤 22점을 비롯해 보물 제1632-1호 정조어필과 기축진찬도, 영조옥책 등의 왕실 관련유물이 공개된다.

1부 '외규장각 의궤'에서는 정조대에 규장각에서 편찬한 조선시대의 우수한 기록물이 전시된다. 또한 병인양요 당시 외규장각 의궤가 프랑스로 약탈된 후 2011년에 반환 받기까지의 과정도 살펴볼 수 있다. 조선왕실 행사 중 경사와 장례 관련 의궤를 공개함과 동시에 의궤 제작과정도 전시된다.

2부 '조선왕실 혼례이야기'에서는 의궤의 용례를 살펴볼 수 있다. 왕실혼례의 기록인 가례도감의궤를 중심으로 조선왕실의 혼례과정을 재구성했다. 특히,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반차도를 횡권으로 제작해 왕실 혼례 행렬의 전체 모습을 재현했다.


정조건릉천봉도감의궤

〈사도세자가례도감등록〉과 〈한중록〉에서는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의 혼례를 살펴볼 수 있다.

정혜숙 기자

since1973
2013년 불교달력 특별가격



연꽃이있는풍경(小/12절) 800원
3,000부 이상 @
• 200부이상 @1,000원
• 규격 : 25.8cm×26.5cm
• 사찰에서 선호하는 기본 사이즈입니다.



천진미소(大/6절) 1,100원
3,000부 이상 @
• 200부이상 @1,300원
• 규격 : 30.5cm×31cm

종이영가옷 / 예수재함 / 종이신발



B형-남 정가 1,300원 B형-여



동남 정가 1,000원 동녀



수자영가옷 정가 900원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금강경탑다라니 정가 250원



예수재함A (50개 1박스)



예수재함B (50개 1박스)


금강호신경
1000조 @160원
대량주문시 전화주세요.


종이신발(남/여) 1켤레
100개이상 할인가 1,300원
정 가 1,600원


한지접은 영가옷/위패
각1000개 @250원
• 남자/여자/위패


인쇄접은 영가옷/위패
각1000개 @250원
• 남자/여자/위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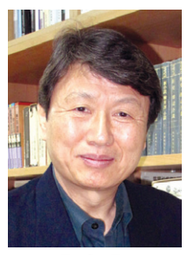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여름 산사 추억

만해 닮은 스님을 만나다



그림 · 강병호



권 영 민
문학평론가.
단국대 석좌교수

백담사의 여름이야기

설악의 백담 계곡은 언제나 아득하다. 여름 산사의 정취를 이곳처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은 다시 없다. 골은 깊고 물이 빠르고 산은 높푸르다. 그러나 험준한 설악의 계곡임에도 골골이 사람을 품을 만큼 넉넉하다. 여름내 계곡의 물이 넘쳐흐르는 소리가 서늘한 바람을 일으킨다.

벌써 10년이 넘었다. 백담사에서 처음 만해 축전을 열던 해였다. 나는 백담사를 찾았다. 만해 한용운의 문학을 새롭게 평가하는 심포지엄에서 나도 논문 하나를 발표하게 되어 있었다. 만해 한용운 1919년 3.1운동을 주도했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두 해 넘게 투옥되었다.

그가 서대문형무소에서 출감한 후 다시 찾은 곳이 바로 이 백담사다. 그는 여기서 시집 〈님의 침묵〉(1926)의 시들을 썼다. 시집 〈님의 침묵〉은 지금까지도 그 창작 배경이 베일에 싸여 있다. 정규 학교에서의 수학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던 만해가 일상적인 한국어를 이용하여 써내려간 89편의 시들은 그 시적 형식과 주제에 있어서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운 폭과 깊이를 가졌다. 이 깊은 계곡의 산사가 한국문학 최고의 문제작을 만들어내 문학적 성소(聖所)가 되었다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 "평론이란 허망한 언어의 그물질이죠"

> "어쩌면 나 자신이 해 오고 있는 문학공부의 허점을 그대로 지적하신 것 같기도 하였다. 나는 그만 기가 죽었다."

백담사 경내를 들어서면서 나는 만해 한용운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런데 나는 이 산사에서 뜻밖에도 아주 소중한 노스님 한 분을 만나뵙게 되었다. 허름한 승려복의 그 노스님은 마치 만해의 형상처럼 그윽했다. 그 노스님은 일행과 함께 경내로 들어서면서 합장하는 내게 무얼하는 사람인가 물었다. 나는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문학평론을 한다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이 스님은 내 말을 듣고는 크게 웃는다.

"쓸데없는 공부에 매달려 계신 분이구먼. 문학평론이라…"

나는 깜짝 놀랐다. 처음 뵙는 분인데 이런 식의 대화에 내가 어떻게 응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그저 웃고 말았다.

"평론이라는 것은 그럴 듯해 보이기는 하지만 참 허망하기 짝이 없는 언어의 그물질이지요. 바탕 자체가 없는 글이니까요."

나는 어이가 없다. 비평활동을 그래도 수십 년간 해오면서 이런저런 책을 내기도 했는데, 이 노스님은 그것을 허망한 그물질이라고 지적하신다. 내 표정이 굳어 있다는 것을 눈치 채셨는지 그 노스님이 내게 다시 한 마디를 더 하신다.

"글이란 자기 혼이 담겨야 제 글이지요. 그런데 평론이라는 것은 남이 만들어 놓은 방법이라는 것을 빌어다가 남의 작품 가지고 왈가왈부 시시비비만 하지요. 그러니 허망할 밖에요. 옛날이야기가 있어요. 계곡의 깊은 못에 커다란 물고기가 간밤 폭포를 타고 오르면서 용이 되어 승천했지요. 그런데 거기 무어가 남아 있을 거라면서 사람들은 그 물속으로 그 물을 던집니다. 물고기는 이미 승천했는데 그 물에 무어가 걸리겠습니까?"

노스님은 말씀을 마치면서 '그냥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하고는 내 손을 잡아주신다. 나는 노스님의 말씀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다. 어쩌면 나 자신이 해 오고 있는 문학공부의 허점을 그대로 지적하신 것 같기도 하였다. 나는 그만 기가 죽었다. 백담사 계곡의 물소리만 산중에 가득했다. 나는 고개를 들고 산등성이로 눈길을 돌렸다. 설악의 높은 봉우리에 안개구름이 띠를 둘렀다. 설악의 진면목이 드러났다. 나는 마치 크게 한번 '할방'이라도 당한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그 노스님이 궁금했다. 일행 가운데 한분이 가만히 내게 알려준다. 설악산 신흥사의 회주이신 무산 조오현 스님이란다. 나는 또한번 화들짝 놀랐다.

큰스님과의 이 첫 만남이 큰 인연이 되었다. 나는 매년 여름 백담사를 찾는다. 지금은 인제에서 내설악으로 들어가는 길이 고속도로처럼 정비되어 있지만 백담 계곡은 여전히 깊다. 거기 설악에 만해 한용운을 닮은 큰스님이 지켜 계시고 만해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서 백담 계곡을 흘러넘친다.

"풀리지 않는 역사의 恨…렌즈에 담아"

위안부 할머니 기록한 안세홍 사진전 '겹겹'

96년 사진작가 안세홍 씨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있는 나눔의 집을 방문하게 된다. 한 잡지사의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면서 촬영차 방문을 한 것이었다. 하지만 나눔의 집을 다녀온 이후 거기에 살고 있는 할머니들이 자꾸만 생각이 났다. 아니 마음이 쓰였다. 그리고 그는 나눔의 집을 다시 찾게 된다. 이번에는 사진작가가 아니었다. 허드렛일도 도와주고 할머니들의 말벗도 돼 주는 자원봉사자였다. 그렇게 3년 봉사 활동을 하며 그는 할머니들이 얼마나 가슴 속에 많은 얘기를 담고 있는지 주체할 수 없는 아픔과 한이 서려 있는지 알게 됐다.

이렇게 시작된 그의 사진작업은 역사의 진실 또 아픔을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때부터 그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찍어나가기 시작했고 그들을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는 사명감도 갖기 시작했다. 이것이 안세홍 작가가 이끄는 겹겹프로젝트의 시작이다. 미얀마 수행센터에서 몇 달간 머무르며 수행하기도 했던 그는 '화엄경'의 '중중무진법계연기(重重無盡法界緣起)'의 '重重'에서 '겹겹'이라는 이름을 따왔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사진전과 강연회, 기록 등을 통해 그들의 존재를 인식시키고 관심을 모으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나선 것이다.

안세홍 사진전 '겹겹-중국에 남겨진 조신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8월 7일부터 26일까지 종로구 류가헌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안 작가가 2001년 이후부터 중국 흑룡강, 연변, 북경, 산둥반도 등에서 살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를 찍어온 작품 37점이 공개된다.

> 중국에 남겨진 할머니 모습 담아
> 역사적 진실 세상에 알리고자
> 8월 7일부터 종로구 류가헌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도 중국에 남겨진 위안부 할머니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중국 방문을 결심했습니다. 처음 할머니들을 만난 이후 그 안타까운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에서 사방에 널브러진 손때 묻은 물건에서 글썽이는 눈망울에서 할머니의 한 맺힌 가슴을 보았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들은 그렇게 남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가는 자신이 수차례 중국행을 택해야 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겹겹프로젝트의 첫 번째 사진전 〈겹겹〉은 올해 일본 도쿄와 오사카 니콘 살롱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니콘의 모회사인 미쯔비시의 정치적 압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취소됐고 도쿄 사진전만이 개최됐다. 이 사진전은 관람객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새롭게 볼 수 있게했다.

안 작가는 "일본인들은 지금까지도 위안부들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겹겹 사진전은 그런 일본인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고 전한다. 앞으로 겹겹프로젝트는 일본의 여러 도시를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서 사진전과 강연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9월 오사카, 10월 도쿄, 11월 나고야 등에서 전시가 계획돼 있으며 국내에서는 9월초 광주, 9월 말에는 대구전시도 열릴 예정이다. 안 작가는 "필리핀 인도 동티모르 미얀마 말레시아 등에도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이제 중국을 넘어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분들의 촬영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역사적 현실을 알리는데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02)720-2010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안세홍 작가는 8월 7일부터 중국에 남아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담은 사진전 '겹겹'을 연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역사적 진실을 알려나갈 예정이다.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정맥선원 여름수련회
77조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 78대 대원 전법선사님께서 주재하시는 정법도량, 국제정맥선원이 여름수련회를 개최합니다. 명안종사인 대원 선사님의 법융선사심명 법문과 참선수행이 있습니다. 대원 선사님의 법문을 직접 들어 깨달아 생사해탈할 정법의 인연을 맺으십시오.
* 모든 종파와 종교를 초월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 시 : 8월 11일(토) 오전 11시 ~ 8월 15일(수) 오후 2시
장 소 : 국제정맥선원(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14번지)
회 비 : 1인 10만원 / 가족할인 1인당 8만원
준 비 물 : 세면도구, 간편복장 (발우 대여)
전 화 : 031-534-3373 / 010-6431-8805
홈페이지 : www.zenparadise.com
* 여름수련회로 인해 8월 전국법회는 쉽니다.

자성(自性)을 밝히고
세상을 구원하는 '빛과 소리'

빛과 소리
– 관음선 수행이야기
석암스님 지음
46판 | 흑백 | 392쪽 | 12,8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빛과 소리' 통해 내면과 우주 통합하는 관음선!
고난에서 벗어나 깨달음 얻는 '관세음보살' 염불
조계종 은해사로 출가, 남해 보리암에서 염불수행을 시작해 운부암, 태안사, 대승사 등 제방선원에서 참선한 저자는 월악산 한 암자에서 관음염불로 각고(刻苦) 정진하던 중 삼매(三昧) 속에서 마음의 눈을 떴다. 최근 강원도 양구에 관음선원(070-4215-4163)을 창건, 수행과 전법에 매진하고 있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소원성취 인등 및 사리함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크리스탈 인등
A/S 법당 전선 10년 외곽 전선 5년
불제세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범당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아주 밝은 건전지 초 (LED용)
LED전구, DC 9V 백색 · 노랑 · 빨강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유교의 궁궐 안에서 불교에 매달렸던 임금



문 없는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
허관 지음
현대문학 펴냄
1만3천원

2011년 '현대문학' 신인 추천 장편소설 부문에 당선한 허관의 역사소설 〈문 없는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다. 친족과 수많은 공신들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세조의 이야기를 소설화 했다. 권력을 향한 집착과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힘겹게 살아야만 했던 시간들과 삶의 끝에서 참회하는 세조의 모습을 단종애사의 역사와 함께 그렸다.

병 치료를 위해 세조는 오대산 상원사로 원행을 떠난다. 조카를 몰아내고 임금의 자리에 오른 세조와 그를 왕위에 앉히기 위해 모사를 꾸민 한명회, 그 과정의 한 가운데 있었던 영의정 신숙주와 김시습, 신미대사 등 실존했던 인물들이 등장한다. 정사와 야사와 픽션이 교차한다. 이 소설의 매력 중의 하나는 독백처럼 읊조리는 인물들의 대화다. 자기 발로 온전히 세상을 딛지 못하고, 늘 세상과 안타까운 거리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대화 속엔 부처님께 기댄 흔적들이 영력이 보인다. 또한 촘촘한 이야기 위에 인물들을 생생하게 살려놓음으로써 역사의 현장성을 살렸다. "전하의 병은 기가 혈과 함께 돌지 못하여 뭉쳐서 생긴 병입니다. 전하의 마음속 그 무엇이 기를 꺾고, 혈을 막고 있습니다. 전하의 마음을 달래든지 죽이든지 버리든지 해야 합니다." 세조는 말을 참았다. 다시 신미대사가 말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은 세상을 담고도 남지요. 그 큰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달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완강하게 대드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혼란스럽거나 괴로울 때는 그냥 내버려두면 제풀에 지쳐 다시 고요해지지요. 그러나 전하의 마음은 이미 전신에 흐르는 기에 독이 가득하여 자정의 한계를 초과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마음을 다스려 기속의 독기를 풀어봄이 좋을 듯합니다." 세조는 아팠다. 심한 피부병에 시달리던 세조가 병을 고치고자 법주사 큰스님인 신미대사를 만나면서 소설이 시작된다. 신미대사는 부처님의 가피로 마음을 다스려 병을 고쳐야 한다며 임금에게 불교성지인 오대산 상원사 불사와 문수동자상 조상(造像)을 권유한다. 세조는 신미대사의 권유를 받아들이고, 1년 후 부처님 오신날 동자상 점안식에 참석하고자 오대산 상원사로 원행을 떠난다. 한편 세조가 조카의 왕위를 빼앗아 임금에 자리에 오르자 머리를 깎고 10년간 유랑했던 김시습은 세조의 원행 소식을 듣고 세조 암살 계획을 세운다. 김시습은 고려의 정통성을 찾으려는 세력들과 함께 오대산으로 숨어들어 임금을 살해하려 한다. 세조가 2천여 명의 호위 군사를 거느리고 오대산에 머무는 7일 동안 수시로 임금의 목숨을 노리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한편 신미대사는 윤씨 부인, 무구, 창하 등 10여 년 전에 세조가 왕위를 노리고 일으킨 계유정란과 관련된 사람들을 점안식에 초대한다. 드디어 점안식 날 이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문수동자상의 얼굴이 드러나고, 큰스님이 왜



세조가 원행을 갔던 오대산 상원사의 옛 모습.

조카의 왕위 빼앗고 괴로웠던 세조
부처님의 힘으로 괴로움 벗고 싶어해

오대산 깊은 산골까지 임금을 비롯해 사람들을 모이게 했는지 밝혀진다. 소설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서사와 세조, 한명회, 신숙주, 김시습 등 역사적 인물의 섬세한 내면을 교차시키면서 비극적인 역사를 입체적으로 그린다.

"저들을 보아라." 마당에는 임금, 영의정, 상당군이 나란히 서서 오대골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동안 난 저들을 가까이서 오래 보아왔다. 물론 그때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궁궐에서 저들을 지켜봤지. 그리고 10여 년이 흘렀다. 그런데 저들은 같은 사건을 모의하고 일으켰으면서도 그 사건을 놓고 각기 생각이 다르구나. 임금은 그때의 일로 스스로 큰 죄를 만들어 용서해 달라고 저리 부처님을 붙잡고 애걸하고, 영의정은 그때의 일이 정치이며 그 속에 나타난 어쩔 수 없는 것이므로, 죄도 잘못도 없다고 생각한다." 절을 짓고 동자상을 만들며 몸과 마음의 병을 다스리려했던 세조를 통해 저자는 '진정한 용서'란 무엇이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용서'의 의미를 묻는다.

세조는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불교를 선호하여 세종의 불서 편찬과 불경 간행을 도왔다. 그리고 왕위에 오른 뒤에는 과거의 죄를 참회하기 위해 더욱 불교를 가까이 했다. 그가 재위시절 간행한 불경만 해도 〈묘법연화경〉 〈속장경〉 〈화엄경론〉 〈대방광불화엄경론〉 등 다수가 있고, 한글번역 불경으로는 〈능엄경언해〉 〈법화경언해〉 〈선종영가집언해〉 〈금강반야바라밀다경언해〉 등 다수가 있다. 이를 위해 간경도감을 유교의 조선 궁 안에 설치했던 것이다. 세조는 상원사 행차 2년 후에 죽었다. 그의 나이 52세였다. 세조는 유교를 숭상하는 조정대신들과 유생들이 우글거리는 궁궐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위로하기 위해 부처님께 매달렸던 임금이다.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저자는 소설에서 세조를 비롯한 당시의 인물들을 '문 없는 문'으로 들어간 '사람 들'로 은유했다. 과연 '문 없는 문'은 무엇이고, 그 사람들은 그 때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 역사 속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 소설 속에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찻잔 옆에서 읽는 시

차인(茶人)의 향기

석선혜 지음 | 도반 펴냄 | 1만2천원



선혜 스님의 다시(茶詩)를 모은 시집이다. '차(茶)'는 미각의 세계이면서 사색의 세계다. 두 입술을 적시고 나면 마음속을 흐른다. '차' 한 잔에 세상이 잠긴다.

흰 구름 머물다 간 / 산봉우리 아래 / 늙은 소나무에 에워싸인 / 외딴 정자 하나 // 돌솥에서 일어난 / 산바람 소리- /누각 마루로 야단스러이 달려오면 / 산빛을 담아 달인 반야차 // 흰 구름 띄우고 / 조약돌도 얹어서 추억 속 그리움에 드리고 / 먼 길 떠나는 길손에게 드리고….

소설가 정찬주는 서평에서 "북두칠성의 국자로 은하수를 길어서 밤 차를 마시고 싶어했던 다승 진각국사의 시집 〈무의자(無衣子)〉 이래, 낮에는 차 한 잔 하고 밤에는 잠 한 숨 한다는 서산대사와 차 마시며 어찌 진리를 이룰 날이 멀다고 하는가! 하고 경책한 초의 선사의 다시(茶詩) 계보를 잇는 이만큼 알찬 분량의 다시집(茶詩集)을 본 일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다시전통을 계승하는 것만으로도 저잣거리 평단의 저울질을 떠나 〈차인의 향기〉는 보통 사람들 손에 쥐어져 축복받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믿어진다."고 했다.

〈차인의 향기〉에는 스님의 타고난 시적 감성과 그 안에서 농익은 시어들이 시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화엄의 세계를 꽃피운다. 차인으로 살아온 선혜 스님의 시 65편과 수필 4편이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18~7/24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4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 만현	현지궁현지사
5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6	사찰의 상징세계	자현	불광출판사
7	시간의 선물	성원	담앤북스
8	천년사찰 천년숲길	여태동	클리어마인드
9	성난 물소 놓아주기	아잔 브라흐마	공감의기쁨
10	머물지 마라 그 아픈 상처에	허허당	예담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방편과 비유의 진수를 만화로 읽는다



만화 백유경
김흥인 지음
비움과소통 펴냄
1만원

옛날 어떤 부부가 떡 세 개를 놓고 서로 나누어 먹고 있었다. 한 개씩 먹고 나니 떡 하나가 남았다. 남은 떡을 두고 부부는 내기를 했다. 끝까지 말하지 않는 사람이 떡을 먹기로. 부부는 서로 떡을 먹겠다고 말을 참고 있었다. 그런데 하필 그 때 집에 도둑이 들었다. 도둑을 보게 된 부부는 깜짝 놀랐으나 서로 말하기를 미루며 말을 참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부부를 본 도둑은 이 때다 싶어 집안의 물건을 훔치고 부인까지 끌고 가려했다. 그래도 남편은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았다. 부인은 겁도 나고 화가 나서 그 때서야 소리를 질렀다. "도둑이야!" 그 때 남편은 손뼉을 치며 말했다. "야! 이 떡은 내 것이다." 백유경이다.

백유경이 만화로 나왔다. 백유경은 위와 같은 '우화'들로 엮어져 있다. 〈백구비유경〉, 〈백구비유집경〉, 〈비유집〉이라고도 불리며 4권으로 되어 있다. 5세기 경 인도의 상가세나 스님이 대승경전 가운데서 100가지의 비유를 가려 뽑아 엮은 것인데, 492년 상가세나 스님의 제자 구나브리디에 의해 한문으로 번역됐다. 원본은 전하지 않는다. 본래 100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개의 이야기가 소실되어 지금은 98가지 이야기로 되어있다. 책은 이 중에서 53가지의 이야기를 골라 만화와 함께 엮었다. 이처럼 불교경전 중에는 부처님의 설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가며 설명을 한 것이 있다. 12분교의 하나인 〈아바다나(비유)〉나 〈자타카(본생경)〉 등이 그것으로, 이들은 보통 부처님의 전생에 관한 이야기가 비유로 설명되고 있다.

백유경은 다른 경전과 구성부터가 다르다. 상가세나 스님이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들려 준 다음, 이야기를 통해 생각하고 경계해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주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상가세나 스님이 일반 대중에게 보다 쉽게 부처님 말씀을 알릴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쉬운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재미있고 쉬운 비유를 통해 다소 어려운 법문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했다. 그 내용은 주로 선악에 따른 '인과응보'를 주로 모아놓았다. 따라서 〈백유경〉에서는 높은 교리적, 철학적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바로 이런 점에서 〈백유경〉은 불교를 어렵게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좋은 경전이 될 수 있다.

이런 백유경의 중심 사상은 첫째, '방편'이다. 〈대살차니건자소설경〉 제2권 1승품에서는 방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일체 모든 보살마하살들이 / 온갖 바라밀을 닦더라도 / 만일 방편바라밀이 없다면 / 저 언덕에 이르지 못하리라 / 어리석음 없되 지혜 없음 나타내고 / 성냄 없되 자비 없음 나타내어 / 능히 모든 중생 이롭게 하는 것/ 이를 가리켜 방편바라밀이라 한다." 이와 같이 방편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둘째는 '해학'이다. 대개의 경전이 엄숙해서 딱딱한 면이 있는데, 백유경은 해학적으로 불교의 참된 의미를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쉽게 불법을 만날 수 있다. 셋째는 '논리'다. 간단명료한 논법으로 각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넷째는 '문학'이다. 인도 고전에서도 백유경 속의 이야기들과 비슷한 이야기들을 볼 수 있고, 또 너무도 유명한 〈아라비안 나이트〉에서도 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볼 수 있다. 짤막짤막한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쉽게 동화시키며, 또한 한 편의 시를 읽는 듯한 느낌마저 들게 하는 경전이다. 다섯째는 '포괄적'이다. 승속을 막론하고 누구나 쉽게 불교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경이 비록 본연(本緣)부에 있으나 대승의 참된 면목까지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책은 다른 경전과 차별화된 백유경의 장점을 또 한 번 차별화 했다. '만화'다. '이야기'는 만화를 만나 좀 더 빠르게 설명되고 이해된다. 따라서 어른들에게는 삶의 지혜와 인생의 교훈을 주는 '행복교과서'가, 청소년들에게는 참다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지침서'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전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이대성 교수
저승에 가 있는 독일의 자연과학자 '뒤 부아레몽'(1818~1896)이 벌떡 일어날 일이다. 불가지론자인 프로타고라스, 인간인식의 한계를 주장한 칸트(1724~1804)도 데이비드 흄(1711~1776)도 모두 저승에서 곧 달려올 것이다. 우주의 탄생과 생명의 기원, 영체론과 붓다의 삼신론, 붓다의 구원론, 천도재의 필요성 등등, 인간의 영원한 삶과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이 세기의 명저인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 들어 있다.

www.hyonjisa.com

불교서적 베스트 셀러
당신의 영혼에 꽃을 피워줄 마지막 양심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II
역사의 제단위에 올려놓는 수행인의 양심서. 나는 염불삼매 속에서 이와 같이 보고 들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사후세계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흔히 종교에서 말하는 지옥, 천당, 극락 등과 같은 것인지, 불교의 윤회전생이란 진실인지 등에 이르기까지 알고 싶은 모든 분들게 피눈물 쏟으면서 뚫은 바를 수행인의 양심으로 말하는 이시대의 진정한 종교양심서. 이것은 책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 꽃을 피워 줄 행복의 정원사입니다.



21세기 붓다의 메세지 I / 423쪽 / 정가 18,000원
부처님을 뵙다 / 무량광 / 견성은 공부의 시작 / '도올' 망언에 대한 일갈 / 윤회전생 / 윤회를 넘어 / 불(佛)의 삼신을 말한다 / 계율 / 어떻게 살아야 하나 / 불교, 그 위대함 / 독자분들의 질문에 답한다 / 삼매 / 칭명염불 / 소 · 대승 불교경전 / 신통 / 지옥 / 공(空) /부처님께 공양드릴 수 있다면 천마 / 선근공덕의 보따리 / 불문의 사부중에게 / 영적 스승을 만나라 / 가섭존자



21세기 붓다의 메세지 II / 453쪽 / 정가 18,000원
붓다의 설법 / 영산불교 현지궁 현지사 / 석가모니부처님, 우리 교주 불세존 / 불신론 / 무아 속 절대계 / 이제는 타력 불교다 / 자연, 연기 / 〈화엄경〉 〈법화경〉은 방편설이 아니다 / 왜 영산불교인가? / 용신, 인비인신 / 사람이 죽으면 어찌되나 / 윤회의 주체-인간 영혼의 실체 / 중생의 업장 / 무아사상 / 중생의 악행과 부처님 계율 / 염불이 정법이다 / 대적광전, 다보탑, 석가탑 / 세상에서 성공한 분들에게 / 부처님의 정법을 따르면 열반에 이르리 / 나라가 잘 살고 가정은 평안하기를

지은이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춘천본사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95번지 – T.033-243-1795, 243-1787 Homepage – http://hyonjisa.com
부산분원 – T.051-554-5150 대전분원 – T.042-525-5325 고성분원 – T.033-681-5515 서울분원 – T.02-453-5953 대구포교원 – T.053-654-5557

· 불서총판 운주사 T.02-3672-7181
·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 문화유산 아는 만큼 보인다

빨래판도 잘보면 팔만대장경이다 1,2

전병철 지음 | 살림터 펴냄 | 1만6천원



책 제목이 참 상징적이고 재밌다. 빨래판도 잘보면 팔만대장경이라니? 속뜻은 역사적 지식이 있어야 풀 한포기 돌 한 개에라도 깃들여진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에는 학교 수업시간이나 문화유산 답사 갔을 때, 역사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역사적 사건을 두고 갑론을박할 때 알면 유익한 역사 용어와 상식이 총망라돼 있다. 그래서 책이 다루는 분야는 광범위하며 그 분량 또한 적지 않다. 그러나 재미있는 해설과 적재적소의 다양한 컬러 사진, 사진보다 오히려 더 상세한 그림을 곁들여 쉽고 재미있게 해설해 놓아 '역사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책'으로 구성했다.

죽은 자에 대한 예절은 언제나 중요시되고 있다. 저자는 탑과 관련해 불가(佛家)의 장례풍속인 다비(茶毘)와 사리(舍利)에 주목한다. 부처님 사리를 안치하고 있는 근본팔탑 속 사리들이 여러 나라에까지 전파되었다. 탑은 석가모니 사리를 모신 곳이며, 따라서 석가모니 사리가 모셔지지 않은 탑은 엄밀한 의미에서 탑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불교용어 및 역사 상식 자세히 설명
탑과 불상 보면 그 시대 정치도 보여
건축물에도 분명 신분과 서열이 있다

저자의 주장대로 라면 대부분 사찰에 있는 탑들은 다 가짜(?)인 셈이다. 탑이 아닌 것 같지만 법주사 팔상전이나 화순 쌍봉사 대웅전은 내부에 부처님 사리를 모셨기에 각기 5층 목탑, 3층 목탑에 해당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탑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을 들려주면서도 저자는 스님의 사리탑인 부도(승탑(僧塔))의 인간적 면모에 눈길을 주고, 그저 사람들이 소원을 담아 쌓아놓은 '돌탑' 이야말로 비록 사리가 없어도 진짜 탑이 아닐까하고 되묻는다.

탑은 국민 정신을 통일할 수 있는 새 이념, 왕권 강화를 꾀할 수 있는 사상으로서 불교 발전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므로 탑에는 그 시대 정치가 반영돼 있다고 한다.

이 책에는 전해지는 것이 많지 않아 더욱 각별한 삼국시대의 탑들, '3국을 통일했다'는 생각이 반영돼 안정감 있는 통일신라의 3층 석탑들, 개성이 강한 다양한 형태의 고려탑들, 많지만 상대적으로 가치가 줄어든 조선시대 탑까지 탑의 역사가 총 망라되어 있다.

그리고 불상의 발견지. 출토지, 불상이 만들어진 재료, 불상 주인공의 신분, 불상의 자세까지 언급하며 수많은 불상의 이름을 살펴보는 방법을 상세히 들려주는 저자의 친절한 강의가 이어진다.

탑과 마찬가지로 불상도 그 불상이 만들어진 그 시대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정치를 잘 살펴보면 그 당시에 왜 그런 문화가 유행했는지, 왜 그런 문화재가 만들어졌는지 짐작할 수 있다. 문화는 사람들의 삶이 예술적으로 녹아난 것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하기 마련이다. 불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화재 차원에서만 이해해서도 안 되고, 예배 대상으로서 종교적으로만 접근해서도 안 되며, 모름지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다양한 방향에서 인간들의 삶과 연결해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문화재를 국보와 보물로 구별하는 것은 문화재의 가치를 따져 우열을 가리는 데 있지 않고,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려는 노력이라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그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적인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 말이다.

문화재 지정 번호는 단순히 그 번호가 붙여진 순서를 의미할 뿐 번호가 빠르다고 하여 우수한 문화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적과 명승, 천연기념물은 모두 기념물이라는 사실 등 상식을 알아가는 재미가 크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문화재들에 마음이 쓰이는 저자는 천생 우리의 문화유산 지킴이라고 하겠다.

○○궁, ○○전, ○○당, ○○각, ○○사, ○○재, ○○헌, ○○루, ○○정, ○○대, ○○관……. 예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나름 원칙에 따라 이름이 지어졌다. 따라서 그 원리만 알면 답사 현장에서 '저것은 무엇일까?' 하고 고민하던 것들을 크게 덜 수 있다. 외우려 하지 말고 그 원리만 터득하면 된다.

이 책에는 가(家), 옥(屋), 저(邸), 택(宅), 우(宇), 주(宙), 처(處), 소(所) 등은 물론 궁(宮), 궐(闕)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건물의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다. 또한 전(殿), 당(堂), 합(閤), 각(閣), 재(齋), 헌(軒), 누(樓), 정(亭) 등에 설명과 자세한 그림과 사진까지 곁들인 문(門, Gate), 주(柱)[기둥] 등에 대한 설명을 듣다 보면 건축에 대한 저자의 박식함에 감탄하게 되고, 사람처럼 건물에도 서열이 있었다는 점도 이해하게 된다.

우리의 역사와 불교의 역사, 문화재를 아우르는 저자의 강의는 이 책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새삼스레 느끼게 해준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병은 약이 아니라 마음이 치료해

마음이 몸을 치료한다

데이비드 해밀턴 지음 | 장현갑, 김미옥 옮김 | 불광 펴냄 | 1만7천원



저자 데이비드 해밀턴은 유기화학 박사로 영국 대형 제약 회사에서 신약 개발을 담당한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개발 과정 중 실험에서 드러난 플라세보 효과를 통해 질병은 약이 아니라 마음이 치료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는다.

그 후 그는 영국 최고의 육상경기 클럽에서 코치와 팀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마음의 힘으로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미지트레이닝' 기법을 통해 선수들을 지도해 뛰어난 성과를 냈고, 다시 한 번 강력한 마음의 힘을 느끼게 된다. 그 후 그는 자기 계발 전문 강사로 활동하면서 활발한 방송과 집필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질병 치료를 위한 다양한 워크숍을 주관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실제로 유방암에서 완치된 환자인 페툴라의 사례도 소개한다.

"10년 전에 나는 수술이 불가능한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생존율이 15퍼센트밖에 되지 않았다. 암은 림프계와 목으로 전이된 상태였다. …… 치료를 받는 동안 나는 '완전한 건강'이라고 부르는 토끼가 내 몸 안을 뛰어다니며 암세포를 먹어 치우는 장면을 이미지화했다. 나는 하루에 적어도 두세 번씩, 그리고 치료를 받을 때마다 이 장면을 이미지화했다. 치료가 끝날 즈음에는 경과가 너무 좋아서 의사도 놀랐다.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나는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플라세보 효과'(placebo effect)에 대한 다년간의 연구 결과, 믿음의 힘이 실제로 광범위한 질병의 경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저자는 말한다. 즉 천식, 꽃가루 알레르기, 감염, 통증, 파킨슨병, 우울증, 울혈성 심부전, 협심증,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 관절염, 만성피로증후군, 운동 능력, 체중 감량, 위궤양, 불면증 등 수많은 질병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면역 수준과 성장호르몬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 환자가 플라세보를 진짜 약이라고 믿고 복용할 때 환자의 믿음 때문에 뇌에서 화학 작용이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곧 사고와 감정, 믿음이 단지 마음의 주관적인 생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뇌와 몸 전체에 실제적인 화학 반응과 물리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말한다. "당신의 몸이 치유되는 것을 이미지화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실제로 뇌의 미시적인 구조가 바뀌는 것이다. 이미지힐링은 단지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것이 아니며, 당신의 기분을 좋게 하려는 심상 잡동사니가 아니다. 그것은 뇌 안에서 실제로 화학적,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미지힐링을 하는 순간, 마음이 물질을 변화시키는 것이다."라고.

이 책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에서는 급부상하고 있는 심신 과학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를

심신과학연구 개괄적 설명
이미지 힐링… 뇌구조 바꿔
실제치유 성공사례 소개
사랑만이 치유기적 만들어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긍정적인 생각의 힘과 플라세보 효과의 증거,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뇌에 미세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한 최신 연구와 함께 마음으로 몸을 치유하는 것에 대한 최첨단 연구도 함께 다루고 있다. 제 2장에서는 이미지힐링을 통해 실제 치유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한다. 제 3장은 짧지만 저자가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부분으로 사랑의 힘에 관해 이야기한다. 저자는 사랑만이 진정한 치유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책에는 세 가지 부록이 있는데, 〈부록 1〉은 저자의 독창적인 이미지힐링 요법인 '양자장 치유법(Quantum Field Healing)'을 다루고 있고, 〈부록 2〉에서는 질병별 이미지힐링 목록을 실어 독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이미지힐링을 찾아보고 응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부록 3〉에서는 또 하나의 독창적 이미지힐링인 'DNA 이미지힐링' 기법을 소개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잘 살게 하기 위한 참회 기도법 안내

참회와 사랑의 기도법

김현준 지음 | 효림 펴냄 | 6천원



내가 지금 잘 살지 못하는 것은 지난 시절 맺은 업의 장애 때문이다. 즉 사랑과 인연의 병이 마음 속에 깃들어 있어서다. 이를 어떻게 풀고 어떻게 고쳐야 할까? 간단하다. 바로 '참회'에 그 길이 있다. 참회하면 삶의 모든 문제가 풀리면서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이제부터 참회하고 살아가자. 마디마디 맺힌 업이 풀리면서 이기적인 '나'가 무너질 것이다.

이 책을 저술한 이유에 대해 저자는 '정말 잘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래서 84가지 문답을 통해 참회의 정의에서부터 참회기도를 해야 하는 까닭, 절을 통한 참회기도법, 염불 참회법과 주력 참회법 등 기도하는 불자들이 항상 궁금하게 여기는 사항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가고 있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돼 있다. 특히 제 2장인 '참회와 절' 편에서 저자는 참회기도를 하는 이에게 절을 많이 권하는 까닭은 고개를 숙이는 절이 이기적인 생각들을 비우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곧 탐욕 등 이기적 생각들이 비워지면 이기심 때문에 짓고 쌓은 모든 업장들이 녹아내려 복이 저절로 깃들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제 3장 '염불참회법' 편에서는 염불과 주력을 통해 참회를 이루고 소원성취를 할 수 있는 까닭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 제 6장 '백중과 영가천도' 편에서는 백중때 천도재를 지내는 이유와 영가를 위한 좋은 기도법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저자 김현준 불교신행연구원 원장은 "이 책에 의지해 스스로의 멋진 삶과 사랑하는 이를 위해 참회하고 축원기도를 한다면 삶이 충만돼 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주경스님이 던진 삶의 화두 'SLOW'

마음을 천천히 쓰는 법

주경 스님 지음 | 마음의 숲 펴냄 | 1만3천원



세상은 바쁘다. 그리고 빠르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삶은 24시간 쉴 틈이 없다. 사회?경제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개인의 삶은 일종의 부속품이 된다. 생활은 풍족해졌지만, 삶은 팍팍해지고 격해졌다. '화'가 가득한 세상이다.

서산 부석사 주지 주경 스님은 이런 세상을 향해 '천천히'라는 화두를 내놨다. 스님은 최근 쓴 〈마음을 천천히 쓰는 법〉을 통해서.

사실 주경 스님의 삶은 소위 '슬로우 라이프'의 정석이다. 일몰이 아름다운 서산에서 14년을 살며 고요가 가져다 주는 소중함을 느끼고, 책과 차를 통해 선현의 지혜도 만났다. 무엇보다 4계절의 흐름을 몸으로 부딪칠 수 있다는 것은 현대사회에서는 축복과 가깝다. 그래서 주경 스님이 전하는 마음의 메시지는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삶을 침잠하며 사는 법을 알고 있어서다.

스님은 책을 통해 "사람이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의 차이는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들이 성격이 전혀 달라진다는 것이다.

오늘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일이 만들어지듯이 오늘 누려야 할 행복을 놓치지 말고 앞으로 더 행복해지기를 권한다.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천천히 마음을 쓰는 법'이다.

빠르고 바쁜 세상,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보는 것. 내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위해 천천히 마음을 쓰는 것. 기계가 절대로 채워줄 수 없는 인생을 가치를 스스로 채워가는 것. 이것이 주경 스님이 던진 '천천히'라는 화두의 요지이다.

신중일 기자

걷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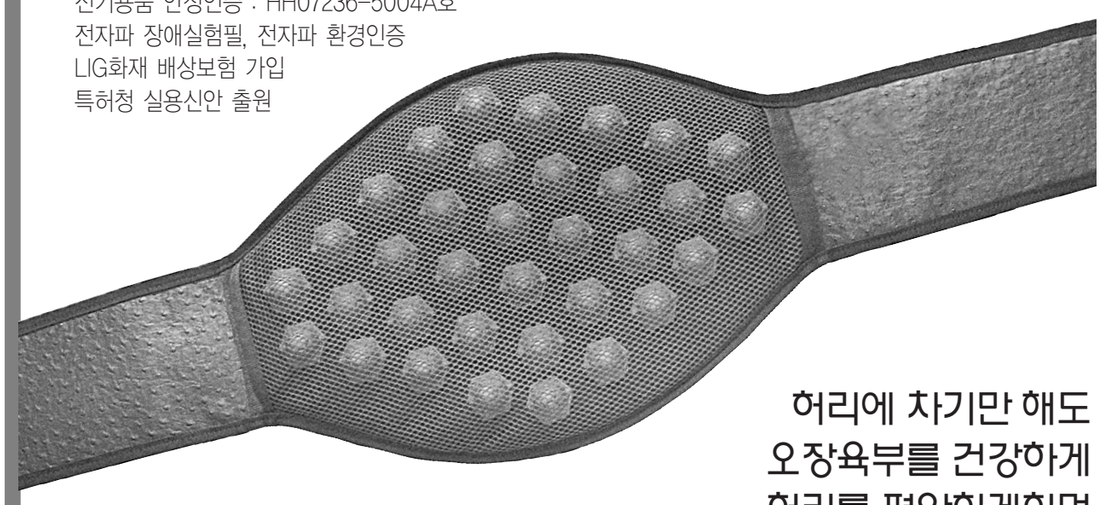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안함 즉 안홍이 불연국토설을 창안한 까닭은?

여왕 결점 보완·신라에 희망 심어

1. 안함과 안홍의 동인인 여부

황룡사에 주석하였던 안함은 안홍과 같은 인물로 추정되고 있다. 그의 높은 위상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체성과 인식틀이 밝혀지지 않았던 것은 안함과 안홍의 동일인 여부와 귀국 이후의 활동을 사가들이 소홀히 한 때문으로 짐작된다. 안함과 안홍이 동일 인물이라는 전제에서 보면 '신라십성'(新羅十聖)으로 꼽힐 정도로 그의 역사적 지평과 사상적 위상은 적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도 정당하게 평가받아 오지 못하고 있다. 현존 사료에 등장하는 안함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신라본기」의 진흥왕 조목에서 확인되고 있다. 반면 『해동고승전』에는 「안홍전」(安弘傳)이 실려 있다. 『삼국사기』는 '안홍법사'(安弘法師)로 적고 있고, 『해동고승전』은 '석안함'(釋安含)으로 적고 있다. 『삼국사기』의 '수(隋)나라'에서 돌아온 해(576)를 기준으로 볼 때 그가 유학한 나라는 수(隋)나라 이전의 진(陳)나라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진평왕 11년(589) 조의 '원광법사(圓光法師) 입진구법'(入陳求法)'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각훈이 '안홍'과 '안함'을 섞어 쓴 것은 그 당시에 이미 「안홍비문」이 10중 4, 5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마멸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해동고승전』「안홍전」은 이렇게 적고 있다.

"승려 안함은 속성이 김씨요, 시부(詩賦) 이찬의 손자이다. 나면서부터 도리를 깨달았고 성품이 맑고 허심탄회하였다. 의지가 굳고 깊으며 아름다운 도량

천왕 칙명으로 대흥성사에 머물러
십승 비법과 현의 5년만에 깨달아

은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진평왕 22년(600)에 고승 혜숙(惠宿)과 도반이 되기를 약속하고 뗏목을 타고 (중국에 가려고) 이포진(泥浦津)으로 가는 도중 섭도(涉島) 밑을 지나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 (뗏목을 돌이켜) 되돌아 왔다. 이듬해(601)에 임금이 교지를 내려 법기(法器)를 이룰 만한 자를 뽑아 중국에 들어가[入朝] 유학하도록 하였는데 마침내 법사가 가게 되었다. 이에 사신과 동행하여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중국의 조정으로 갔다. 천왕(天王, 天子)이 불러 친히 보고 크게 기뻐하며 칙명으로 대흥성사(大興聖寺)에 머물게 하였다. 법사는 단시일 내에 십승(十乘)의 비법(秘法)과 현의(玄義)와 진문(眞文)을 5년 만에 두루 보고 깊은 뜻을 깨달았다. (중략) 그 뒤 27년(605)에 우전(于闐)의 사문 비마라진제(毘摩羅眞諦)와 사문 농가타(農加陀) 등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왔으니 서역의 호승(胡僧)이 직접 계림(鷄林, 新羅)을 찾은 것은 대개 이때부터였다."

"최치원이 지은 「의상전」(부석존자전)에는 아래와 같이 적혀 있다. '의상은 진평왕 건복(建福) 42년(625)에 태어났다. 이 해에 동방의 성인 안홍(安弘) 법사가 서역의 세 삼장과 중국의 두 승려와 함께 당나라에서 돌아왔다.' " 그 주(注)에는 이렇게 씌어 있다. "북천축 오장국의 비라라진제는 당시 나이 44세, 농가타는 46세, 마두라국 불타승가는 46세였다. (이들은) 52국을 거쳐서 비로소 중국[漢土]에 이르렀고 드디어 해동(신라)에 왔다. 황룡사에 머무르며 『전단향화성광묘녀경』(旃檀香火星光妙女經)을 신라 승려 담화가 필수(筆授)가 되어 역출(譯出)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승려가 왕에게 표(表)를 올려 중국에 돌아가기를 청하자, 왕이 이를 허락하여 돌려보냈다." 안홍은 아마 이 안함화상일 것이다."

가마다 시게오(鎌田武雄)는 자신의 『신라불교사서설』에서 중국에는 『전단향화성광묘녀경』이 없으므로 이 경전은 불교 의식(儀式)을 적은 경이 서역으로부터 직수업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또 『삼국사기』「신라본기」에 따르면 "진흥왕 37년(576) 안홍이 진(陳)에 들어가 법을 구하고 호승 비마라 등 두 사람과 함께 돌아와서 『능가경』, 『승만경』 및 부처님 사리를 바쳤다"고 한다. 그런데 각훈은 이들 기록의 출입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였다. "진흥왕 말년에서 진평왕의 건복 연간까지는 거의 50년의 간격이 있는데, 어찌 삼장이 온 전후가 이와 같은가? 어쩌면 안함과 안홍은 실제로 두 사람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동행한 삼장이 다르지 않고, 그 이름도 다르지 않으므로 여기에서 합하여 전기를 만든 것이다. 또 서역의 삼장이 가고 머무르고 마친 바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2. 참서 『동도성립기』의 찬술

각훈은 『해동고승전』에서 "안함화상은 본국으로 돌아온 뒤 『참서』(讖書) 한 권을 지었다. (이 참서는) 글자가 벌어졌거나 붙어버려서 글을 아는 사람도 이해하는 이가 드물고, 대지(大旨)가 은밀하여 이치를 찾으려 해도 궁구하기 어렵다. 즉 '부엉이가 흩어진다' 하고, 또 제일여주(第一女主)를 도리천에 장사지냈고, 천리전군(千里戰軍)이 패했으며, 사천왕사(四天王寺)가 세워졌고, 왕자가 돌아온 해이며, 대군(大君)이 성하여 밝아진 세상 등이 어렵풋한 예언이었지만 눈으로 본 듯 조금도 틀림이 없다"고 적었다. 이어서 "선덕왕 9년(640) 9월 23일, 만선도량(萬善道場)에서 입적하니 향년 62세였다. 그 달에 나라의 사신이 중국에서 돌아오다가 우연히 법사를 만나니 그는 푸른 물결 위에 자리를 펴고 앉아 가더라"고 하였다. 또 "이것은 참으로 이른바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것이 마치 계단 오르듯 하고, 물 위에 앉는 것이 마치 땅 위를 다니듯 했음을 보이는 것이다"고 적었다.

이 기록에 의거하면 안함의 번역서인 경전과 달리 유일한 저술로 알려진 『동도성립기』(東都成立記)는 아마도 신라의 서울을 수나라의 서울인 수도(隋都)에 비견한 것으로 이해된다. 비장방(費長房)이 수나라 문제(文帝)에게 바친 『역대삼보기』(歷代三寶記)에 의하면 "황제는 아육왕 못지 않은 전륜성왕"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역대삼보기』에서 기술된 제왕의 욕계 육천 호지설(護持說)에는 "우리 황제는 사천왕이 호지하는 삼보의 명을 받아 (중략) 33천(도리천)이 각기 자기의 덕분(德分)을 우리 황제에게 주었다. 그래서 천왕이 호지했기 때문에 천자(天子)라고 칭한다"고 하였다.



신인이 제시했다는 황룡사 9층탑 건립의 실제 제안자가 〈삼국유사〉등의 조목에는 '안홍'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설은 곧 선덕왕대 신라의 불국토설로 이식된다. 수나라의 참서는 건국한 뒤의 결과론적 칭송이었지만, 안홍의 그것은 선덕여왕의 결점을 보완해야 하고 암울한 신라의 현실에 희망을 고취하는 예언서였다는 점에서 그 지향이 매우 달랐다. 안홍은 선덕왕이 당의 원병을 청했을 때(643) 태종이 "그대 나라는 부

유일한 저술 참서 〈동도성립기〉남겨
신라에 희망고취 예언서 역할

인이 왕이 되어 이웃나라의 멸시를 받는다"거나, 재위 16년에 모반을 일으킨 비담 등이 "여왕은 정치를 잘할 수 없다"고 한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짐작된다. 수나라에 유학했던 안홍은 중국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신라의 현실을 타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대의 방안을 제시했다고 짐작된다. 그것이 곧 『동도성립기』 즉 『안홍기』라고 할 수 있다.

안함이 입적한 뒤 경덕왕 대에 세워진 한림대(翰林臺)의 설모(薛某)가 왕명을 받들어 비명을 지었다. 그 비명에 말하기를 "왕후(선덕여왕)가 도리천에 묻혔으며 사천왕사가 건립되었다. 괴상한 새가 밤에 우니 새벽녘에 군사들이 모두 죽었다. 왕자 김인문(金仁問)은 바다를 건너 중국 조정에 들어가 황제를 뵙고 5년이 지난 30세에 돌아오니 뜨고 잠기는 세월의 흐름[輪轉]을 누가 어찌 면하겠는가. 안함법사는 나이 62세에 만선도량(萬善道場)에서 목숨을 마쳤다. 사신이 바닷길로 돌아오다가 법사를 만나니 물 위에 단정히 앉아 서쪽을 향해 가더라"고 하였다.

3. 불연국토설의 창안

무릇 참서란 현실의 암울을 벗어나 희망을 불러올 예언서이다. 때문에 참서는 미래 비전의 제시나 꿈의 설계보다는 시운(時運)의 도래나 자국 영토의 성역화를 주장한다. 안홍이 선덕왕의 도리천 승천(昇天)을 말한 것은 불교 우주관의 시설을 통해 신라가 사천왕의 호지(護持)를 받게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때문에 도리천으로 설정된 낭산 아래에 사천왕사를 건립하고자 했던 것은 안홍의 예언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 아울러 신라의 주변국들에 대한 언급과 배정도 참문의 성격을 지니고 『동도성립기』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안홍의 구법 내용이나 신라 귀국 뒤 지은 자신의 참서가 수나라 문제의 조칙으로 만들어진 『역대삼보기』 속의 "……푸성귀 무성하니 도읍을 세워, 정정(定鼎)의 터전 영원히 다지고 무성한 업(業)이 여기에 있도다. …… 사해(四海)가 이로써 고요해지고, 아홉 오랑캐가 비로소 잠잠하도다"의 구절과 긴밀하게 호응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여기서 '구복'(九服) 즉 아홉 오랑캐가 복종해 온다는 표현은 중국 주변국을 총칭하는 것이며, 안홍의 '구한'(九韓) 역시 '구복'에 상응하는 신라 주변국에 대한 총칭이며 구체적인 국명의 배대는 후대의 가필(加筆) 혹은 주기(註記)로 짐작된다. 일연은 『삼국유사』「탑상」 '황룡사구층탑' 조목에서 "해동의 명현 안홍이 지은 『동도성립기』에 전하기를, 신라 제27대에 여자가 왕이 되니, 비록 덕이 있으나 위엄이 없으므로 구한(九韓)이 침범하게 되는데, 대궐 남쪽 황룡사에 9층탑을 세운다면 곧 이웃 나라의 침해를 진압할 수 있을 것이다.

신라는 진평왕 대부터 성골 남자가 다하면서[聖骨男盡] 골품제(骨品制)와 진종설(眞種說)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신라 왕족의 이름이 석가모니 가계의 이름과 동일시하고 석가 재세시의 불국토에 비견한 것은 이지적(理智的)인 정법치국(正法治國)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신라의 불국토 사상은 인도와 인연없는 신라와 인도와 인연 있는 불국임을 전불교의로써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자국내의 불교적 역량이 어느 정도 쌓여야 가능하고 그러한 사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상이 반영되어야 한다. 황룡사 장육상은 인도의 아육왕이 주조에 실패하고 남염부제와 중국 등 수천국을 지났으나 조상의 인연이 닿지 않다가 신라의 진흥왕대에 비로소 만들어졌다고 전한다. 또 '황룡사의 가섭불 연좌석'은 이곳이 전불시(前佛時) '가람지허'(伽藍之墟)이며 이 연좌석은 사람의 수명 이만(二萬) 세시(歲時)의 가섭불 시절의 것으로서 진흥왕대 황룡사 창사 때부터 불전 뒤에 있었다고 전한다. 이러한 불국토설화의 창안자는 자장(慈藏)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황룡사 구층탑 조목에 따르면 자장이 중국 태화지(太和池) 곁을 지나다가 한 신인(神人)을 만났을 때 신라는 외적에 둘러싸여 자주 침입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신인은 신라는 여왕이 다스리는 시대를 맞고 있으므로 황룡사에 구층탑을 세우도록 일러주었다. 같은 조목의 주(註)에 나오는 「사중기」(寺中記)와 황룡사 찰주본기(剎柱本記)에는 이 말을 종남산(終南山)의 원향(圓香)선사에게서 들었다고 하였다. 때문에 자장이 탑을 세우자고 한 제안이 누구에 의해서인지 잘 드러나 있지 않다. 하지만 전후 맥락을 따져보면 대흥선사사리탑(大興善寺舍利塔)을 보고 온 안홍(安弘)의 주장이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일연은 『삼국유사』에서 『안홍기』를 두 번이나 인용하였고, '동경흥륜사금담십성' 조목에는 동쪽 벽 네 번째에 안함을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안함과 안홍의 동일인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황룡사 구층 석탑 제안자 안홍
대가야 공격 받고 자장 통해 실현

않고 있다. 일연은 각훈이 적은 『해동고승전』의 「안홍전」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해동명현'(海東名賢)이라고 일컬으면서도 안함과의 관계에 대해 거론하지 않음은 이해하기 어렵다. 안홍이 진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승(師僧)이나 승관(僧官)의 지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예언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하지만 안홍의 입적 이후 백제의 대야성 공격을 통해 위기에 처한 신라 정국이 그의 예언을 돌이켜 보게 되었고 자장이 이를 수용하여 황룡사 구층 건탑이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

참고문헌

권상로 역주, 『삼국유사』(동서문화사,1978; 2007; 2010).
신호열 역주, 『삼국사기』(동서문화사, 1978; 2010).
각훈, 『해동고승전』(을유문고, 1975).
김철준, 「신라 상대사회의 Dual Organization下」, 『역사학보』, 제2호, 1952.
신종원, 『신라초기불교사연구』(민족사, 1992).
고영섭, 『한국불교사연구』(한국학술정보, 2012).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 염주세트키트 : 108염주 (10mm) 마감용 염주 1개(10mm) 모주 1개(12mm), 줄(살색), 코핀1개, 팬던트, 이쑤시개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혀있는 염주는 준비물 중 이쑤시개로 해결합니다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줍니다.

4 수직으로 나와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 개의 줄을 빼냅니다.

TIP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힘껏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감용염주로 통과시킵니다.

7 마감용 염주를 통과 시킨 두 줄에 팬던트를 끼워서 다시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TIP

8 이때 팬던트와 마감용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와 마감용 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

9 두 줄로 2회 앞 뒤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

10 다시 매듭을 3번 힘껏 조이면 됩니다.

11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자른 후 라이터로 살짝 지져서 손으로 가볍게 눌러줍니다.

12 108염주 완성

실용신안특허출원
20-2011-0003592
20-2011-0004171
20-2011-0005656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DD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떤 일을 하고 나서 후회하고 그 결과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한다면
그 행위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어떤 일을 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고
그 결과로 기뻐하고 즐거움이 있다면 그 행위는 결과적으로 훌륭한 것이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모든 통증해결
오십견,허리,무릎,관절,
빙의,신병,눈병 등...
(스님의 원력
으로 즉시효과)
지장사 범성스님 합장
010-9243-0113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산신제 불공
산신제 불공 월 1회
미리 접수
바랍니다
010-8676-6132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법당 유무선 마이크
고성능이 100만원 초반대
소리를 들어본 후 공사결정
무상1년, 유상10년 A/S
전통사찰 200만원대
한성음향
010-4440-868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고양시)
031)965-2807
010-4727-0311

양 도 공 고
(법원 등기된 종무법인 임)
법인 불교단체양도
법인 종단 양도
불교 법인 양도
011-412-8040 법광

계룡산 천황사 기도도량
보각스님의 신비한 기치유
빙의,무병,정신병,중풍,
불치병, 암 현대의학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탁월한 효과 "신분 절대 보장"
011-673-0492
041)855-3492

동영상 기문성명학
평생운을 볼 수 있는 한글성명학
용신, 실전사주. 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누구나쉽게단기간에배울수 있음.
범천명리강의실
02)389-6597
www.beumchun.com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2)2234-2198
011-9721-2198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쉼 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영통철학 1개월 완성
비급전수로 1개월 만에
▷ 바로 상담가능
▷ 방문지도 가능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석사)
정광 합장
010-2586-7938

공양주 보살 구함
(50세 후반 ~ 60대 중반)
가족 두 내외분
같이 오길 원함
(대전)
010-5209-7420

천고비전 육임학을
공부하실분
육임은 神視입니다. 신을
잘못 받아서 헤매이시는 분들
이 공부를 하십시오.
정통으로 성심껏 지도 하겠습니다.
011-729-6011

출가 1,2년차 비구니 및 행자(비구니 모집)
사찰에서 실시하는 소정 기초
교육 이수 후 출가자로써
열심히 기도정진할 수 있는
학력과 나이에 관계 없으며
사찰을 관리할 있는 자.
010-2669-1800
(안동) 영남산 지장사

지장대사 원력 천도법
1. 조상빙의와 대화를 통한 천도재
2. 빙의 퇴마 치료전문
3. 가정우환, 병명없이 몸이 아프신 분
4. 엑소시스트도 치료 못한 환자도 치료
금강사
010-2418-6222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경기도 성남)
010-5279-0024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경주)
017-206-0113

기 적 의 물
■ 만병치유의 자화육각수, 지상수,
암반수가 나오는 각 지역 사찰
한 곳만 지정하여 최저비용으로
설치가능
■ 국내최초, 자장황토 '氣'토굴 쑥뜸방 설치)
010-4191-0455
무아스님 합장

심 와 기 도
• 전생과 이승과 저승을 아우르는 기도법을
원하는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 9호 부산영산제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 사물 ❁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 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특전 2) 부산시 문화재 행사 출전 실무.
부 전 스 님 안 내 부전스님 필요한 사찰
부전 사찰이 필요한 스님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010-5511-7000 (사주, 명리, 영가찾는법 개인지도)
전통불교조계종에서는 종도 여러분의 입종을 환영합니다.

부전
스님
모십니다
(개원사)
010-2515-0664

비구니 기도스님,
법당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
051)721-0449
010-3599-6444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가평)
031)585-4626

부전
소임을
원합니다
010-3450-1147

모 집
예비 승려를 모집합니다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1통 , 여권용 사진 2매 (60세 이하)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60세이하, 숙식가능한 보살님 (부부도 가능함) 급여 상담 후 결정
(용인시 수지구)
031)262-0606 / 010-8930-1578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 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 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 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 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고성)
055)835-8605

신심있는
女 사무장,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안성)
010-8954-8033

큰 법력으로 사물,바라무,살풀이무,
극락무 등 시연과 함께 우리말과
한문을 능통하게 구사하여 재자와
영가를 동시에 천도되게하는 정말
신심나는 천도재,49재,구병시식 및
불상 불화, 점안과 각종 불공의식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오니 믿고
청하여 주시면 어디든지 찾아 뵙겠습니다
010-3854-8107
네이버, 구글, 유투브 비구무불 검색
트윗 kangmubul 검색
영축산 토방 50대 비구승 무불 합장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연령대는 40이상,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진 불자님
월급 관련은 면접 후 결정
월 4회 휴무.근무 6개월때
월급의 100% 보너스
사성암 종무소
061-781-4544
010-4709-4343

불교전문 교정인을 찾습니다
불교분야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분으로
교정, 윤문 전문인을 모십니다. – 재택근무 –
간단한 테스트 후 교정료 결정
전문가로서 경험있는 분만 전화 요망
한국불교대학 부속 도서출판 좋은인연
053)475-3707

불자축구팀 FC붓다 회원 모집
축구를 통한 불자들의 소통과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불자축구팀인 'FC붓다'가 신규회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 불교계에 종사하는 불자 (서울, 경기지역 / 20~50대까지)
▣ 매월 2, 4주 토요일 09시부터 정기모임 (인조잔디 전용구장)
▣ 불자축구대회 준비 중
홈페이지 - http://WWW.fcbuddha.com
페이스북 - FC붓다 / 문의 010-7339-868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도심 포교당)
010-3618-6061

기문둔갑 강의
역학을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기문비법을 전수합니다.
사업자, 성패에 대해서, 학업생 학과
선택, 남여결혼문제, 부부문제 등
세밀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님직접 강의. 수시모집
011-544-9777
051)722-6444

배우자 구함 (男 56세)
공인중개사 운영
도심 속에서 벗어나
시골 생활을 찾아
꿈을 이루고자 하는
진실한 여성 인연바람
011-717-5316

고 (古) 건 물 수 리 전 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 건물 넘어간 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 고도건축 대표 강충(姜忠)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연 락 처 : 053)964-0858
휴 대 폰 : 011-804-1748

범음범패학인모집
▣ 과 정 : 초. 중. 고급과정 수시모집
▣ 교수법 : 처음 개인 교수식 후 각반 편입
▣ 바라무 : 천수, 요잡, 츰부다라니, 사다라니
▣ 착복무 : 도량게, 다게, 향화게, 오공양,
옴남, 기경이, 법고
▣ 사 물 : 법당북, 태징, 광쇠, 심벌,
목탁 ,요령, 경쇠타법
▣ 국악기 : 호적, 대금, 단소, 퉁소
▣ 핵심 경전강의 : 의식의 뜻과 이해
교육장소 :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1553-6 (2층) 지 장 사
문 의 처 : 강주 홍인 010-5325-8123
학장 범성 010-9243-0113 합장

간염, 간경화, 천식, 자궁근종, 물혹, 전립선 으로
더 이상 혼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한 솔 한 의 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심의필번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12-중-10065호

정 정 공 고

현대불교신문 898호 (7/25) 하단에
게재되었던 탈종공고에 대해 정정합니다.

탈종공고에 기재된 사찰과
현 주지스님과는 전혀 관련 없는
개인의 탈종이 문안 신청과
접수과정의 착오로 사찰명과
주지스님이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기재된 사찰과 주지스님은 게재되었던
탈종공고와는 전혀 관련 없음을
다시한번 정정하오며 해당 사찰과
주지스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해량 바랍니다.

불자정보 26 | 899호 | 전면광고

2012년 8월 1일 수요일 / 불기 2556년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법당 : 26평
- 요사 : 190평
- 부지 : 510평
- 가액 : 15억

- 위치 : 전남
- 법당 : 20(목조)
- 요사 : 100평
- 부지 : 1300평
- 가액 : 3억5천

- 위치 : 경북
- 법당 : 60평
- 요사
- 부지 : 500평
- 가액 : 2억8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대구 금오산 자락

- 총부지 : 870평
- 법당 30평, 요사채 및 산신각
- 계곡물 철철, 산세 최고
- 양도대금 : 3억 5천만원

울산 근교 아름다운 사찰

- 총부지 : 2400(100%평지)
- 법당 및 요사 50평
- 산세, 계곡물 최고
  주차장 200평
- 총금액 : 6억 8천만원

※공양주 구함 (수수료 없음)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암자,토굴,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도심안의 산중사찰

- 부산 (구 보림극자 위)
- 대:97평(계단 약간 있음)
- 1층65평(법당 및 공양간)
- 2층 35평 (큰법당)
- 텃밭(20평)
- 급양도가: 2억9천만원
- 8m 옆 나대지
- 평당 240만(36평)
- 현재 유료주차장
- 부산 범일동 (지분등기) (부산진 시장 10분거리)
- 가액 : 8700만원

부산 동구 범일동 010-5511-7000 스님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동구 불로동
- 대지 : 70평
- 2층 총 60평 건물 (1층 요사채, 2층 법당)
- 사찰주변공원 경관수려
- 공원주차장 사용가능
- 지역에 잘 알려진 사찰
- 가액: 2억 7천만원

010-4534-6697

사찰 및 수익사업 최적지

- 인천시 남구 주안동 (1호선 인천지하철 W역세권)
- 대지 143평(상업지역)
- 3층건물(연 건평 200평) (주택 30평 별도)
- 사찰운영 및 별도, 수익사업 최적지임
- 평당 1천1백만원

010-3408-0003
010-2262-000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논공
- 3층건물중 2층(48평)
- 삼존불, 지장보살
- 시설 방2, 화장실등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 주차시설 별도완비
- 주변시장, 아파트밀집지역
- 보증금 3천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1200만원(절충가)

010-4056-5677

포교원운영 건물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공단동
- 7층 건물중 7층(53평)
- 옥상마당 전체사용가능
- 구미 순천향병원 맞은편
- 아파트밀집 상가지역
- 주변 환경과 경관이 좋아
- 포교원 운영하기 적합함
- 가액 : 7천5백만원

010-3356-4869

임법당(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 단독주택(대지39평)
- 비구니스님수행처 역학운영하실분

053)624-3691
010-5385-367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2층)
- 평수 : 30평
- 포교원 운영했던 건물로 법당 상단 및주방시설되어 있음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200만원

044)558-1198
055)265-7998
019-589-3408

사찰부지안내

- 경남 창원골프장 반대편 산등성이
- 전 4000여평중 무작위로 골라서 1300평, 분할도 가능
- 평당 110만원(70평 이축권포함)
- 물좋고 양지바르며 태풍의 피해가 없는 명당짱
- 원로스님, 유명지관이 추천하는 명당 인구 110만명의 통합 창원시 도심 주변 야산 200만평 속의 금세기 최상의 큰 절터

010-9393-8945

사찰부지안내

- 통영시 棉花山 9부능선(해발 100m)
- 비럭계곡, 계획관리지역
- 전 600, 800평, 평당 25만원
- 자연의 고요함과 짙은 숲속 내음 사철 흐르는 물소리
- 산세가 목화꽃 같다는 棉花山큰 자궁터
- 안정국가공단 뒤산 이순신 장군의 대승첩지 고성군 당항포만이 바로 발밑에(세계공룡엑스포개최지)

010-9393-8945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 야촌리 논산 IC 2분거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0평, 공양간 15평,
- 석물- 5층석탑, 해태 1쌍 연못 조경 완벽
- 가액 : 1억 3천만원

011-9004-1492
041)741-1492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소개동
- 평수 40평(사찰등록)
- 구조: 스님방 따로 (욕실, 화장실,주방포함) 공양간별도있슴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 시설비 700만원(비품일체)

055)252-317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량진
- 전답 827평, 건물 법당 요사채 합쳐서 약50평
- 산신각 약5평 용왕당 약2평
- 가액: 3억 3천만원

010-8034-8309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 기장군 청강리
- 평수: 65평, 3층의 2층
- 천수천안, 후불, 신중
- 방3, 주방, 탈의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1천 5백만원

010-8948-2612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기장읍 천강리
- 50평, 단독주택
- 법당, 방3, 화장실 3
- 보증금 1천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협의

010-9320-546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 대지 188평, 법당 23평
- 요사 37평, 지하암반수
- 전철 2014년 개통예정 (인터넷참고)
- 가액: 2억 3천만원 (대출 3,000만원포함)

010-3194-3738

포교원안내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 부천 지원 옆
- 5층건물 중 4층 45평
- 엘리베이터 있음
- 시설A급, 방2, 거실, 법당
- 보증금 1천만원 월 75만원
- 시설비 상담 후 절충

010-6674-1356

사 찰 안 내

- 지리산 중산리 천왕봉아래 주변 경관 수려함(계곡, 좌,우, 전방전망시원함)
- 부지: 1000평, 법당 30평, 설법전 80평, 요사 60평
- (공통건축시공 : 전통목조기와, 황토시공)
- 도로포장, 차량진입, 풍수적으로 완벽한 도량
- 가액: 4억 8천만원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신비의 동굴이 있는 사찰
- 경북 경산시 남천면 소재
- 맥반석산 이마 8500평, 대지 2000평
- 맥반석동굴법당 110평, 70평
- 대웅전, 30평, 산신각 6평
- 맥반석 돌탑 108기,공양간 40평, 방5개
- 사철 계곡물 철철 흘러감
- 총가액: 12억 6천만원

011-809-7434주인직접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 공업 로터리 부근
- 10층 빌딩의 3층
- 평수 : 60평
- 시설 A급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90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1-9335-5535

사찰(급)안내

- 포교하기 좋은 곳
- 위치: 충북 제천시 중심가
- 대지 80평
- 요사채 실 평수 30평
- 법당 15평
- 가액: 1억 7천만원
- 당일 포교 가능함
- 절충 불가 주인직접

011-792-8969

암 자 안 내

- 지리산 청학동 도로변 위치
- 대지 120평, 건물 20평
- 황토 벽돌, 한옥, 임법당
- 관세음보살, 신중탱화, 산신
- 즉시 입주 가능● 전세 6천만원
- 꼭 하실분만 연락 주세요 조용히 수행하실 분

010-6579-2303
010-2787-4148

사 찰 안 내

- 위치 : 해남터미널에서 3분거리
- 대지 : 총 1320평
- 대웅전 1동, 요사채 3동,
- 부속건물 등등
- 방10개,심야보일러, 경비시스템
- 가액: 3억 3천만원 (대출 7500포함)

010-2775-3373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읍
- 평수: 104평, 건물 법당 25평
- 산신각, 단청 필
- 포대화상, 석탑, 사자1쌍, 요사채 2동, 주차장 넓음
- 가액: 3억 2천만원

019-550-9725

포교원안내

- 위치 : 충북 음성 감곡 영산리
- 총평수 약 200평
- 건물: 법당과 요사채 방3개
- 공양간 화장실 2, 창고1,텃밭있음
- 보증금 1천만원, 시설비 2천만원 (삼존불은 제외)
- 오랫동안 사용가능
- 20시전까지 전화가능

010-9045-3332

사찰(급)안내

- 경남 의령군 궁유면 운계리 871-2
- 총평수 1700평중 대지 540평
- 건물: 법당, 요사채 포함 70평, 준공필
- 사찰앞 계곡이 수려하고 청정지역임
- 가액: 3억 5천만원
- 타건물 교환 환영
- 스님 건강관계로 (급)양도

055)572-0405
011-9850-8208

사 찰 안 내

-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서 7분거리
- 대지 505평 반(등기필)
- 와가법당 20평 2층 (단청필)
- 요사채 38평
- 창고 15평, 옥외화장실, 창고 6평 (6층석탑 제주석)
- 특히 불필요 전화 사절
- 가액: 방문시 절충요

010-7517-7037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 시장앞
- 평수 : 45평
- 2층 독채
- 보증금 4000만원 월 50만원

010-3595-9856

토굴(급)안내

- 충남 금산읍내. 조그만한 토굴
- 건물만, 등기완료, 수리완료, 건물평수 25평 1
- 외부 친견실1, 건물뒤에 산신단1, 앞쪽에 용궁겸 약수1 ● 25평중 임법당1, 큰방1,거실1,작은방1,입식주방1,욕실1
-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탱화, 소불15불
- 100미터 오솔길, 차는 밑에
- 몸만오시면 됩니다.즉시법회가능
- 가액: 2천 5백만원

010-8546-1267

사찰같은 포교원

- 위치 : 천안 최고의 위치
- 2층 45평, 3층 45평, 옥상 50평
- 시설비 포함 (원목)
- 전세 6000만원
- 재래시장안에 위치
- 양도가능하나 초기 전세 유리

010-3630-3235

포교원안내

- 위치 : 충북 음성 감곡 영산리
- 총평수 약 200평
- 건물: 법당과 요사채 방3개
- 공양간 화장실 2, 창고1,텃밭있음
- 보증금 1천만원, 시설비 2천만원 (삼존불은 제외)
- 오랫동안 사용가능
- 20시전까지 전화가능

010-9045-3332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시내
- 부지 : 150평
- 법당 : 30평(목조기와)
- 요사 : 70개
- 가액 : 7억5천

- 위치 : 경기화성
- 부지 : 220평
- 법당 : 35평(목조기와집)
- 요사 : 25평
- 가액 : 5억 5천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010-4586-4525

큰절터안내

스님과 불자님께만 해당

낙동강이 내려다보이는 참 괜찮은 땅1300평,
경남 창녕 길곡면
남향 뒤쪽과 옆쪽은 솔밭
마을 뒷편 포장도접 건축용형질변경
허가 받았던 길지, 큰스님 절터
감정받은 명당지, 전기가설완료료
작은 계곡 접 평당 17만원(부동산 사절)

中山 합장 010-3872-0354

사 찰 안 내

- 광주광역시 인근 20분거리
- 대지 299평 총평수 500평, 전건축물 목조
- 대웅전 29평 요사채 20평, 방4, 욕실1, 공양간 10평, 방1개, 해우소3평반3칸
- 지하수 130m 물수량 100톤 일급수 cc카메라 9대시설
- 사찰경내지 계곡물흐름, 조경완벽
-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IC5분거리
- 가액: 답사후 결정 (꼭 하실 분만 전화요망) 장난전화사절

010-9342-8110

도심암자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삼랑진읍
- 삼랑진 기차역에서 200미터거리의 도심암자
- 평수:대지 : 63평
- 법당:11평, 요사채: 25평 현대식
- 30대이상 주차장시설 완벽
- 가액: 8,500만원 (스님,법사,영철학자,보살님 참 좋음)

010-2055-3366 (스님 직접)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내 ● 총평수 : 1천평, 대지 300평
- 자연석 바위로 기초하여 법당, 신중단, 영가단을 법당 내에 설치하고 법당 내벽은 푸른대나무를 사용하여 신성함을 더했고, 옆면, 뒷면은 산으로 병풍처럼 둘러쌓여있다.
- 절마당에 작은 연못, 앞은 계곡의 물이 사계절 흐르고 사찰로 진입하는 단독 길은 산밑의 도로와 일반국도에서 50M 걸어오면 계전을 걷는 원형다리. 밑에는 맑은 물속에 물고기가 놀고있는 천해의 경관이다.
- 법당, 주지실, 산신각, 요사채. 건물 4동

055)224-3385 주지 합장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순천 근교
- 부지 500평 ● 주차용이
- 대웅전, 극락전, 목조, 요사채
-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절
- 가액: 5억 5천만원 (대출1억4천포함)
- 현지 답사
- 미분양납골320기, 1기분양가 250만원

010-5262-554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삼랑진읍
- 삼랑진 기차역에서 200미터거리의 도심암자
- 평수:대지 : 63평
- 법당:11평, 요사채: 25평 현대식
- 30대이상 주차장시설 완벽
- 가액: 8,500만원 (스님,법사,영철학자,보살님 참 좋음)

010-2055-3366 (스님 직접)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영도
- 바다보이는 절
- 부지 300평
- 법당, 목조건물 20평
- 요사채 40평
- 가액: 6억 5천만원

영 도 불 사
010-9798-1091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진군 북면
- 대지: 800평, 하천부지 200평
- 대웅전 23평, 산신각 4평, 요사채 방2개, 부엌1
- 화장실 남녀 1칸씩, 주차장완비
- 채소밭 70평, 각종 과일나무 및 꽃나무 많음
- 비닐하우스 2동
- 산 깊고 물 좋은 곳, 기도발 잘 받는 곳
- 가액: 2억 5천만원

054)782-0659
010-4847-0659

사 찰 안 내

- 팔공산 한티재 부근
- 대지 200평,법당, 요사채 60평
- 삼존불, 노상 지장보살님
- 집기일체 양도
- 주변 경관수려함
-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60만원
- 시설비 2천 8백만원

016-849-8889

전 통 사 찰

전통사찰로써 목조단청
수행과 포교의 전법도량
도심과 산사 교통편리함
(공찰관계로 양도 의향)
가액 : 11억 예산
(서울 - 안양 - **의왕**)

010-3678-256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청양
- 법당(종교 집회장 25평, 요사 한옥1동)25평
- 산신각 5평, 공양간 20평(조립식)
- 용궁있음, 법당, 요사 등기필 (공시지가 2천 8백)
- 사용대지 약 3천평 (연 임대료 60만원)
- 가액: 4천 5백만원

010-9707-5512

명당터 기도터 사찰

- 큰명당 절터 1800평
- (평당 20만원)
- 현재 밭과 대지 즉시 건축가능
- 분할 판매도 가능함
- 수도권, 풍광좋고 도로 매우 양호
- 지금 준비된 분만 연락하세요
- 조건에 따라 최고조건 협의가능
- 기외 기타 지역 보유

010-4880-7890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 10분거리에 5000세대 아파트단지
- 대지 340평, 건평 200평
- 시설완비
- 석간수(물)최고, 최고의 명당
- 비로자나불, 후불탱화
- 가액: 4억 6천만원 (2억 대출 됩니다)

010-3573-0481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 대지 : 196평
- 주자창, 텃밭 175평, 법당 15평
- 야외 지장보살입상, 요사채 방5, 심야보일러
- 가액: 1억8천5백만원

011-769-7029

부산 금강공원내 기와집

- 방2, 현대식 부엌
- 임법당 6평
- 스님들 기도처 및 토굴 최적지
- 조용한 곳을 선호하시는 분들
- 전세 15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600만원

011-550-5448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 4층 건물 4층
- 평수 50평, 방2, 법당, 공양간, 최고시설
- 화장실2, 창고1, 옥상사용
- 보증금 1천만원, 월 110만원
- 시설비 2천만원 (상담 후 재절충 가능

010-6481-4567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순천 근교
- 부지 500평 ● 주차용이
- 대웅전, 극락전, 목조, 요사채
-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절
- 가액: 5억 5천만원 (대출1억4천포함)
- 현지 답사
- 미분양납골320기, 1기분양가 250만원

010-5262-5545

아담한 토굴안내

- 강릉시 사천해수욕장 뒤 아담한 토굴
- 큰 불사 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
- 대지 텃밭 합 약 250평 (1년도지 20만원 야채는 자급자족)
- 법당 외 방 4개, 목욕탕 1개 화장실 2개, 종1, 집기일체
- 양도 가액 3,970만원(절충불가) 공동불사도 가능

010-2461-3014

인간의 모든 욕망은 덧없고 허무하며 물거품과 같고 아지랑이와 같고 물 속에 비친 달과 같고 뜬구름과 같은 것이다 - 화엄경 -

병상의 당신에게 감로수를 드립니다
- 병석 명상법 -

〈5〉 집착을 관찰하자

감각은 그저 명멸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곳에 평안이 있다

만약 고통을 그냥 참으려고만 들면 너무도 참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면 깊은 곳에 숨어있는 마음 그쪽을 찾도록하십시오. 그러면 그밖의 모든 것은 제쳐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당신의 고통이 지켜볼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부터 살펴봅시다. 만일 바라보고만 있을 수 있거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고통이 변하고 사라져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마음은 평상의 주정 상태에 머물면서 그 나름의 내적 '빔'에 따라 고요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이 너무 심하면 눈을 돌려 안쪽으로 향하십시오. 왜냐하면 고통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갈애가 등장하여 고통을 밀어내고 즐거움을 얻고자 발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 번뇌를 쌓고 쌓아 마음을 끔찍한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부터 시작해봅시다. 갑자기 심한 고통이 닥치면 즉각 방향을 돌려 모든 주의를 마음에다 집중하십시오. 육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육신에서 벌어지는 고통에도 아무 상관 마십시오. 그 고통을 보지도 말고 주의를 기울이지도 마십시오. 당신의 지각 가장 내밀한 부분과 함께 있도록 계속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육체와 더불어 고통에 빠져들지 않은, 그 순수상태의 마음을 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나아가십시오. 그런 집중상태를 계속 분명하게 유지하십시오.

이 상태가 계속 분명하게 유지되기만 하면 육신의 고통이 제아무리 심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정신적 육체적 사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음은 초연합니다. 마음은 이 모든 것을 옆으로 제쳐놓습니다. 마음은 이미 놓아버린 것입니다.

이 일에 통달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용한 방편이 될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중요한 일은 순전히 마음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이것저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바깥으로 내닫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것도 붙들고 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엔가에 매달리게 되면 곧 쓸데없는 고통이 뒤따르니까요. 아무것에도 매달리지 않을 때,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그곳에 마음의 평안은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는 그 곳, 바로 그 곳이 마음에서 모든 고통과 짓눌림이 해체되는 그 지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사물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마음은 사물을 가까이 놓으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꼭 붙들고 있을 것입니다. 바깥 사물에 너무나 깊이 맛들여져 있으니까요. 거기에 고통과 억압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막무가냅니다. 마음은 무척이나 그런것들을 좋아하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망상들이, 마음을 온통 뒤덮고 있는 그릇된 지식이나 견해들이 마음 그 본연의 고요하고 비어있는 모습을 볼 수 없게끔 가로막고 있는지를 잘 관찰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견해들이 어

색·성·향·미·촉·법에 관심갖고
어떤 의미 있다고 느끼는 순간
벌써 집착이 들어서 있습니다

무엇이 보이거나 들릴때에
예사롭게 받아 들이므로
집착인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떻게 복잡한 집착을 야기시키고, 그래서 마침내는 마음을 끔짝없이 좁디좁은 편견에 가두어 버리고마는지를 관하는 데 마음을 집중시켜 보십시오. 느낌[愛]과 지각[想], 사고형성[行]이라는 정신적 사건들이 조건이 되어 마음을, 즉 의식의 고유속성을 뒤흔들어서 처참한 몰골이 되도록 유린해 버리는지 보아야 합니다.

'앎을 놓아버리는 앎'을 찾아내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앎이란, 정신적 사건들이 개입되지 않은 순연한 의식, 고유속성 그대로의 의식인 바, 이 단계는 아직 정신적 사건들과 연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정신적 사건들에 의해 조건지어지지도 않았고, 또 정신적 사건들을 향해 조건짓고 있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미상불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식을 조건짓는 사고형성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십이연기에 행이 식을 조건짓지요. 안 그래요? 그런데 행은 다시 무명에서 비롯되지요. 그러니 우리가 일지 못한다는 것, 또는 잘못 안다는 것, 이 때문에 사고형성이란 행(行)이 있게 된 것이고 그러고는 이 사고형성이 다시 온갖 것을 조건지울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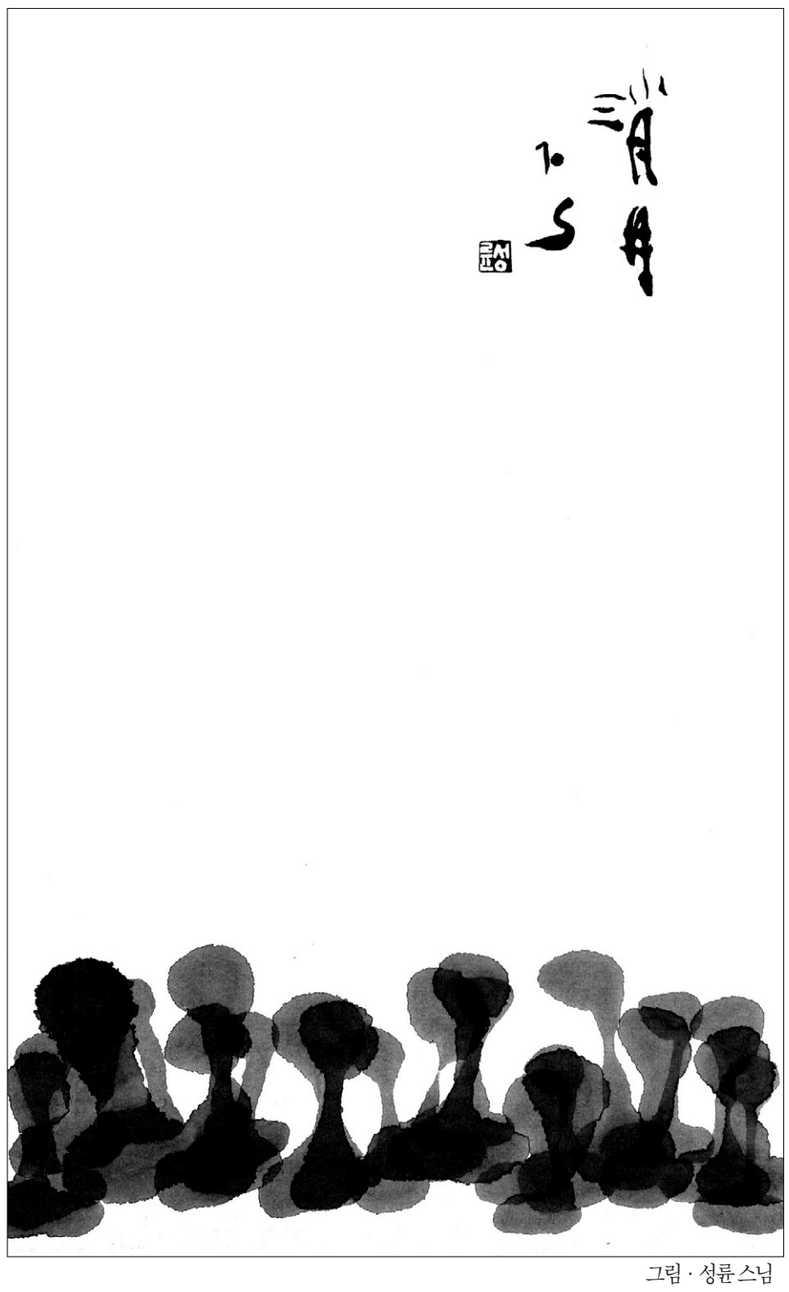


그림 · 성륜스님

그러니 이 무명에, 이 알지 모함에 대해 특히 초점을 모아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알지 못함[無明]의 특성을 알게 되면, 그와 동시에 이리저리 조건지우며 배회하고 있는 사고형성의 특성과 그 해체방법마저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은 미묘하고도 심원한 것인만큼 능숙한 관찰력이 요구됩니다.

비록 미묘하고 어렵긴 하지만, 마음챙김과 통찰력을 이 정도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럴만한 소질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 어려운 일을 흥미있게 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고통을 끝내고 벗어나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접근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정신을 오로지 마음상태에 집중하여 그것이 계속 비어있도록 하십시오. 그 빈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 자리를 차지하려 듭니다. 가령 어떤 형상이 눈과 접촉하거나 어떤 소리가 귀에 부딪칩니다. 그때 당신을 거기에 일어나는 순수한 감각,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맨감각이 어떤 성질의 것인가 그 특성들을 알아차리도록 해보십시오. 그러면 맨 감각은 저 혼자 그냥 있다가 미처 '좋다' '나쁘다'하고 어떤 의미를 띠기 전에 해체되어버립니다. 맨감각만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첫머리에 사라져 버린다면 고통도 없습니다.

어떤 대상이 눈과 접촉하는 그 순간을 잘 꿰뚫어 보십시오. 당신이 관심을 두지 않는

식의 알음알이 놀음단계에서
알아채버리지 않으면
집착이 서로 엉겨 붙습니다

감각적 접촉 비어 있음 알게되면
세상을 빈것으로 보게 됩니다

대상은 좋거나 싫거나 하는 느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색 · 성 · 향 · 미 · 촉에 관심을 갖게 되거나 어떤 의미가 있다고 느끼게 되면 이미 그 순간에 집착이 생겨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잠시 관을 멈추고 집착 쪽을 들여다보면, 이 집착이 얼마나 포착하기 어려운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의미를 부여했을 뿐인데도 벌써 집착이 들어서 있으니까요. 건성으로 보아서는 그것이 집착이라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미묘하긴 해도 그것은 엄연한 집착입니다. 이렇듯 의미가 있는 한 집착도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훌륭한 통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보이거나 들릴 때에 우리는 그것을 예사롭게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기막히게 교묘한 요술 같은 짓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복잡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식의 알음알이 놀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민감한 작용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걸 제대로 알아내려면 통찰력이 매우 뛰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알음알이 놓음의 단계에서 이것을 알아채버려야 되지, 만일 그냥 넘겼다간, 집착이 되어 서로 엉겨붙어버리면 일이 어려워집니다. 집착으로 변한 이들 요소들은 마음에 갖은 고자질을 다해서 온갖 사단들이 벌어지도록 조건지우고 조제하여 마음을, 아니 식(識)을 극도의 혼란 속으로 밀어 넣고 말 것입니다.

감각이 접촉 받아들이는 모양을 보자

그러니 내면세계를 투명하게 들여다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아주 훌륭한 통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면세계는 변화무쌍하고 미묘하고 포착하기 어려우니까요. 마음이 텅 비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을 때, 이때야말로 마음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단속하여, 감각이 접촉을 받아들이는 모양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자, 보십시오. 순수하고 단순한 촉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이 해체되어 사라집니다. 마음은 비어있습니다. 중도의 빈 마음이. 일단 이런 이치를 깨닫게 되면 번뇌나 갈애, 집착의 힘에 의해 조건지어 지지 않은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빈 마음을 기준삼아 내면세계를 다스릴 수 있게만 되면 그때 우리가 얻는 이익을 어떻게 다 말로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무엇보다 당신은 모든 감각적 접촉이 비어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이 세상을 빈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것이니 이야말로 가장 큰 이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도 지금껏 우리가 공부해 온 것과 같이, 의식이 단순히 촉을 받아들이기만 할 뿐 그 외의 행동을 안 할 때, 그때 의식의 상태가 어떤지 잘 알아차리면서, 감각이 그저 명멸하고 있는 양을 관찰해보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이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면 수행의 그 다음 단계는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첫걸음부터 바로 중도를 탄탄히 다졌으니까요. 촉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이제부터는 조금도 복잡하질 않습니다.

아찬 꺼 카오-수안-루앙
(1901~1978 태국여성법사)

이 글은 (사)고요한 소리에서 펴낸 보리수 잎 시리즈 중 32편 〈병상의 당신에게 감로수를 드립니다〉의 내용입니다.

사 찰 양 도

■ 대전에 소재한 사찰로 토지 약 1800평, 신축 4층 건물로 높이는 일반 건물의 2배정도, 연건평 560평, 10여개의 홀로 구성됨. 주차시설 80대 이상 가능, 주변에 맹지 많음.

■ 대로변에 위치, 톨게이트에서 5분거리, 전철역에서 도보로 5분거리, 세종시 15분거리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음.

■ 입구는 사도이고 주변이 숲으로 독립된 공간이며 청정지역임.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들이 있음.

■ 포교당, 불교대학, 명상센터, 교육 · 연수원, 갤러리, 장례법당, 납골당 등으로 적지임.

■ 계룡산 아래 위치해 소나무 숲으로 주변 경관이 좋고, 등산로와 약수터 등이 조성되어 있음.

■ 양도 의향이 있으니 011-455-1080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찰(급)안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서포항 IC 10거리) 2차선 갓길 호조건

■ 사찰 전시관 (2층 240평)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종각, 대중공양실, 판매장 총 2,500평

■ 경주, 대구, 영천 30분거리

■ 일반 재가 불자님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국내최대 관음아기를 안고 계신 목불 (약 250년), 3m 40cm 50여점의 크리스탈 개금불 외 희귀불상 전시 (목불위주 전시) 일시과 외벽 만다라 전시 월간 약 10여개 이상 천도재 (땅가격 : 30만원)

■ 전시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중으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 주지스님 개금불로서 절대 모방이 불가능하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는 황홀감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

■ 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 바 있음.

■ 총 2,500평 중 성취관 내 일체 고불상 전시시설만 받고, 대웅전, 지장전, 용왕, 산신, 대중공양실, 종각, 땅 2,500평 무료 제공함.

■ 2011년 초파일 참배인원 약 3,000여명

■ 가액 : 총 전시관 자금만 받고 급 안내

■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 010-4504-0174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전통 범음범패 (바라 · 작법) 과정 학 인 모 집

사 물
불교의식
기초교리

교육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6시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3동 1162-1
서강빌딩 502호

연 락 처 : 051)442- 1818.
fax 051)442-1817
010-9467-0340
(교육상담 성각스님)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서부종무원

'현우경' 이야기 (31)

금 코끼리를 가진 남자

코끼리 상처를 치료해준 인연으로…

어느 나라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아이는 매우 사랑스러웠다. 같은 날, 아이의 집 마구간에서 코끼리 한 마리가 갑자기 나타났다. 코끼리는 온 몸이 금빛이었다. 아이의 아버지는 이를 신기하게 여겨 아이 이름을 상호라 지었다.

아이가 자라 걷게 되자, 코끼리도 아이를 따라 걸었다. 코끼리는 항상 상호 곁을 지키며 그를 따랐다. 어느 날 상호가 동네 아이들과 함께 모여 놀고 있었다. 그때 한 아이가 말했다.

"얼마 전 아버지가 나에게 온갖 보석이 박힌 의자를 선물해 주셨어."

다른 친구들도 그에 질세라 집안 자랑을 늘어놓았다.

"우리 집에는 금 두꺼비가 셀 수 없이 많아."

"우리 집 곳간에는 외국에서 가져온 진귀한 음식들이 넘쳐나."

그때 상호가 말했다.

"우리 집에는 온 몸이 금빛으로 된 코끼리가 있어. 그 코끼리는 내가 하는 행동은 뭐든지 따라해. 그리고 코끼리의 대소변도 모두 금덩어리야."

그 무리 중에는 이 나라 왕자인 아자타사트루도 끼어 있었다. 왕자는 평소 욕심 많고 심술궂기로 소문이 자자했다.

'내가 임금이 되면 반드시 상호네 코끼리를 뺏고 말 것이다.'

시간이 흘러, 왕자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됐다. 왕은 신하들에게 즉시 상호와 코끼리를 불러들이라고 명령했다. 상호는 코끼리와 함께 입궁하라는 전갈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 상호의 아버지도 그런 아들이 걱정돼 말했다.

"아무래도 느낌이 좋지 않구나. 분명 코끼리는 빼앗고, 너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삽화 · 강병호

"너무 걱정 마십시오 아버지. 무사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상호는 코끼리를 데리고 궁으로 향했다. 왕은 상호가 코끼리를 데리고 오자 매우 기뻐했다. 온갖 음식을 차려놓고 상호를 맞이했다.

"어서 오너라. 너희들을 환영한다."

상호는 왕에게 꿇어앉아 인사했다. 상호는 왕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제 그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려무나. 그리고 코끼리는 여기에 두고 가거라."

상호는 알겠다고 답한 뒤, 코끼리를 두고 궁을 빠져나왔다. 성 문 앞을 지나치자 갑자기 코끼리가 상호 뒤에 나타났다. 코끼리는 상호가 궁을 나가자 땅속으로 사라졌다.

다시 성문 밖으로 솟아 나왔다. 상호는 코끼리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때 상호는 생각했다.

'이번에는 위기를 잘 넘겼지만 언제 또 왕이 우리를 부를지 모른다. 이렇게 마음 졸이며 살 바에는 출가를 하는 편이 낫겠다.'

상호는 부처님을 찾아가 출가를 청했다. 부처님은 흔쾌히 출가를 허락하셨다. 상호는 그 자리에서 바로 머리를 깎고 비구가 됐다. 상호는 하루하루 열심히 수행 하며 지냈다. 하지만 같은 수행자들에게도 상호의 코끼리는 항상 화제였다. 다들 코끼리를 서로 구경하려고 어느 누구도 수행 하려하지 않았다.

부처님은 상호를 불러 말했다.

"코끼리 때문에 이 곳 분위기가 너무 번잡스러워 졌다. 너는 이제 그만 코끼리를 집으로 돌려 보내거라."

"오래전부터 코끼리를 돌려보내고자 했으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코끼리에게 이렇게 말 하거라. 너와 나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나는 이제 네가 필요 없다."

상호는 부처님이 시킨 대로 코끼리에게 말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코끼리가 사라져 버렸다. 이를 옆에서 지켜본 비구들이 신기하게 여겨 물었다.

"어째서 상호 비구는 금 코끼리를 얻은 것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아주 먼 옛날 어느 보살이 코끼리를 타고 카샤파 부처님 사리가 모셔진 탑을 돌고 있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코끼리에 상처가 난 것을 발견하곤 치료해 줬다. 이런 연유로 그 사람은 죽어서 천상에 태어났으며, 항상 금 코끼리가 따라다니며 호위해 줬다. 그때 코끼리를 치료해 준 사람이 상호이니라. 상호는 자비심을 내 코끼리를 치료해 줘 지금 복을 받고 사는 것이다."

구성=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5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적하수오'
묘목 분양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묘목을 분양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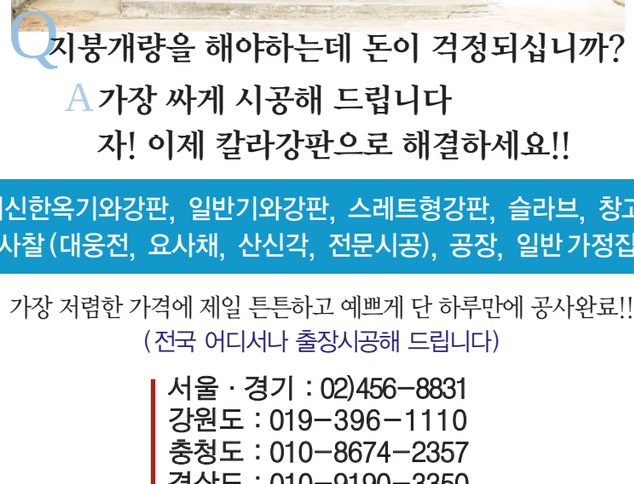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님들께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서룡 농장 : 010-8442-4444 (상담)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묘목 재배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이오칼라지붕공사 (구. 현대칼라지붕공사)



집을 지으려면 주춧돌부터 완전하게 해 놓아야

(지난 호에 이어서)

여러분의 차원을 셋으로 나눈다고 합시다. 하나는 나를 지금 간곡히 관(觀)하고 들어가는 사람, 관하고 들어가서 나를 탄생시킨 사람, 그 다음에 탄생을 시켜 가지고 이제 점차적으로 점수(漸修)로 들어간 사람, 이렇게 세 단계가 있다 하면, 그 첫 단계에 있는 모든 분은 윗단계에 대해서 말한 것을 그냥 따라서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항상 자기 집을 지으려면 바로 주춧돌부터 아주 완전하게 해 놓아야 되니까요. 위성이 지구를 벗어나서 그렇게 돌듯이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지금 마음이 우리 몸뚱이 안에서 벗어나야 지구 안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공기가 없는 대기권 바깥으로 다닐 수 있는 건 마음뿐이에요. 물체는 공기가 없으면은 죽지만, 물체가 아닌 마음은 이 우주 삼세를 다 한 찰나에 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손색이 없어요. 그러나 그뿐 아니에요. 전체를 갖다 놓고 보는 것이, 공하나 갖다가 이렇게 놓고선 요리 보고 조리 보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도 부처님께서는 도가 아니라고 그랬으니 무슨 까닭인가 이거예요. 전체를 요렇게 갖다 놓고 볼 수 있어도 이건 도가 아니니라 했어요. 목마를 때 물 한 모금 주는 것만 못하다 이 소리죠. 보는 것이 무슨 도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저 위성을 만들려면 일 단계, 이 단계 겉껍데기를 만드는 것과 같이 그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뿐이지, 오신통이니 뭐니, 이것도 종합해서 하는 거지, 모두가 혼자 하는 거는 없으니까요. 보는 거, 듣는 거, 상대를 아는 거, 또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거, 또 내가 가고 옴이 없이 이렇게 가고 오고 보고 이러는 것이 종합돼야 한 몸이라고 할 수 있죠, 한 몸. 정상인.

그렇듯이 그 정상인 하나를 정상인답게 할 수 있다면,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지구 바깥을 벗어나서 돌거니와 아니, 다른 행성에 가서도 돌고, 다른 행성이 만약 우리 지구에 어떠한 문제를 일으킨다 하면 바로 그 속으로 들어가서 둘이 아니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 평등공법이라고 할 수밖엔 없겠죠? 그런데 평등공법이면서도 중용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여러 가지로 이름이 주어지지만, 하여튼 모두 그 안에, 보고 듣고 하는 그 안에 진짜는 들어 있으니까요. 보고 들었으면 주어라. 보고 들었으면 결정을 지어라. 보고 들었으면 그냥 물러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잘못되고 잘되고가 알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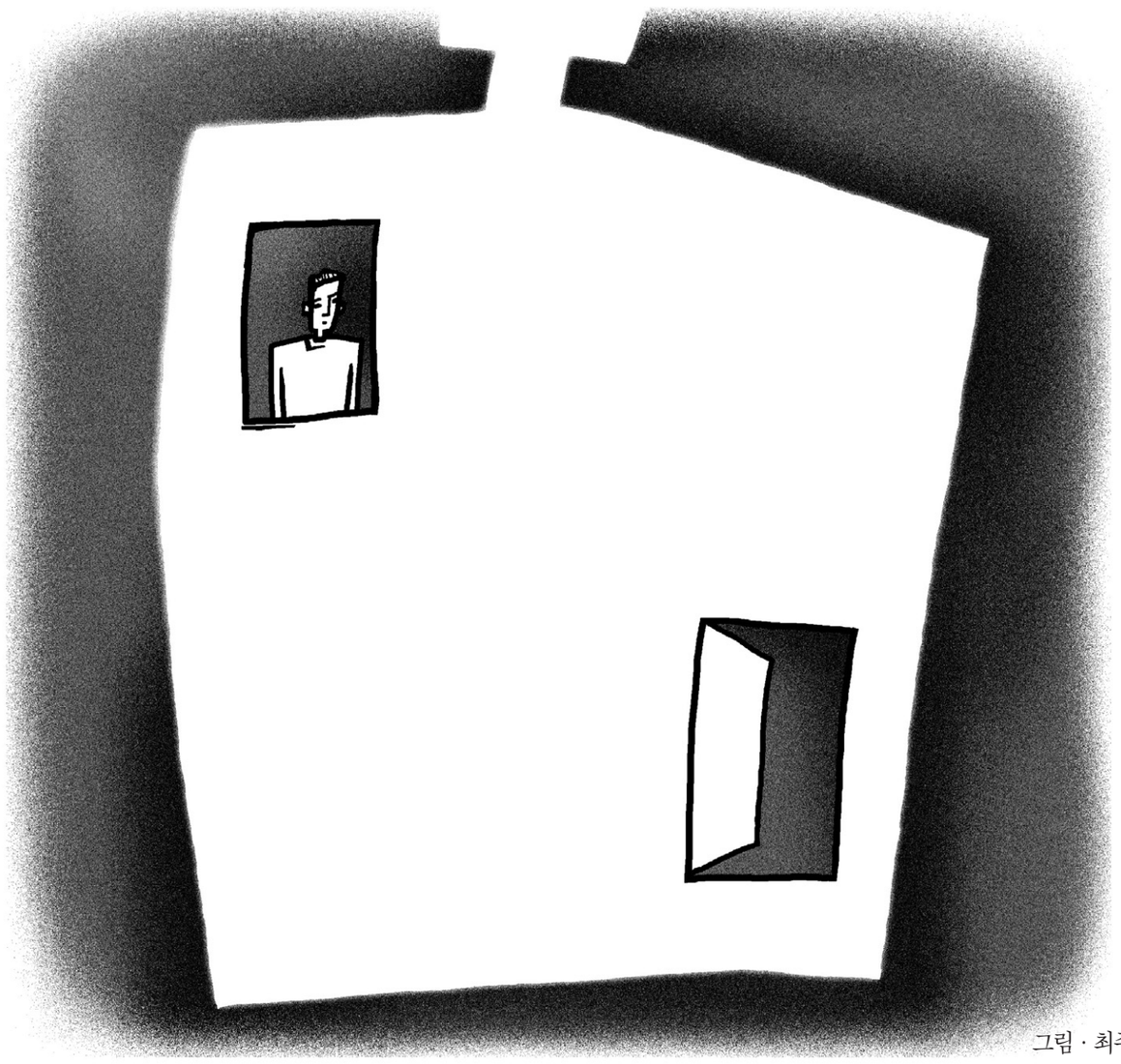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건 '수습을 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길을 지나가다가도 말해 줄 사람한텐 말해 주고, 그냥 건져 줄 사람은 건져 주고, 예전에는 양을 많이 잡아서 바쳤답니다. 양을 바치려고 짊어지고 갈 때는 양을 건져 주고, 소가 죽을 때는 소를 건지고, 이렇게 해서 부처님 그 눈에 걸렸다 하면 그건 인도환생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중에 '더운데 시원한 데로 놀러가지, 왜 내가 거기 가서 끼어 앉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요, 내가 지내 보니까,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또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누가 주면 주는 대로, 끌어다가 먹지도 않고 나한테 온 거 박차서 내버리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모든 점에 있어서 순리적으로, 일체를 합류화해서 항상 모두를 내 스승으로 보고, 내 아픔으로 보고, 내 몸뚱이로 본다면 그게 잘못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몸을 변하게 만들어 가지고서는 키가 모자라서 못 먹을 때는 키를 키우고, 다리가 모자랄 때는 다리를 키우고, 배가 좁을 때는 배를 크게 해서 자기 소관대로 자유스럽게 몸뚱이를 만들어서 사는데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화력이라는 게 그렇게 이 한생각으로 진화가 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몸 자체도 개선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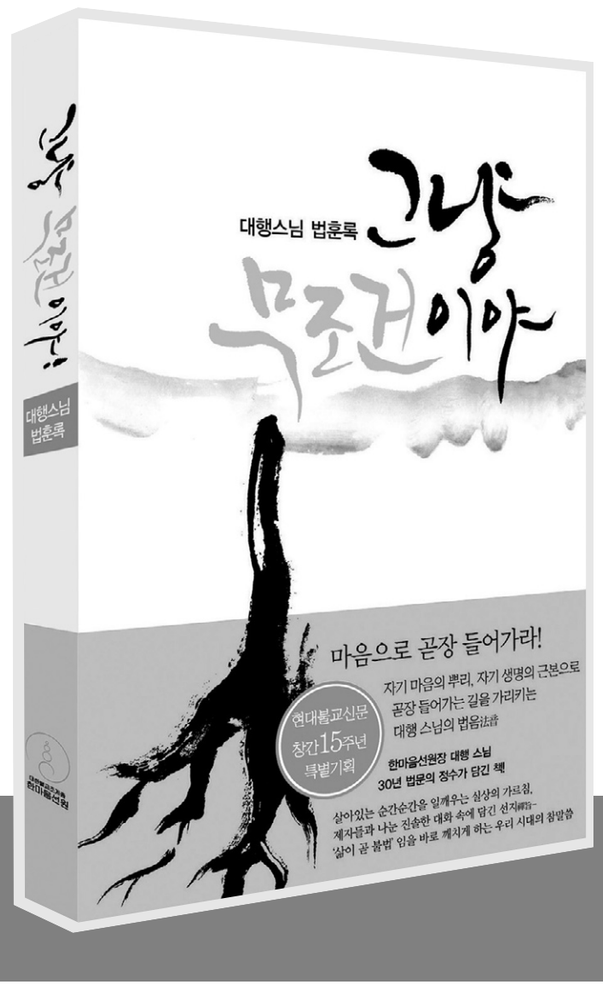
그런데 나를 믿는 것 말입니다. 믿는 것은 아픈 것을 나을 양으로 믿는 것도 아니요, 죽을 걸 살 양으로 믿는 것도 아니요, 어떠한 업보를 제거하려고 믿는 것도 아니요, 자기가 이 세상에 났으니까 그대로 자기를 믿으라는 거죠. 자기 시자는 자기 주인을 믿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아버지가 나쁘든 좋든 아버지이듯이, 어머니가 못났든 잘났든 하여간에, 못 배웠든 병신이든 내 어머니이듯 그냥 무조건, 무조건 믿는 그 속에서, 천차만별로 벌어지는 거는 다 대치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믿지는 않고 이름만 부르면서 요거 한 가지만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은 그건 참 더디죠. 앞에 닥친 거를 어쩌겠습니까? 그러니 진짜로 믿고 '너 아니면 해결 못한다.' 하고선 마음을 조급하게 두지 말아야죠. 안되든 되든 일단 맡겼으면 '난 죄가 없어, 일단 맡겼으니까.' 하고 그냥 던져두는 거죠.

어떤 스님이 샷갓을 쓰고 주장자를 짚고선 물을 건너가는데 아, 어느 마을에 불이 나서 그냥 막 타오르고 아우성을 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몸뚱이가 뛰는 게 없이 주장자를 물에다가 척 치니까, 그 물이 구름으로 화(化)해서 전부 비로 내리더랍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니 불이 그냥 단번에 꺼지더랍니다. 그쯤은 돼야죠. 허허허….

그러니 몸뚱이가 아무리 뛰어 봤자 벼룩입니다. 저 허공에서 비행기가 잘못돼서 죽는다고 해 보세요. 몸뚱이가 아무리 뛴다 하더라도 그거를 해결할 수가 있나요? 예전에 그런 예가 있었죠. 어느 스님이 가만히 보니 비행기 조종사가 몸이 불편해서 술 한 잔을 마셨는데 위험하게 된 거예요. 그 스님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겠거든요. 그래서 그 조종사 속으로 들어갔어요. 조종사 속으로 들어가서는 "에이, 이 새끼야, 정신 차려!" 그러고는 콱 찔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 보니까 이거 야단났거든요. 그래, 그냥 수습을 한 거죠, 그냥. 비틀비틀 하면서 수습을 해 가지고 괜찮았답니다. 그런 예도 있어요.

그냥 종교 삼아, 남들도 절에 다니니까 나도 다녀보자 이러고 그냥 나오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화를 필수적으로 쓰듯이, 밥먹는 거를 필수적으로 먹듯이,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내가 살고 있으니까 모든 게 내 탓이고 남의 탓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 부처가 있고, 내가 변소간엘 가든지, 똥둑간엘 가든지, 허허허…, 똥 재어 놓는 데 있죠? 그런 델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되든 안되든 일단 맡겼으면 그냥 던져두세요

☞ 29면에서 계속

가든지, 내가 있는 자리에 부처는 있는 것이지 깨끗한 데를 찾아서 부처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자1(남): 질문을 이렇게 하게 해 주셔서 우선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마음을 관하는 방법에 관하여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빨리 부처가 되고 싶은 열망은 간절합니다만 그것도 욕심인지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마음을 관하는 방편을 찾는데, 예를 들자면 옴 진동수라든지 또는 냉수, 온수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냉온욕이라든지 그런 걸로 몸 안에 있는 나쁜 거를 제거시킨 다음에 하면, 깨달음의 길을 가는 마음 관하는 방법이 육체가 단련됨으로 인해서 더 도움이 되는지요? 진동수나 냉온욕이나 이런 게 도움이 되는지요? 그게 궁금합니다.

큰스님: 그것은 믿는 것이 진짜로 얼마나 거기에 통신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진짜로 그 나오는 구멍에 들어갔는지. 그래서 거기에 통신이 되면은 한 찰나에 대뇌로 갑니다. 대뇌로 가서 소뇌를 거쳐서, 아주 찰나죠, 중뇌에서 책정을 합니다. 사대(四大)로 통신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의해서 모든 거를 제거할 건 제거하고 수습할 건 수습하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죠, 모두가. 가능한데 말입니다, 그거는 내가 진짜로 믿고, 내가 되는 데서 가능한 겁니다. 부처는 이름입니다. 여기 부처 아닌 사람이 어딨습니까? 다 부처님이지. 그 부처님 속에 부처 아닌 부처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믿으라는 게 아니고 그대로 그대로 그 부처가, 부처 아닌 부처가 그대로 있으니, 본래 있으니 그거를 진짜로 믿어라. 콩씨를 하나 심어서 콩싹이 났걸랑은 그 콩싹은 제 뿌리를 진짜로 믿어라. 믿어서 콩싹이 왕성하게 되면 자기 종자를 다시 얻느니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종자를 다시 얻을 때에는 한 종자가 수만 개로도 되고, 그랬을 때 수만 개의 종자를 다 먹이고도 한 종자는 되남더라 이 소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이 저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질문자1(남): 그러면은 진동수를 마시면서 마음을 관해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큰스님: 왜 하필이면 진동수를 마시면서 관합니까?

질문자1(남): 마음은 천차만별이 돼 가지고 마음 하나 관하기는 힘들겠고 그래서 몸이 우선 건강해야 마음을 관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하나의 방편….

큰스님: 마음이 편안해야 몸이 건강하죠. 몸이 건강해야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닙니다.

질문자1(남): 네.

큰스님: 아까 얘기했죠. '잘되려고 하지도 말고 못되려고 하지도 말고 닥치는 대로 마음에다 맡겨라. 이왕 맡겼으면 심부름꾼은, 즉 말하자면은 하인은 주인이 하는 대로 따라갈 뿐이지 그냥 뭐 잘못됐느냐 잘됐느냐 따지지 말아라. 왜 주인도 따지지 않는데 하인이 따지느냐. 그러면 종 문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거죠.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 이치를 아시겠습니까?

질문자1(남): 예. 완전히는 몰라도 대충 알겠습니다.

큰스님: 하하하….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렇게만 맡기세요, 그렇게만. 옛날에는 주인이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 다 했지 조금도 거역한 예가 없지요.

질문자1(남): 예, 감사합니다.

잘되려고 하지도 말고 못되려고 하지도 말고
닥치는 대로 마음에다 맡기세요.
이왕 맡겼으면 심부름꾼은, 즉 말하자면은 하인은
주인이 하는 대로 따라갈 뿐이지
그냥 뭐 잘못됐느냐 잘됐느냐 따지면 안 됩니다.
주인도 따지지 않는데 왜 하인이 따집니까.
그러면 종 문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큰스님: 아주 자기 자식까지도 전부 종이 되는 거죠. 전부 종이 되는 거지, 거기에 뭐 빠지는 게 없죠. 그러니까 종 문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종이면 종답게 살아야지, 주인 노릇을 하지 말아라 이거죠. 주인 일에 참견하다가 외려 종이 죽어 버리면 주인도 찾지 못하고….

질문자2(남): 저는 본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살다 보면 집안에 각종 벌레, 해충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죽어 있는 것을 먹거나 버릴 때는 뭐 '한마음!' 하면서 할 수 있겠는데, 살아 있는 놈을 귀찮다고 또 '한마음!' 하면서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공부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스님: 살아 있는 걸 죽인다 할 때 그거는 죽이는 사람의 차원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갓 배우는 사람한테는 '살생하지 마라' 이럽니다. 그러나 다 배운 사람 앞에는 '무조건 먹어치워라' 이럽니다. 하하하….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왜냐? 그 모습으로 산다면 얼마나 고생이 되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다 깨친 어떠한 스님이, 부처님께서…, 스님이 부처고 부처가 스님이니까요, 만약에 수많은 벌레들을 다 죽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거 살생이라고 보겠습니까? 죽여도 건진 거고 살려도 건진 거고, 줘도 건진 거고 안 줘도 건진 거고, 그냥 건져져요, 그냥.

질문자2(남): 지금 장기 이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눈을 이식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아까 그 다섯 가지 문제가 같이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요?

큰스님: 그거야 선과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선심이니까. 즉 그걸 받는 사람이 항시 고맙게 생각하고, 눈을 줬든지 간을 줬든지 그 준 사람을 둘로 보지 않고 자기로 봐야죠. 자기로만 볼 수 있다면 되지만 둘로 본다면 또 그게 인과가 되죠.

질문자2(남): 다음에는 정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전에 스님께서 저녁 때 잠들기 전에 하루를 되돌아보고 반성을 하고 자야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한 시간을 제대로 살면 하루를 제대로 살게 되겠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반성하고 잠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어떻게, 순간순간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우리 공부에 관련해서 정진이 되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큰스님: 그냥 생활선법(生活禪法)이 아닐까요? 그냥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되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모든 것을 그냥 내 주인이 그렇게 시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주인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해라. 이런 것이 참선입니다, 그냥. 그대로 참선이에요. 그런데 그게 두 가지 여건에서 세 가지 단계로 내가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나를 발견을 못했으면 진짜 공부를 못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라면 저녁에 남이 다 자고 조용한 틈을 타서 한 30분이라도 앉아서 '이놈아, 네가 너 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지 누가 증명을 해 주느냐?' 이거죠. '당신이 있다는 것을 당신만이 증명을 해 줄 수 있는 거지 누가 증명해 주느냐?' 이거야. 그것이 똑바로, 직속 들어가는 관법이거든요. 그게 바로 좌선도 되지만 그게 관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발견 못했을 때 지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그리고 살림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에 한해선 특히 더하고, 스님네들도 역시 그렇구요. 우리가 이 도리를 발견하려면요, 첫째는 다섯 가지 요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다 거기서 나오고 빚어지는 거거든요. 뭐, 관습이라든가 습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굴려서 놓아야 떨어지죠. 거기에서 예전에 살던 그 습성이 나오면, 그냥 나오는 대로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나오는 대로 말하고 나오는 대로 하거든요. 그걸 한번 굴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습성이 다 떨어지지 못하면 인정을 못해요. 하늘에서, 한울 중심에서 인정을 못한단 말입니다. 열쇠를 받지 못해요. 그걸 해인(海印)이라고도 하고 그러지만요.

그러니까 그 다섯 가지 요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나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통 속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모든 인과의 습성, 인연들과 살던 그 습성을 그대로 그렇게 반영하고 자꾸 그대로 하지 말고 한번 굴려서 놓되, 그 마음이 분기해서 탁 나오더라도 안으로 상대방을 생각해라 이거야. 내 생각을 하지 말고, 언제나 내 생각으로써 나의 기준으로써 잣대를 삼지 말고, 한번 내가 상대방으로 들어가서 상대방이 돼 봐라 이거죠. 그러면 그 습성이 차차차차 없어지죠. 그리고 둥글어지고 둘로 보지 않게 되고, 그래야 빨리 그 몸통 안에서 벗어날 수 있죠. 몸통을 그냥 통이라고 하죠.

질문자2(남):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조그맣게 일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어떤 땐 일감이 좀 적게 들어오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점심을 안 먹고 '저 일감 가지고는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나가서 더 벌어들여 오든지 일을 더 많게 하든지 하라.' 그러고서 어떤 땐 굶어 버립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이 공부와 관련해서 내면과의 대화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큰스님: 만약에 내가 당신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점심을 먹게 하는 것도 너고, 먹지 못하게 하는 것도 너니까 알아서 해.' 그게 배우는 과정에서 톡톡한 맛이 나는 도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렇게 안됐으면 '어, 굶어라 이런 거로구나!' 그러고 굶고 또, 먹게 되면은 '어, 먹게 했구나, 감사하다!' 하고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들고 나고 들고 나고, 안되고 되고 되고 안되고, 이것이 나중에는 그냥 막 돌아가 버려요. 그렇게 한참 돌아가야 이게 뭐가 되는 거지 그게…, 허허허….

질문자2(남): 감사합니다.

큰스님: 하여튼 내가 짐작하건대는,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지극히 하시기 때문에 모두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고기들이 바다에서 벗어나지 못하듯이, 인간도 공기주머니에서 절대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뱅뱅 돌면서, 죽어도 또 거기, 죽어도 또 거기, 이걸로 저걸로 모습을 달리 해 가지고 나오면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살아서 내 몸뚱이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죽어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그냥 '네놈이 알아서 해. 난 너의 심부름이나 할 거야.' 하고 그냥 콱! 말입니다. 하하하….

(합창단의 음성 공양 후 대중이 삼배를 올리자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여기다 하세요. 인간의 몸뚱이는 전부 고깃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의 주인한테다가 삼배 올리시고 정리하시고 그러세요.

※위 법문은 95년 8월 6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자 성범 스님

살아 있기 때문에 아프다

도심포교당의 수행일선에서 들려주는 평범한 삶의 지혜!

죽었다고 여겼던 사람이 아픔을 느끼면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을 알고 매우 기뻐합니다.
이렇게 아픔을 껴안을 수 있다면 아픔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픔을 극복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픔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강도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대부분 고통 아닌 것을 고통으로,
불행 아닌 것을 불행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바꾸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범스님은
1988년 통도사로 출가, 1989년 석산스님을 은사로 득도.
활산 성수선사에게 선을 배우고 문경 봉암사, 묘관음사, 복천암, 개심사, 정혜사 등 제방선원과 사량도 지리산 등지의 토굴에서 정진하였다. 마곡사 공주포교당 지도법사로 포교활동을 하였고 현재 대전 구봉선원 주지로 포교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에는 금강경해설서 '꽃을 시샘하지 않는다'가 있다.



구봉선원 – 대전 서구 관저동 1086(2층) / 042)543-3722



공모전명	한국불교전통문화콘텐츠 공모전	불교문화유산답사기 공모전
목 적	불교문화와 IT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IT 미디어를 활용한 한국불교전통문화콘텐츠(플래시 제작)를 제공함으로써, IT 산업의 핵심 콘텐츠로 한국불교 전통문화의 가능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위함.	중·고교생, 대학생 및 일반인들이 지역의 문화유산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그것을 통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일정	- 접수기한 : 2012년 8월 20일(월) - 1차 심사 및 선발 : 2012년 8월 22일(수) - 사전 제작지도회의 : 2012년 8월 30일(목) - 제작 기간 및 제출기한 : 2012년 8월 31일 ~ 10월 19일 - 수상작 발표 : 2012년 10월 25일(목) - 시상 : 2012년 11월 7일(수)	- 접수기한 : 2012년 8월 20일(월) - 1차 심사 및 선발 : 2012년 8월 22일(수) - 답사기 준비 및 제출 기한 : 2012년 8월 23일 ~ 10월 19일 - 수상작 발표 : 2012년 10월 25일(목) - 시상 : 2012년 11월 7일(수)
출품과제 및 선발팀 수	- 지정과제 : 3팀 - 일반과제 : 10팀 ※ 지정과제 및 일반과제 중복 지원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금강대학교 홈페이지 참조	- 불교문화유산 답사기: 50개 팀 ※ 개인지원 가능하며 팀 구성 시 지도교사와 학생으로 팀 구성이 가능함
참가자격	- 전국 대학 및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 중·고교 교사 및 학생 단일 구성 팀	- 대전·충청권 중·고교 및 대학생(휴학생 포함)
	※ 최근 3년(2009. 7. 1 ~ 2012. 6. 31)내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유사 콘텐츠 공모전에 공모 당선된 작품은 제외	
제작지원경비	- 지정과제 : 3팀(각 팀별 300만원) - 일반과제 : 10팀(각 팀별 100만원)	- 1인팀 : 10만원 - 2인 이상팀 : 30만원
시상내용	⊙ 대상(1팀) : 500만원 ⊙ 우수상(2팀) : 300만원 X 2팀 =600만원 ⊙ 장려상(3팀) : 100만원 X 3팀 =300만원	⊙ 대상(1팀) : 300만원 ⊙ 특별상(1팀) : 200만원 X 1팀= 200만원 ⊙ 우수상(3팀) : 100만원 X 3팀= 300만원 ⊙ 장려상(12팀) : 30만원 X 12팀 = 360만원

※ 자세한 사항은 금강대학교 홈페이지(www.ggu.ac.kr) 참조

불자 세상보기

대통령 사과서 진정성 찾을 수 없어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지난주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친인척과 주변 사람들의 불미스러운 일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또 지켜봐야 했다.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벌써 여섯 번째다.

그는 회견문에서 "근자에 제 가까운 주변에서, 집안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이 같은 대통령 사과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 기본적 예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대통령 친형을 비롯한 측근들의 비리에 대해 그야말로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도,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작 4분짜리 준비된 원고를 읽어 내려감으로써 국민을 우습게 대하는 무례를 범하고 말았다.

말하자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는, 심각한 부정부패 사건을 유야무야 적당하게 얼버무리고자 했던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회견 사실도 불과 35분 전에 통보됐고, 설상가상으로 이 시각에는 공중파 3사가 새누리당 경선후보 토론회 중계 관계로 정작 대통령 사과 모습은 뉴스전문 케이블방송인 YTN만 겨우 생중계 했다.

과연 이런 일들을 우연의 일치로만 볼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도 국민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의 안일한 상황인식과 가볍게 보이는 처신에 대해 거듭 실망만 했을 따름이다.

어쩌면 그는 회견문 행간에다 '이미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고, 월급마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다 내놓고 있는 자신의 청렴결백성을 알아주기 바라는' 마음까지 담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통령의 갑작스럽고 당황스런 담화문 발표는 형식면에서나 내용에서나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한, 그저 평범한 소회의 말씀이 되고 말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사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의 무소불위 전횡과 국정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번 경고음이 들린 바 있다. 특히 대통령 친형에 대해서는 '만사형통(萬事兄通)'이라는 말이 널리 회자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는데도, 결과적으로 보면 동생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시종일관 모른척하고 있었던 셈이 됐다. 혹시라도 '자신은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라는 대통령의 자부심이 오히려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대통령직의 포괄적 임무와 막중한 사명감을 철저하게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전혀 국민 감동없는 6번째 사과
발로참회 없으면 레임덕 가속
남은 임기 사명감 재인식 필요

대통령은 사적 개인의 범위를 넘어서는 공적 개인의 총화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 같은 그릇된 행위들의 반복은 결국 대통령의 레임덕현상을 가속화시킬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문득 불교서 말하는 '참회(懺悔)'라는 개념을 떠올려 보게 된다. 아시다시피 '참회'의 사전적 의미는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가운데 부처나 보살 앞에서 다시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발원을 하고 용서를 비는 것" 쯤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참회만 잘 해도 해탈에 이른다고 할 정도로 참회를 신행활동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갖고 있다.

개신교에서도 '회개(悔改)'라는 말이 이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참회'와 개신교에서 언급하는 '회개'가 종교적인 해석에서 어떻게 다른지는 정확히 모를 수 있다. 하지만 개신교 장로인 이 대통령이 1천만 불자들의 바람인 진정한 '참회'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 수준의 '회개'라도 한 뒤 새 각오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무사히 마무리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사부대중 칼럼

영화, '두 개의 문'을 보고 나서



일감 스님
조계종 재무부장

스님들도 가끔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간다. '아바타'가 한창 인기가 있다 해서 "대체 어떤 영화인가" 궁금해서 가봤고, 그 외에도 여러 영화를 봤지만 스님들이 단체로 영화를 보러 갈 때는 대부분 불교적 소재의 영화일 때가 많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모시고 스님들과 재가자들이 단체로 관람 하다시피 했다. 3년 전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용산참사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든 영화이다.

보통 영화 시작 전에는 약간의 조바심이나 설레임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객석에 앉아 이 영화의 시작을 기다리는 동안은 무거운 긴장감과 함께 시간이 무척 더디게 지나감을 느꼈다.

영화 내용은 간단하지만 구성은 촘촘하다. 영화는 당시 사건 현장에서 촬영된 TV 영상물, 용산참사 유가족 변호인단의 인터뷰, 용산참사 범대위 활동가들, 용산 참사 사건을 보도한 방송 언론의 보도기사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사람들의 육성으로 구성됐다.

영화로 넘어가자. 내용은 세상이 알고 있대로다. 일방적 철거에 반대하는 철거민들이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장기농성 할 준비를 한다. 농성 하루 만에 권력자들이 강제진압 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목숨 여섯이 희생된다.

하지만 영화가 들추는 속살은 여러 가지 다른 이면들이 존재한다. 현 정부는 집권초기에 지난 정부하고는 다르다는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감이 있었고, 거기에 거짓 충성이라도 해야 하는 경찰간부, 그리고 표면에 보이진 않지만 거대한 개발업자들의 욕망을 앞세운 자본주의가 있었다.

자본주의 명령을 받은 권력자들은 힘없는 경찰들을 밀어붙여서 농성장을 죽음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명령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정당한 방법인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몽둥이를 들고 위, 아래로 토끼 몰이식으로 대부분 진압을 했다. 그러나 화염병을 보유하던 망루 위 농성자들은 계속 쏘아대는 물대포에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기름이 바닥에 흘러 넘치게 되고, 결국 화재 속에서 유명을 달리하는 사고가 나고 말았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차치하고

어떤 이유든 폭력 사라져야
권력자, 농성자 죽음으로 몰아
영화 끝나고 차마 박수 못 쳐

그 사건으로 인해 사람이 여섯이나 불길에 휩싸여 죽었다. 그 누구도 그런 일이 생길 거라 바라진 않았겠지만, 문제해결을 저런 식으로 하면 이런 엄청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예견 할 수 있었다.

사람이 살다보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싸울 수 있다. 하지만 아주 극단적인 싸움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서로 대화를 해야 한다. 용산 참사뿐이 아니다. 이번 정부가 쌍용자동차 농성자들을 진압할 때도 그랬다. 무장이 해제된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넘어졌고, 넘어진 사람들을 몽둥이로, 방패로, 사정없이 내리치는 장면이 보도됐다.

이 영화를 보면서 쌍용자동차서 쫓겨나 다른 직장에 취직도 못하고, 보상은 고사하고 부채에 시달리다 목숨을 버린 22명의 희생자들이 생각났다. 또한 그들을 부여안고 통곡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 가족들의 울부짖는 소리도 들렸다. 이들 모두 우리가 껴안아야 할 국민들이다.

용산 참사 현장서 우리가 깨우쳐야 할 가르침이 아직 남아있다. 하지만 권력자들은 혹여 민초들이 깨어날까 봐 참회의 현장을 깨끗하게 치워 빈터로 만들어 놓았다. 그렇게 급하다던 개발도 타산이 안 맞다며 안하고서 말이다.

영화는 끝났다. 잘 만든 영화이다. 하지만 박수를 칠 수 없었다. 그 누구도 박수 치는 사람이 없었다. 대신 객석에서의 흐느낌만 있을 뿐이었다.

社說

신재생에너지 사찰 도입 필요하다

한국은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나라다. 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사찰도 상황이 비슷하다. 도시가스를 포함해 기존 에너지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기에, 전기와 석유 의존도가 매우 높다. 때문에 유가상승과 에너지소비 억제 차원의 전기요금 인상 등 사회적 요인은 사찰의 유지비용 가중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7월 24일 발표된 연구 사례는 눈여겨 볼만 하다. 강원도의 한 사찰을 심층 조사한 이 연구 결론은 신재생에너지가 사찰 전기요금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그 사찰의 심야전기료는 평균 9836만원 수준이다. 주변 나무연료를 사용하는 화목보일러로 난방시스템을 전환할 경우, 대략 5000만원가량 절감이 가능했다. 여기에 단열 보강을 했을 시에는 에너지 절감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막대한 사찰림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인 바이오 매스는 사찰만 아니라 지역 주민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고 연구자는 설명한다.

이런 신재생에너지는 불교가 말하는 생명존중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한 최선의 대안으로 보여진다. 조계종도 2000년 초반부터 사찰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몇몇 사찰은 이런 에너지 체계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는 본격적인 사찰 에너지 독립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누수되는 사찰에너지를 절약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것이 적어도 공익적 가치를 내세워 전용 요금제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보다는 훨씬 현실적이고 생산적이다.

템플스테이 국민 심성 교육할 좋은 기회

이제 여름 휴가철이다. 산이나 바다로 가는 휴가 대신 고즈넉한 사산체험 즉 템플스테이를 찾는이들이 늘고 있다.

템플스테이는 2002년 월드컵 당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우리문화를 알려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처음 도입했다. 시범운영 시 호응도가 좋았고 2004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생기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현재 전국 100여개 사찰서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다. 템플스테이는 산사만이 갖는 고즈넉함과 독특한 정서로, 항시 긴장 속에서 지내온 심신을 달래는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또한 타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거부감 없이 체험할 수 있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요즘은 '송광사' '불국사' '법주사' '금산사' 등 각 사찰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템플스테이들이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여기에 구미 도리사는 청소년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까지 개발해 정부로부터 표창까지 받았다.

템플스테이 시행 10년을 맞은 지금은 프로그램들이 종교색채를 벗어나 다양화 돼서인지 불자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수 참가하고 있다. 템플스테이가 전국민을 상대로 불교 및 심성 교육을 하는 셈이다.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우리 불교문화를 전 국민에게 힘들이지 않고 알릴 수 있으니 말이다. 이처럼 템플스테이는 분명 우리 한국불교의 큰 자산이다.

템플스테이는 무언가를 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마음의 시름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말 그대로 '참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다. 간섭받기 싫어하는 현대인들의 특성에 딱 알맞은 힐링 프로그램이다. 앞으로도 사회통합과 심신 치유, 더 나아가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를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템플스테이가 계속해서 한 몫을 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화제의 신간
새로운 滴天髓풀이
[제❸권]

21세기 新개념의 역학!



적천수천미와 적천수징의를 철저하게 비교 분석하여 그 동안 밝혀내지 못 했던 오류를 바로잡았으며, 한글세대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알기쉽고 매끄럽게 번역했다. 그리고 풍부한 해설을 곁들였을 뿐 아니라 천미와 징의에 예시된 수많은 명조마다 사주의 구조와 운의 좋고 나쁨을 일일이 명쾌하게 해석해 놓음으로써, 누구든지 독학(獨學)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천미나 징의에 나오지 않는 자평 명리학의 이론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폭넓고 상세하게 다루었다.

오랜 시간 끝에 드디어 전 3권 완간!

제❸권 慧源 羅明祺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856쪽 / 정가 50,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新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50,000원

한국인의 별점 자미두수 비법
4×6배판/高山 엄창용 지음/양장본/45,000원

子平眞詮精解
우명 서상덕 역 · 저/신국판/4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四柱 사주풀이의 법수

자평 명리학의 신화...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나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다.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송월스님의 제2탄 드디어 출간!
■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616쪽 / 정가 7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정가 50,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부처님의 사리를 보는 것은 즉 부처님을 만나는 것!! (若見 如來舍利卽是見佛)

부처님 진신사리집 출간

말로만 듣던 부처님의 사리집을 친견하여 세세생생 복덕을 누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사진으로나마 처음 접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는 수정(水晶)같이 맑고 무지개빛 영롱한 빛깔을 가지고 있으며 붉은색, 파란색, 노란색, 흰색, 황금색 빛 그대로 보옥(寶玉)입니다. 부처님의 열반이후 이천오백년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부처님의 진신(眞身)을 친견하는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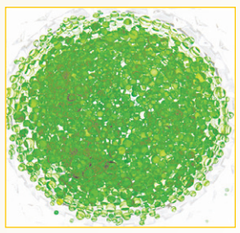
주요목차

- 진신사리의 연원
- 부천의 10대 주요 제자 사리
- 16아라한의 사리
- 사리의 진품 증명서
- 부처님의 생애
- 5대 비구 사리
- 아라한과 다른 기타 사리
- 석가모니 부처 사리
- 500아라한의 사리
- 사리의 봉안

호화판 양장본 정가 ₩28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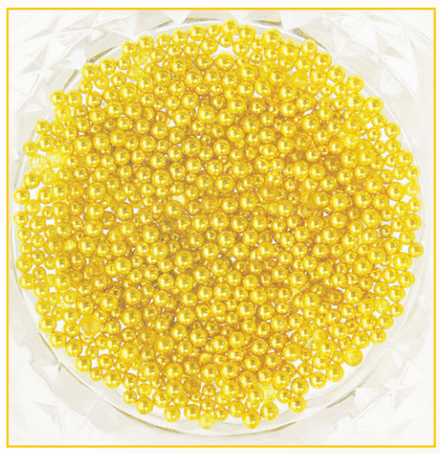

부처님의 뇌 사리


부처님의 침 사리


진신사리 사진집



부처님의 사리 증명서


황금색의 장엄하고 화려한 부처님 혈(血)사리

세계불교문화올림픽조직위원회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 645번지

TEL : 053)325-0400, 325-5288 / FAX : 053)325-4848 / H·P : 010-3900-3050 / e-mail : sambo111@hanmail.net

● 입금계좌 농협 : 351-0469-0075-73 예금주)세계불교문화올림픽조직위원회

아라한과 진신사리 증정

아라한과 사리를 직접 친견하고 모시게 되는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금년 부처님 탄생지에서 봉행사는 룸비니 세계불교문화올림픽 기금 조성 및 불우아동돕기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보급하고자 합니다.

[부처님 사리집 + 크리스탈 사림함 (木좌대 포함 + 아라한 사리 1과]

티벳과 네팔 등지에서 어렵사리 모셔 온 아라한과 사리는 정성껏 모시고 기도하면 증과를 하는 영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고 맑게하며 어떤 장애와 고난으로 부터 극복하고 자기를 지켜주는 사리입니다.



아라함(阿羅漢, Arhan)일난 준말로는 나하(羅漢)이라고도 합니다. 부처님의 불제자들이 도달하는 최고의 계위이며 부처님 시대나 그 이후의 세대 동안 수행을 하면서 모든 번뇌를 완전히 끊어 열반을 성취한 존경 받는 불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동참하셔서 선근(善根)과 인연(因緣)으로 모두가 부처님 사리집과 아라한 사리를 모시는 혜택과 함께 무량한 복덕을 누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사찰등록 !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목탁 혜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남·여 행자(예비스님) 모집



2012년 신제품 경전학습기

불교계에 새로운 선풍을 일으켜 세울 **혁신적인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2012 아이센스 탄생!**

보고 · 듣고 · 배우는~

첨단혁명의 간편한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불교대학에서 의식을 공부하시는 **주지스님, 학인스님, 행자스님, 천도재, 상단불공, 시식** 등의 의식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도하는 **첨단 불경 해석 학습기기!**

염불(念佛), 염송(念誦) 모음

▣ **염송경**
반야심경, 천수경, 불설아미타경, 금강반야바라밀경, 원각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불설약사여래본원경, 화엄경 보현행원품, 화엄경 약찬게, 초발심자경문, 무상계, 의상조사 법성게, 장엄염불, 부모은중경, 백팔대참회문, 대불정능엄신주, 지장보살본원경, 천지팔양신주경, 보왕삼매론

▣ **염송의범**
송주편, 예경편, 불공편, 천도재 · 49재편, 시식 · 영반편, 장의편, 점안편, 이운편, 의식편, 기타편

경전학습기에는 영어 · 중국어 · 일어의 회화기능 외 여러가지 부가기능까지~

- **통역기능** : 기존 번역기와는 차별화된 120문장의 정확한 4개국어 통역기능까지
- **회화강좌**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생활회화 강좌기능
- **전자사전** : 옥스퍼드, 동아프라임, 민중엣센스, 현대옥편, 수능 및 토플단어장 시중에서 25만원에 판매하는 전자사전과 동일한 컨텐츠 탑재
- **녹음기능** : 고성능 마이크가 내장된 선명한 음질의 녹음기능

신한M&B 경전학습기 사업부 02)775-0091~2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010-2950-9398